

제 2장 구비설화

제 1절 개관

고성지역의 구비설화를 육담, 신이현상, 사람관련, 고적관련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정리는 구연상황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야기체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구만면의 평범한 한 면민이 상여소리를 잇고 있는데 상여소리는 본시 민요로 분류되지만 그 내용에 서사성이 높고 구전되는 특성을 살려 여기에 실었다.

제 2절 육담

김춘량은 시조시인으로 고성예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성의 예술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육담에도 능했다. 그가 생전에 구술한 전승육담은 이렇다.

1) 단칸방부부

옛날, 가난한 시절에 단칸방에서 부부가 다 큰 남자아이 셋을 데리고 사는데, 내외간에 사랑의 불이 붙었거든, 그날 마침 비가 와서 가족 모두가 일도 못나가고 집에 머물렀다. 그런데 비가 오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소리가 나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제대로 운우지정을 못느끼더라도 장마가 오니 일도 못하고 쉬다가 갑자기 낙을 한 번 느끼고 싶어 피를 내가지고 큰 아이를 불러 ‘야야 니 저 비가 좀 뜰해지지 않았느냐’ 하니깐 ‘소 좀 매기고 오니라 비 올 적에 쇠 매긴다’ 그렇게 큰애를 소 매기러 보내고 둘째 아이를 불러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물이 흘러 미꾸라지가 올라오니 ‘미꾸라지 좀 잡아 오니라’ 보냈다. 막내에게는 ‘니는 그저 뭐 구장썸 되는 사람이랑 구장은 그러니까 반장 썸 되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가 무신 공부를 배우는지 가가 공부 좀 배워 갖고 오니라’ 하고 보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아들들 나갔다고 무슨 일을 할 생각인데 그 동안 자기 마누라가 축축해져서 정낭(화장실)에서 소변보듯 물이 흐르는 가운데 부부의 일을 치렀다. 남편은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다.’ 라는 소리를 부인은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다.’ 라는 등의 부부관계가 빚어내는 열락의 소리를 내뱉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갔던 아이들은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의 이런 소리를 듣고 차마 집안으로 들어

오지 못한 채 밖에 잠시 서 있었다. 부부의 소리가 찾아들자 그제서야 집에 들어왔다.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놀라 물었다. ‘니 벌써 들어오나?’ 그러자 소꿉 먹이러 갔던 큰 아들이 한 마디 던졌다. ‘샘에서 찬물이 많이 흘러 풀이 많이 자랐다 아이고. 그래가 그 풀 많이 매기따’ 그러자 아버지가 ‘그 물 참 밍네’ 라면서 ‘그럼 뭐 미꾸래기 쫓 잡았나?’ 라고 물었거든 그러니 아이가 ‘아니 아버지는 뭐 하늘로 올라가 빠리고 엄마는 땅 밑으로 꺼져 뿌리면 목을 놔도 없는 데 뭐 잡을끼고?’ 라고 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마누라가 그러니깐 이제 화도 나고 해서 막내 보고 ‘니는 부잣집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노?’ 이러니 ‘부잣집에 가니까요. 다른 공부는 안하고요 어무이 아버지 하던 일 같은 공부 하라 하대요.’

2) 성격 좋은 바보

한 마을에 성격이 좋은 바보 한 명이 살고 있었다. 이 바보는 돈을 벌기위해 빠르면 보름, 오래 걸리면 한 달까지 걸리는 배를 타러 갔다. 그래서 그 부인은 늘 독수공방하기 일췌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네 구장이라는 놈이 매일 수작을 부리고 가곤했지만,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다. 바보는 배를 타고 갔다 오면, 부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 좀 보소 저 밑에 사는 동네 구장 안 있습니까?”

“어 그래”

“아니 그 친구 그 사람이 찾아와갔고 자꾸 날 우애가지고 보채고 가는 게”

“그만 함 주라 카드나?”

“내나 그 말이라. 아이구 아이구 그 놈의 구장.”

“구장하고 내하고 친한 사인데. 내 없으면 빌리가 쥐도 줄 텐데 있는 걸 와 그 안 좃어?”

“응?”

“다음에는 구장 안있나? 내 안 쓰는 기 뭐 빌리 쥐도 괜찮소.”

남편한테 그렇게 허락을 받은 부인은 그렇게 알고, 다음부터, 구장이 집에 와서 수작을 부리면 남편이 승낙했으니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장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아이들 눈치도 보이니 동네에 있는 보리밭에서 일을 하자고 이야기 했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 마 오늘 별다르게 함 해보자, 서로 상대방 그걸 훑어주기를 하던지 빨던지 하자”

“그래 하자” 바보 부인이 대답했다.

그래서 구장이 부인을 보고 ‘인자 날 한 번 빨아주라.’ 그러자 부인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내 차례이니까네 자기도 함 빨아주라.’ ‘그 약속한 거면 해야지 벌려보라’ 고 했다. 그러자 구장은 손가락만 움직일 뿐 빨지는 않았다. 그 때 마침 바보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스스로 승낙한 것이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구장이 서로 빨자 했는데 손가락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바보가 구장에게 하는 말이

“이보게 경우가 틀렸잖아.”

사람이 좋지만 악의가 모자랄 경우 이렇게 대응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3) 그걸 처음 본 세 자매

옛날에 가난한 홀아버 양반 집에 딸이 셋 있었는데, 가난하다보니 시집을 갈 나이가 지나고 말았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특히, 남자의 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들만 머물고 있는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잠을 청했다. 자매들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병어리 짓을 했다.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남자는 병어리니 ‘무슨 장난을 쳐도 말을 못 한다.’ 고 생각하여 자매들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긴 다음 여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자매들한테 자신의 양물을 만져보라고 시키기도 하고 양물을 넣어 보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 다음 날 남자가 떠나자 자매들이 모여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 그기 그 좃이라 카는 거 아이가 그기 똥이라고 생각하노?”

“똥는 똥라 가죽이지”

“그거 가죽 주머니거든 가죽 주머니 안에 똥든고 들어 있기는 해도 똥 하여튼 가죽 주머니더라”

“그래가 예 참 처녀가 모르네 응? 내가 보니깐 그 주머니가 아니고 살덩어리던데? 살살 주무르니깐 살 커오른다 아니가”

살덩어리더만 주머니라 그러니 막내가

“그게 형님들은 다 모른다. 내가 먼저 본 바로는 그기 빠더라 빠(빠)”

“아니다 가죽이다.”

“아이다 살이다.”

“아이다 빠다.”

그 놈을 두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짓궂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는 혼잣말로

“아이고 아이고 안 해 본 중한테는 말도 말렸더마는 이기 경험이 없으니깐 인자 또 뭐 가족이라카구 뼈라구 한다. “

4) 사돈간의 욕설

사돈이 있는데 서사돈하고 누사돈 관계라 옛날에는 그 관계가 서사돈은 힘이 켜다. 서사돈은 남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사돈을 뜻하고 저쪽에 며느리를 둔 집은 누사돈이라했다. 서사돈하고 누사돈의 관계가 이렇다보니 누사돈은 서사돈에게 콩도 줌 주고 어떤 때는 메주를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어느 해인가 보니 가을이 지난 지 오래 됐는데 아무 것도 안보내주었다. 그러자 여자는 종이를 펴놓고 점을 콕콕콕 찍어가 보냈다. 편지를 받아본 사돈이 허허 참 한동안 주다가 안주니깐 또 콩보내 주라는 말인가 싶어서 께쌈해서 나 줌 있음 줄긴데 안 준다 싶어서 답장으로 점을 콕콕콕 찍어 놓고 옆에다 글을 못써 빗자루를 하나 그려 놓았다. 다 쓸어버리고 없다는 뜻이다. 그걸 누사돈이 보고는 아주 께쌈히 생각하였다. 당연히 주는 것인데 없다고 빗자루를 그려 보내왔으니 화가 안날 수 없었다. ‘감히, 내가 누사돈인데’ 싶어 답장에 빨간 점하고 파란점하고 붉고 푸른 점을 섞어 찍어서 보냈다. 상대 사돈이 받아보니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는 것을 알고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메주를 하나 그려서 보냈다. 그러자 상대방인 누사돈은 화가났다. 그래서 콩하고 메주 사이에 남자 성기를 하나 그려 넣어 보냈다. ‘그것 먹어라’ 라는 욕설이었다.

제 3절 신이현상 설화

도깨비와 관련된 신이로운 현상이나 나무, 다리, 사람과 관련된 신이로운 현상을 즐거운 상상력으로 풀어낸 이야기들을 정리하였다.

1) 도깨비불과 도깨비의 신력

도깨비랑 씨름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는데, 술대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때 비가 마이 올 땐대 이상하게 어머니가 저 쪽에 뭔가 날아다닌다고 자꾸 보라고 해서 한참 쳐다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뭔가 불빛이 타다다다하고 지나가더라고. 그것을 도깨비불이라고 했지. 실제로 도깨비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도깨비가 드세고 무서웠다고 해. 죽계리 장계마을 진소강에 다리를 놓는데, 사람의 힘으로 놓을 방도가 없었다 쿠데. 어느 날 이장 꿈에 도깨비가 나타나 ‘내가 다리를 놓아 줄테니 걱정마라’ 이랬다는 거야. 그날 밤

도깨비불이 날아다니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날라다 다리를 만들었카드라고. 엄청시리 큰 돌을 사람 인력으로로는 못 쌓지. 그거를 도깨비 인력으로 다 쌓았다 카는 거지.

회화면 쪽에서 고성읍내 쪽으로 갈 때 바닷가로 쪽 걸어가면 불통붓대라고 그 독을 건너 가게 되는데 붓통이 튀냐카며는 물대는 데지. 일종의 저수지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집안 어른들이 밤에 한 잔 자시고 밤늦게 거기를 지나 오는데 고마 도깨비가 나타나 가이고 같이 오는기라. 평소 같으면 겁이 나가이고 도깨비 같은 것을 보면 나살려라카면서 도망을 갔을킨데 술을 한 잔 자셔노니께 기운이 나가 같이 오다가 도깨비랑 싸움을 했다카드만. 도깨비보고, 마 이놈의 자식 고마 썰리 널짜뺏는데 꿈 넘어가뺏기라. 그래 마 마을 땃길로 올라 집에 와서는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상한 일인기라. 그래서 어제 도깨비랑 싸운 곳으로 다시 가봤지. 도깨비 흔적이라도 있겠지 싶어가 그 붓때쪽으로 다시 가보니 큰 빗자루가 하나 누워있었다 카드만.

2) 도깨비 씨름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술을 한 잔 자시고 집에 간다꼬 고개를 넘어가는데 도깨비를 만났네. 도깨비가 고마 씨름을 하자는기라. 그래 씨름을 했는기라. 그런데 술을 먹고 취한 영감이 이겼어. 그리고 가는데 어느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는기라 .그래서 술도 취했지 씨름에 이기가 기분도 좋지. 그래서 그 여자랑 땃등에서 한 판 도깨비 씨름을 했다 아이가. 그리곤 날이 새서 눈을 떠보니 옷이 하나도 없어. 옷이 없으니께네 오도가도 묻하는기라. 옷이 없어가 오도가도 묻하는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 꼴을 본기라. 그 아들이 집에가 옷을 가져와 이 영감도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도깨비한테 혼이 뺏겼는지 삼 일만에 돌아가셨다 카더라고.

3) 산신목-느티나무

옛날 마을에 중년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자식이 없었다고. 그런데 역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마을이 물바다를 이루자 이들 부부는 물을 빨려고 마을 입구까지 나가 힘을 다해 물길을 냈다카거든. 그리고 힘이 들어가 잠시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소복 차림의 노파가 나타나 부부더러 따라오라는 하드라는 거지. 그래 따라 갔더니 큰 나무 밑에 이르러 ‘너희들에게 자식을 하나 주겠다. 열심히 치성을 올려라’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진거야. 중년부부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날이 새도록 치성을 올리고 몇날 며칠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태기가 생기고 10달 후 옥동자를 얻었다하더라고. 그래서 이후 마을사람들 중에는 그 나무에 치성을 드려 아들 낳은

사람도 있거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제사도 드리고 했다더라고.

4) 화산리 삼진(三津)에 얽힌 전설

고기잡이를 하며 화목하게 사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의 고민거리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애들 태우던 어느 날 영감이 나룻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낚싯대에 고기가 걸렸는데 얼마나 큰 놈인지 배가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힘껏 잡아채니 금빛 잉어였거든. 그런데 이 잉어가 눈물을 흘려 그래서 노인은 이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그날 밤 노인의 꿈에 금빛 옷을 입은 귀인이 나타나 절을 하면서 ‘저는 이 바다를 지키는 용왕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나갔다가 다시 용궁으로 못 돌아 올 뻔 했는데 저를 구해줘 고맙다’면서,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했던 말이야. 그러자 노인은 아들 하나만 갖게 해 달라고 했지. 그러자 그 귀인이 ‘내일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제일 먼저 떠내려 오는 것을 가져라.’ 하고는 사라졌단 말이야.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보니 상류로부터 작은 상자 하나가 떠 내려와, 그 상자를 집으로 가져와 뚜껑을 열어 보니 구슬이 세 개가 각각 다른 영롱한 빛을 내고 있어 신기한 마음으로 구슬에 손을 대자, 구슬이 평하는 소리와 함께 구슬은 옥동자 셋으로 바뀌어 버렸지. 노부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이 삼형제가 커서 원진(遠津), 법진(法津), 군진(軍津)을 맡아 다스렸거든. 그 삼진의 지명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5) 나분다리(羅紛橋)에 얽힌 전설

이 고을에 영리한 도령 하나가 살았는데 머리가 천재라 모르는 게 없고 책이란 책은 다 외웠거든. 이 도령이 물이 흐르는 곳에 정자를 짓고 밤마다 별과 달을 벗 삼아 공부를 했는데 천상의 한 선녀가 밤마다 들려오는 이 도령의 책 읽는 소리에 반해 보름만 되면 그 달빛을 타고 도령한테로 내려와서는 밤새 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새벽에는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뿌렸거든. 그런데 옥황상제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야. 천상인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 달빛다리를 없애버렸거든. 보름날 도령은 선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는데 빛이 번쩍하더니 선녀가 항상 타고 내려오던 비단달빛 사다리가 부서지면서 생긴 비단가루는 정자 앞에 흐르는 개울을 연결하는 다리로 변해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리를 비단 나(羅)에 부서질 분(紛)자를 써서 나분다리(羅紛橋)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

6)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에 얽힌 이야기

성전리 발산마을에 최부자란 노인이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던 말이야. 이 아들이 너무나 영리하고 잘 생겼거든. 거기다가 통소까지 잘 불었던 말이야. 돈 많지, 똑똑하지 이러니 동네 처녀들이 다 이 아들을 좋아했따아이가. 그 중에 한 과부 집 딸이 특히 좋아해 이 아들이 부는 통소소리가 나면 사무치는 마음이 더 심해져가 어느 날 이 최도령한테 그만 그 마음을 고백해버렸는데 양반 부잣집 아들이 과부딸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그녀는 그만 거절했거든. 그래 그 과부집 딸이 목을 매뵈는데 과부 집 딸의 혼령이 최도령한테 씩씩했는지 밤에 어디선가 통소소리가 나면 최도령은 밖으로 나갔다가 새벽이 되면 파김치가 되가 돌아오는 기라. 그러가 집안이 한 걱정을 하다가 뒤를 훑아봤더니, 이 최도령이 천하여장군 장승 앞에 가가 밤새 우는기라. 그래서 최부자가 용한 점쟁이에게 물었더니 최도령을 사모하다 죽은 처녀의 혼이 천하여장군에 붙어 밤마다 최도령을 불러낸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점쟁이가 알려주는 대로 천하여장군 앞에 크게 제사를 지내고 툼튼하게 천하대장군을 만들어 옆에 세우고 최도령의 옷을 입히니 그 날부터 최도령의 병은 씻은 듯 나았다카더라고.

7) 옥천사 황소바위

옥천사 입구에 있는 백영암(白靈岩)은 황소바위라고도 불리우는 큰 바위로 옛날 옥천사를 창건할 때(청연암)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물도 날리주고 돌도 치워주고 나무도 날라주는 등 많은 일을 도왔다 한다. 절 낙성 때 큰스님이 황소의 공을 치하하여 소의 목에 염주를 걸어 줄려는 찰나에 갑자기 황소의 몸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바위로 변하였다고 하여 황소바위로 부르고 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왜병이 이곳에 침입하여 옥천사를 불태우자 지방루에서 조련을 했던 승병들이 황소바위 앞에서 진을 치고 염주로 불공을 드리는 것을 보았던 왜장이 나서서 바위를 부수려고 정을 내려치자 바위에서 붉은 선혈이 치솟아 왜병들이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도망치게 되었고 우리 승병들은 용기백배하여 왜병을 격퇴하고 옥천사를 지켰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다. 지금까지 호국수암(護國守岩)의 바위로 전해지고 있다.

8) 세 마리의 용

옛날 용궁마을 앞개울에 깊은 소(沼)가 있었는데 이곳에 용 세 마리가 살았다고 한다. 이들 용은 서로 하늘에서 바람을 불게하고 비가 오게 하는 등 천지를 운행하는 힘을 갖고

자 힘겨루기를 하였는데 아무리 겨루어도 승부가 나지 않자 용들은 제 힘에 지쳐서 끝내 한 마리는 구만면 와룡마을로 가고, 한 마리는 이웃 마을인 용안 마을로 갔다고 한다. 서로 헤어진 용들은 그 후 힘을 잘 다스려서 해마다 이 마을에 풍년이 들게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제 4절 사람관련 설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정리하였다.

1) 노장군 황장군이야기

노장군하고 황장군 묘가 있었는데 황장군 묘는 비가 올 때 호롱불을 들고 지나가면 불을 끄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황장군은 일본의 앞잡이여서 정보를 자꾸 빼서 왜놈한테 주니 노장군이 황장군을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황장군은 힘이 좋아 죽일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노장군이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 함정자리가 지금의 황장군의 묘자리다. 그 함정 밑에 장작을 넣고 기름을 부어 놓고 덩불을 엮은 뒤 여자 하나를 꼬셔 황장군을 데리고 이 길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와 황장군 둘이 길을 지나다 같이 떨어졌다. 노장군은 망설일 것 없이 횃불을 던져 황장군과 여자를 불에 타 죽였다. 그래서 비가와 호롱불을 들고 가면 불을 끄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2) 은정자, 동제자료, 승총명록

승총명록은 월봉 구상덕이 1706년에 태어나 1761년 사망할 때까지 쓴 일기다. 영조1년 1725년 7월 29일부터 영조 36년 1761년 8월 25일까지 37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생활일기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의 나이가 20세가 되던 해부터 56세로 별세하기 사흘 전까지 썼다. 월봉 구상덕이 살았던 18세기의 송산리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지금 남아있는 자료는 구상덕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추정되는 은월리 향약 도안과 그의 문집인 원본선생문집의 몇몇 관련 기사가 남아있다. 1748년에 작성된 이 도안에는 구씨 외에도 본관을 명제하지 않은 적어도 12개 이상의 가야출신으로 구성된 42명의 계원명분이 수록돼있다. 그래서 도안의 이런 인적구성은 은정리가 반촌부락이라기 보다는 평민촌의 성격이 짙었을 가능성이 높다. 절목의 내용은 공동경비 각출에 관한 내용 또 도구나 각종 규약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에 관한 조항 화재시나 관개 문제 등에 관한 조항 등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은 조선 후기 향약 사회에서 발견되는 여타의 기록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승충명록에 의하면 도안책 기록은 본인 친필로 인정된다.

3) 기생 월이

송학리 무학동이라는 마을에 무기정이라는 기생집이 있었다. 무기정에는 월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임란 전 밀과된 왜군 첩자의 지도를 조작하였다. 그런 탓에 당항포 해전 때 왜군은 길을 잘못 들어 전멸했다. 원래 육지인데 해로인 것처럼 조작한 그 물길을 지금, 속깃개라 부른다. 그리고 그 앞 개울에 왜군이 수없이 수장되었는데 그 곳을 머릿개라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은 조선침략의 뜻을 품고 왜군 첩자를 조선에 보냈다. 그 첩자는 조선의 지도를 바랑 속에 품고 와서는 지도에 그려진 해로와 육로가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지도가 없다면 새롭게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였다.

고성쪽에 파견된 첩자는 울산, 동래, 부산, 낙동강, 진해, 마산, 고성, 통영, 사천 등 동남쪽 바닷가를 시작으로 평양까지 돌아다니며 지도를 검증하였다. 이 첩자가 고성에 다다랐을 때 해가 기울어 고성의 무기산 아래에 있는 무기정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첩자는 무기정의 주인과 기녀 몇몇의 친절과 음식 맛에 반하게 되었다.

왜군 첩자가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무기정의 환대를 못 잊어 다시 들르게 되었다. 중요한 임무를 띤 첩자는 처음엔 술을 먹지 않았으나 기생 월이의 미모에반해 견디지 못하고 술을 먹게 되어 취해 굶아떨어졌다. 그가 왜의 첩자인 것을 알게 된 기생 월이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극진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왜냐하면 왜인은 그녀의 부모를 죽인 철천지원수였기 때문이었다. 월이는 잠든 첩자의 바랑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조선침략을 위한 지도가 들어있었다. 월이는 여러 장의 비단지도 중에서 고성지역의 지도를 발견하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 자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나라 사람이 아닌가. 이 자의 지도를 속여 부모의 원수를 갚자’ 라는 생각이 스치자 그녀는 첩자가 갖고 다니던 붓을 찾아내 조심스럽게 소소강(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간사지 일대)과 월평리(고성만바다)를 연결하였다. 그리고 통영과 동해면 거류면은 섬으로 만들었다. 육지가 섬으로 뒤바뀐 순간이었다.

월이는 다시 지도보자기를 묶어 첩자의 바랑 속에 넣었다. 첩자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지만 침착하게 일을 마쳤다.

드디어 임진년에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다. 1592년 6월 5일 당항포 앞바다에서는 왜군과

조선의 해군이 맞붙었다. 기생 월이가 몰래 고쳐 놓은 지도를 따라 소소강을 거쳐 고성만 바다로 가려던 왜군은 길이 없음을 알고 되돌아 나오던 중에 소소포(두호리와 거산리의 간 사지 일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순신 장군과 맞닥뜨렸으나 완전 괴멸되었다. 이것이 제1차당항포해전이다. 제1차당항포해전이 어떻게 발발하여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월이의 구전과 사료를 통해 재구성해 본 그날의 전투는 이러했다.

당항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1592년 6월 5일 아침, 거제 주민들로부터 당항포 일대에 적이 있다는 첩보가 전해졌다. 당항포의 지형을 파악한 이순신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이 좁고 퇴로조차 없는 그곳에 왜적은 왜, 무엇 때문에 왔단 말인가? 혹시 나를 맞아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것인가?’

출격을 결정한 이순신의 함대는 당항포의 좁은 수로를 따라 고기두름처럼 일렬로 당항포로 향해 나아갔다. 이 항진 대열 속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가장 큰 공포를 안겨주었던 거북선도 있었다. 당항포해전은 사천해전, 당항포해전과 더불어 거북선이 최초로 활약한 해전이었던 것이다.

이순신 함대가 당항포를 지나 두호리 일대 소소강 서쪽 기슭에 이르러보니 왜군 선박 26척이 정박해 있었다. 큰 배는 3층 누각에 푸른 지붕, 검은 비단 휘장을 드리웠고 배들은 모두 검은 깃발을 세우고 깃발마다 흰 글씨로 '남무묘법연화경'이라 써어 있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가등청정의 군대를 싣고 온 수군이였다.

소소포 바다에서 적을 막아선 이순신이 적함을 향해 "발포하라!" 명령을 내리자 조선수군은 일제히 총통과 불화살을 날렸다. 동시에 왜군도 조총을 쏘며 반격하였다. 그러나 좁은 해역으로 함대 운용의 어려움을 간파한 이순신은 폭이 너른 당항포로 퇴각명령을 내린다. 왜군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퇴로가 없는 소소포는 전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지였던 것이다. 왜군은 이순신함대가 후퇴하자 허겁지겁 당항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순신의 고도의 유인 작전이었다.

퇴각하던 조선수군은 갑자기 선수를 돌려 총통과 불화살을 퍼부어 적함을 불태웠다. 거북선도 맹렬히 포를 쏘고, 배를 그대로 들이받는 충과공격에 적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살아남은 왜군 일부는 물로 올라 도망을 쳤는데, 이때 왜군들이 도망간 곳이라 하여

이곳 일대는 도망개라고 불린다. 당항포에서의 해전은 왜군의 처참한 완패였다. 더구나 퇴로조차 없는 사지에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전멸한 것이었다.

왜군은 월이가 그린 지도에 의해 당항포를 지나 소소포에서 소소강을 따라 고성만 바다로 나아가 남해로 진출하려고 했으나 소소강에서 뱃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되돌아 나오

던 그 순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과 소소포에서 맞닥뜨렸던 것이다.

이에 왜장은 뱃길이 없음을 속았다고 길길이 날뛰며 분개했고 이때부터 두호리 일대 소소포 앞바다를 '속이고' '속은' 갯가라는 뜻의 '속싯개' 라는 지명 유래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이날의 해전에서 패한 왜적의 머리 수백 두가 소소포 두호리 쪽으로 밀려왔다하여 이곳을 '두호나 머릿개' 라 불리고 있다.

4) 설소사 열녀비

조선 중기 설만창의 딸이 과년하여 출가해보니 불행히도 남편은 나병환자였다. 백방으로 명약을 구해 간병하였으나 끝내 남편은 죽고 말았다. 삼년상을 마친 뒤 소사(과부)도 남편의 뒤를 따르니 소사의 묘소에서부터 현재의 비각 위치까지 가슴에 사무친 한恨이 하얗게 서리가 되어 내린 바, 고을 원님이 그녀의 한을 달래고자 비를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교남지에는 '설소사는 만창의 딸로 일찍이 과부가 되어 사람들이 수절하겠다는 뜻을 빼앗으려 하므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니 정려旌閭를 내렸다' 고 했다. 누군가가 겁탈을 하려하니 목을 맨 것이다.

1770년 고성읍지와 갑술년(1874)의 고성지에는 설소사만창자녀탁년상부薛召史萬昌子女卓年喪夫라 기록하고 있으며, 선조 15년에 명려命閭되었다.

설소사의 정려문을 세우게 된 내력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설소사가 죽고 난 후 마을사람들이 몹쓸 유행병에 걸려 동네가 편치 않자, 누군가가 말하기를, “설소사의 정열한 혼이 맺혀 원을 풀지 못해 동네가 편치 않다.” 고 하자 그 소나무 밑에 신단을 모아 빌었더니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이 무렵 어서 박문수가 고성을 지나면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아침에 일어나니 6월인데도 서릿발이 흰 베를 깔아놓은 듯 뻗어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서릿발을 따라 10여리나 되는 이곳 소나무 밑에까지 이르렀다. 어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설소사의 열행을 들려주었다. 박어사는 이 사실을 즉시 조정에 알려 정려문을 세우게 했다는 것이다.

그 정려문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퇴락이 되었을 때 승지 허재찬이 말을 타고 정려문을 지나가자 별안간 길을 가던 말이 나아가지 않자 이상히 생각한 그는 말에서 내려 정려문을 돌아보니 정려가 퇴락되었기에 “내가 이 정려를 중수해야지.” 하고 말을 하니 말이 움직였다고 한다. 그 후 중수한 정려문이 오늘까지 이르다 다시 퇴락하니 고성읍 덕선리 '박상정·박정옥' 부자父子가 새로이 단장을 해놓았다.

5) 열녀 나씨(羅氏)

임진왜란 때, 왜놈들이 한창 고성을 쳐들어 왔을 때 일이다. 본관은 나주이고 참봉 응벽의 딸이자 군수 이응성의 아내인 나씨는 방마치라는 곳으로가 피신해 있었는데 그 때 그녀는 결혼을 갖 한 신혼 무렵이었다. 어느 날 왜군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나씨는 이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을 찔러 자결하였다.

이웃에 살던 의병장 박연홍이 이 소식을 듣고 왜적을 쫓아 모두 무찌르고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나 전란중이라 관을 마련치 못한 채 장례를 치르고 표시를 해 두었다.

난이 평정된 후 남편 이응성이 돌아와 고장(藁葬)한 것을 열어보니 얼굴피부가 마치 살아있는 듯 하여 순절한 곳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정부인에 추증되고 정려가 내렸다.

6) 와룡선생

산골짜기에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삼 년 만에 절이 망하고 절터만 남게 되었다. 왜냐하면 절을 짓고 난 뒤부터 빈대와 벼룩이 하얗게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와룡선생이라는 분이 빈 절이 있으니 보고는 거기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분이 지내자 빈대와 벼룩이 모두 사라졌다.

7) 내 팔 내나라

조선시대 이곳 남산마을에 김 씨 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 집에는 잘생긴 예쁜 딸이 둘 있었다. 그중에도 못 남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막내였다. 김부자 댁에는 종살이하는 머슴이 셋 있었다. 셋 중 한 머슴이 막내딸을 사모하고 흠모하여 상사병이 났다. 그는 상사병으로 인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러나 종살이하는 주제에 감히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고 더더군다나 주인에게 아필 수 없는 처지였기에 속으로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명절의 하나인 단오날이 되었다. 단오날이면 창포물에 머리 감고 동네 처녀들이 모여 그네를 뛰기 마련이었다. 휘휘 늘어진 남산 밑의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어 처녀들은 그네를 타고 마을사람들은 명절을 즐겼다. 김부자의 막내딸도 저녁이 되자 바람도 쐬고 그네도 탈 겸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것을 목격한 머슴은 그녀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와 그녀를 밀어주는 척하다가 그녀를 그네에서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 그네에서 떨어진 그녀가 그만 죽고 말았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상당히 가파른 곳이었다. 머슴은 겁이 났지만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그녀의 팔을 끊어 어디론지

달아났다.

그 후 그네를 매었던 나무에는 밤만 되면 내 팔 내 놓으라는 김부자 딸의 혼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동네사람들은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합심하여 나무를 베어버렸다. 베어진 나무속에는 큰 구렁이가 두 마리 나왔다.” 는 전설이 남아 있다.

제 5절 고적관련 설화

흔적이나 거대형상과 유적같은 고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하였다.

1) 거류산과 깡수바위

어느 옛날에 거류면의 한 처녀가 부엌에 불을 때다가 바깥을 내다보니 산이 하나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 처녀는 무심결에 부지깽이로 바닥을 치면서 저기 산이 걸어 가네라고 했다. 그러자 그 산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 산이 지금의 거류산이다.

그 때 그 여자가 고함만 안쳤어도 고성이 큰 항구가 되었을 것이다. 거류산에는 거류산성이 있다. 전하기로는 삼국시대 소가야가 신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쌓은 성곽이라 알려져 있지만 시굴조사결과 초축 시기는 삼국시대가 아닌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로 볼 수 있으며 초축 이후 수차례 수축을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곽내부에는 인위적인 평탄면과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축들이 확인되어 성곽 내부의 주둔을 위한 군사시설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거류산성의 축성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통일신라시대 고성지역의 촌주(村主)출신으로 강주장군(康州將軍)이 된 유문(有文)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나말려초(羅末麗初)의 시기 고성지역은 삼국시대에 이어 남해안 교역의 중심거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유문과 같은 고성의 호족(豪族)은 자신의 거점지역의 군사적 방어를 목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인 거류산에 성곽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거류산성에서 출토된 선문기와와 동일한 형태의 기와가 9세기 전반에 축조된 고성고읍성에서 확인되어 축조시기 및 주체와 관련하여 두 성곽사이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거류산정에는 신령한 우물이 있어 늘 마르지 않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우제를 지

내기도 했다. 그 산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산에는 바위가 여러 개인데 선달바위, 강바위, 깽수바위가 있다. 깽수바위는 바위를 치면 깽수 깽수라는 소리가 났다는 내력이 있다. 얼마 전까지도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 바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드물다. 선달바위에서는 장군이 강바위 쪽을 활을 쏘는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거류산에는 농(籠)바위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장룡같이 생겼다고 하여 농바위라고 한다. 지금 복원해놓은 거류산성이 있다. 그 산성 안에 일대사, 이대사, 삼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져 절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다 하나다.

옛날 거류산 북쪽 거산리. 두호리 일대 마을에 무기정 기생 월이가 지도에 표시된 바다를 일부로 바꾸어 왜놈들을 고성만바다로 나가도록 속여서 전멸시킨 내력이 있다. 이 때 왜놈들이 속았다고 하여 지금도 이곳 바다 일대를 속시개, 속시개라고 부르고 있다.

마을에 사십년 전까지만 해도 탑이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뜯겨나가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정월 그믐날 되면은 마을 이장이 정결하게 하여 마을의 안위를 위해 제를 지내고 했었다.

2) 똥메산 유래

옛날에 어느 대사가 지나다가 “하 월 하 시에 저 산이 떠내려 갈 것인데, 절대로 아주머니 밖에 나와서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무슨 산이 떠내려 오나 싶어 보니 개구리가 산을 받쳐 떠내려 왔다. 그 산이 똥메산인데 그래서 지금도 근처에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난다.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똥메라는 산 밑에 동네가 딱 붙어 있는데 옛날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똥이 떠내려 와 그것이 산이 되어 똥메라고 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옛날에 신라 도읍지로 이 고을을 선정하려 했는데, 하루는 비가 계속 와 똥메하고 같이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떠내려가는데 한 아가씨가 부엌에 밥을 짓다 저것이 떠내려간다고 어머니한테 전하니 그 산이 딱 멈추었다. 또는 잔대산이라는 이름은 해일이 나서 잔하나 날만큼 물이 차오르고 말아서 잔대산이라고 한다. 적산은 적삼 한 개 딱 펼칠 만큼 있어 적산이라고 한다.

3) 필두봉 유래

고성군 구만면 담티고개에 있는 필두봉은 붓 필(筆)자에 머리 두(頭)자인데 그 필두

봉을 잘 관찰해 보면 봉우리가 마치 붓 끝 같이 생겼어 그래서 필두봉이라 부른다.

4) 적석산 굴껍데기

적석산에서 굴 껍데기가 발견되곤 했다. 그 이유인즉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산에 있는 바위 중 농바위는 바위가 마치 장롱처럼 포개져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 벼락 바위는 비행기로 찾아도 보일 정도로 크다.

5) 김목신

김목신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땅을 샀다.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동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 동제는 자식이 죽지 않고, 목욕도 한 깨끗한 사람이 대나무에 새끼줄을 하고 고추를 찢는 등 동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동제의 목적은 부정이 있는 사람은 동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김목신 나무는 이순신 장군이 군함을 그 나무에 매어서 쓰게 되었다. 그 나무를 관리하는 집안이 이사를 하면서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사를 가버려 소유자가 없으니 김목신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장이 바뀌면 그 땅을 경작하고 세금도 낸다.

6) 은월리 은정자 나무

18세기 경, 거류면 은월 마을에 구상덕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상당히 학식도 있어 평생 동안 일기를 썼다. 그 일기의 제목이 승총명록인데 그 안에 정자나무에 관한 유래가 적혀있다. 그 당시 소 전염병이 만연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정자나무를 중심으로 네 개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니 우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뒤로 그 정자나무를 은정자로 부르며 동신제를 모셨고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원래 있던 은정자 나무가 죽자 그 나무의 테두리에 돌무지 탑을 만들고, 지금 있는 나무는 후세에 심은 것이다.

7) 아리랑의 유래

김유신 장군이 화랑을 조직하기 위해 힘 센 장군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베 이십 필을 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몇 배나 되는 삼베를 준다고 공고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화랑도를 조직한 김유신장군은 훈련 때 부를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롱아롱 어허야라 이다. 병어리 아자에 귀먹을 룡자를 쓴 아롱인데, 이것이 나중에 아

리랑 노래로 바뀐 것이다. 즉 옛 군가였다고 할 수 있다.

8) 석마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는 호랑이와 관련된 마을이다. 예전에는 호랑이가 마을에 간혹 나타나 마을을 공격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 백발노인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돌을 가지고 말을 다듬어 세워두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마을 입구에 석마를 두 마리 세워 놔는데, 새마을 사업 때 담장을 헐다가 담장 속에서 말이 한 마리가 더 나왔다. 그래서 말이 세 마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 도적을 맞아가지고 한 마리가 없어져 현재는 두 마리만 남았다. 그 뒤로 매년 설날 그믐날 제사를 모셨는데 호랑이가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9) 중고개

고성읍 기월리에 잣골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부잣집이 한 집 있었는데, 가객이나 걸인들이 밥을 얻어먹고 가곤했다.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기에 스님에게 걸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 이를 막을 방도가 있느냐고 하자 스님이 개를 한 마리 잡아서 우물 안에 넣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우물을 못 먹게 되었다. 그러자 오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그 집에도 살 길이 없어졌다. 다시 마을을 살릴 방도를 물어보려고 그 스님을 찾았다. 그러나 그 스님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스님이 저 고개를 넘어갔다면 손으로 고개를 가리켰다. 그런 사건 이후 그 고개는 중고개가 되었다. 요즘 지도에는 중고개가 잘못 표시되어 있다. 서쪽 봉림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중고개이다.

10) 대섬(竹島)

고성 남쪽 바다를 철뚝이라 하는데 그 곳을 간척을 하니 농경지가 많이 나왔다. 그 뒤에 도로가 생기고 그랬다. 그러다보니 원래 섬이었던 대섬이 육지가 되었다. 이 대섬은 유명한 섬인데 통일신라시대 때 고자(古自)군을 설치하고 중앙 관리를 파견했다. 그때가 신라 42대 흥덕왕3년(828)인데 김양이 고성군 태수로 부임했다. 그분이 대섬에 정자를 짓고 낙열정이라 이름 했다. 그는 자주 이곳에 들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시를 지었다. 그 이후 김양은 신라 유명한 정승도 되고 신라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왕실을 수습하여 시종까지 한 이름 있는 집안의 인물이었다.

11) 용식골, 학다리

용식골이라는 유명한 골이 있는데 예전에는 물이 귀해서 거류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뺏기 위해서 요를 자른 것이다. 이 때 요 안에서 용이 나와 용을 잘라버리니 피가나오더라. 그 안에서 학이 나와서는 학다리라는 데 앉은 것이다.

12) 포구나무

포구나무는 할매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는 동쪽으로 한번 잎이 무성했다가, 북쪽, 남쪽 일 년 내내 바뀐다. 잎이 새파래지는데 노랗게 변한 쪽으로는 흥년이 든다.

13) 엇바위 곰실고개

옛날에 불구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입도 틀어져 먹고 살길이 없자, 돛그릇을 만들어 팔거나 배달하며 다녔다. 첫 장사로 간 곳이 곰실고개인데, 그 당시 고개에는 밤이 되면 도깨비가 많이 나타났다. 그 고개에 나무꾼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데, 불구자가 돛그릇을 메고 걸어가니 엇바위가 넘실넘실 넘어가더라하며 노래를 불렀다. 엇바위는 바보란 뜻이다.

14) 개장굴. 때무덤. 잡안개

개장굴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여 왜놈들이 도망을 치니 쇠스랑을 가지고 농민들이 도망치는 왜놈을 개잡듯이 잡아 개장굴이라고 한다. 때무덤은 별로 안높은 지형인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 쓰러져 거기에 묻은 것이 때무덤이다. 잡안개는 바다 앞(갯가)에서 왜놈들을 잡았다고 잡안개라고 한다.

15) 명당자리

여기 남쪽이 명당이라 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해 명당을 사려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맹당이 전부 날라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으니 할머니가 젊었을 적에 혼인을 하고 집을 지을려 하는데 묘지가 있어 묘지를 파니 황금같은 흙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김이 사흘 밤 솟아올랐다. 그래서 그 흙을 버렸더니 며칠 동안 흙이 내뿜는 빛이 동네를 훤히 비추었다. 그리고 흙을 더 버렸는데 그 자리가 진짜 명당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흙은 파낸 자리에 사는 사람은 전부 미쳐버렸다고 한다.

16) 용왕내

경지 정리하기 전에 저 마구뜰 한 가운데로 용왕내가 흘렀거든 용왕내가, 그 마구들 한가운데로 용대이 보꾸랑에서부터 마동우사무실 지어놓은 곳까지. 그리로 용대이 보꾸랑이 흘렀다. 근데 그 때 그 용대이 용왕내 쪽에다 농사를 진 사람은 일반 그 농지 보다는 한 2미터 아주 낮은 곳은 1미터가 폭 꺼져 있었어. 논이 그때는 트랙타니 경운 기니 못 들어가고 사람이 그 손으로 전부다 끌어가지고 모를 심고 그랬거든. 근데 용대이 못 용왕내 쪽에 논을 줌 마이 한 사람이 당항에 그 고익수씨가 용왕내쪽에 밑에 흐르는 논을 제일 마이 가져있었지. 그래 인자 이야기가 그계 용이 그 저 고넛골에는 두 마리나 살다가 하늘로 벼락을 치면서 승천을 했는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 용대이 보꾸랑부터 고 밑에까지 그 내 이름이 용왕내라합니다. 지금, 내는 다 없어지고 용대이 보꾸랑이라고 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17) 배티재

배티재라고 있는데 옛날 천지개벽할 때 배가 그 곳으로 지나갔다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시루봉은 물이 차서 그 밑에 바위에 굴껍질 흔적이 붙어있고 한테, 시루봉은 시루 하나 놓은 만큼만 빼고 모두 물에 잠겼었기에 그 산을 시루산이라하고 그 봉을 시루봉이라고 한다.

18) 서무덤

서무덤이라고 큰 동자가 있고 지금 뭐 완전히 거기 맨날 나가 토지 다 해가밭을 해가 뭐 묵고 그 무덤만 어느 정도근데 그 무덤을 갖다가 옛날에 그 찾는다꼬 유물 찾는데 왜놈이 와가가 거이다 다가 가뻘스 장군인데 서씨 장군이라 하는데 그 큰 무덤을 해봐 논께 이름을 따서 서무덤이라고 그래. 거기에는 비가 없는데, 그 주위를 밭으로 개간한 사람은 죄를 받아서 요새도 관리하는 사람의 집안이 망했다카더라고.

5. 상여소리

구만면에는 전문 소리꾼이 아닌 어느 한 면민이 상여소리를 전승한다. 상여소리는 장르상 민요로 분류될 수 있는데 상여소리 내용에 우리 삶이 반영된 이야기가 들어 있어 설화 영역에 넣었다.

1) 구만면

어~홍 어어어 홍 어나리 넘차 어홍/ 이제가면 언제 오나 다시 오기 어려워라/ 어~홍
어~홍 어나리 넘차 어~홍/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워마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오기 어려워라/ 북망산 돌아들제 어찌 같꼬 심산허노/ 한정 없는 길이로다
옛날 거니 말 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늘 내게 당하여서/ 대문 밖에 저승이라/
어~홍 어어홍 어나리 넘자 어~홍/ 80평생 다 살아도 저승길이 웬 말인가/ (이하, 받는
소리 생략)/ 내 상주야 어데 가고 안 보이냐/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한 번 보자구나/
아가아가 며늘아가 어디 가고 안보이냐/ 살아생전 맺힌 한은 오늘에야 풀고가자/ 딸아
딸아 내 딸들아 아무 가문 시집가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 행복하게/ 살사시
고 잘사시구려 이내 일식 떠나가네/ 사위 사위 내사위야 백년 사위 내 사위야/ 싫다
좋다 군말말고 행복하게 잘사시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가고 안 보이냐/ 푸른
잔디 이불삼아 베게 베꼬 누워자라/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잘 있
거라 잘 있거라 인간 세상 하직하니/ 불쌍하고 불쌍해라 이내 일식이 불쌍해라/ 잘 있
소 잘 있소 마을민 여러분 잘 있소/ 정든 고향 정든 발길 이제 가면 언제 올꼬/
슬프고도 슬프도다 어찌하여 슬프는고/ 백년가약 못 다하고서 백발되니 슬프도다/ 간
다 간다 나는간다 구만 산천 돌아간다/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 밖에 또 있는가/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덕으로 나왔는가/ 석가 은혜 공덕으로 아버지전 별을 이고/ 칠성
님전 명을 빌고 칠성님전 복을 빌어/ 한 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덕 알을 쏘가/ 이
삼 십월 당도하야 부모 은공 못 다 갚아/ 어이 갓고 애닭구나 무정세월 여루하야/ 원
수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령 절로 나네/ 망령이라 흥을 보고 구석구석 웃는 모양/ 애닭
고도 설움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흥안백발 늙어 가니/ 인간
의 이 공도를 어느 누가 막으리오/ 인간의 이 공도를 어느 누가 막으리오/ 춤추는 연
옥이요 왕소는 기불이라/ 우리네 인생 팔거지명 다시 적지 못하노니/ 영농고개 불인사
자 일찍사자 월찍사자/ 열시왕의 명을 받고 한 손에 철봉 들고/ 또 한 손에 창검 들고
활동같이 굽은 길로/ 샷대같이 달려와서 가득 문을 박차며/ 성령삼자 불러내어 신랄같
은 이내몸에/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야 끌어내니/ 사자님요 사자님요 내말 잠깐 들
어주오/ 망단개유 애결한들 들은 척도 아니하이고/ 어서 가자 바빠가자 이분 누라 거
역할꼬/ 불쌍하고 불쌍해라 이내 일식 불쌍해라/ 인간사직 할려하니 불쌍하고 불쌍해
라/ 처자에 손목잡고 남강설화 다 못하고/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을 벌려놓고/ 지
성부호 극진한데 죽은목숨 살아날까/ 문사십리 배당하야 꽃진다고 서러워마라/ 명년
삼월 돌아보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북

망산 돌아들제 어찌갈꼬 심산한노/ 황천왔는 길이로다 언제 다시 돌아올꼬/ 연 늙은이
말 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느니/ 어느년에 당하여서 대문앞이 저승이라/ 친구벗이 많다
한들 어느누가 동행할꼬/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 누가 대신할꼬/ 피는 꽃도 떨어지면
오던 나비 아니 올고/ 남기라도 꼬목대면 눈먼새도 아니 오네/ 좋은 옷도 떨어지면 물
결레로 돌아가고/ 좋은 음식 쉬어지면 수채구령 찾아가네/ 하물며 우리네 인생 죽어지
면 구만산천 찾아가네/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산항에 하직하고/ 대문 밖은 성났으니 적
삼메어 손에들고/ 혼백 불러 초혼하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일직사자 월직사자 등을
밀고 등을 밀어/ 사자님요 사자님요 내말 잠깐 들어주오/ 시작한데 밥을 먹고 쉬어가
자 애걸한들/ 들은 척도 아니하이고 어서가자 바빠가자/ 뉘 분부라 거역하오 뉘 명이
라 지체할꼬/ 저승갈 때 천방지축 몰아갈제/ 잘 있으소 잘 있으소 마을민 여러분 잘
있으소/ 살아 생전 성심공덕 많이 하소/ 인간세상 다 살아도 잠시 잠깐 왔다가요/ 선
심공덕 많이 쌓아 저승가서 잘사시오/ 아기자기 싸우지말고 행복하게 잘사시오/ 이내
일신 가지만은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주오/ 친척간에 화목하고, 동기간에 우애하소/ 간
다간다 나는 간다 구만산천 날아간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 3장 고성의 언어

I 서 언

고성지역어의 형성을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본다. 옛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북쪽의 부여계(夫餘系) 언어와 남쪽의 한계(韓系) 언어의 2대 어군(語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이 있었다. 그 뒤 한(韓)은 백제, 가야, 신라로 이어지는데, 가야는 변한 땅에 세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가 6세기 신라가 가야 제국을 합병하고, 7세기 후반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여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니, 언어는 한어계(韓語系)인 신라어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북방 부여계 언어를 이은 고구려어는 일부 세력만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다.

10세기 초 고려가 신라를 멸망시키고 개성에서 건국하니 정치적, 문화적 중심이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언어에도 큰 영향을 미쳐 반도 중부에 위치한 개성이 방사(放射)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고려가 개성에 도읍을 정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신라어가 뿌리를 내린지 오래 되었으므로 고려시대의 언어 역시 신라어가 근간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경남방언은 통상 지금의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방언을 가리킨다. 경남은 삼한시대에 동북쪽은 진한이었고, 서남지역은 변한의 땅이었다. 그 뒤 변한 땅에 가야가 섰다. 가야는 한때 서쪽으로는 섬진강, 북서로는 지리산[智異山], 북쪽으로는 가야산, 동쪽으로는 낙동강, 남쪽으로는 남해안까지 영토를 넓혔다. 이 가야는 원래 낙동강 하류에서 일어난 부족국가로서 중국 한 대(漢代)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과도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모양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가야의 옛 땅에서 쓰이던 변한어와 신라의 옛 땅에서 쓰이던 진한어(辰韓語)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 가야어의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이기문(1972)에 의하면 “가야 지역의 지명을 검토해 보면 다른 한(韓)지역에서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되는 요소가 더러 나타난다. 이것은 가야어 또는 그 이전의 변한어가 북방 부여계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 준다” 고 하였고, 김영진(1982)은 이를 뒷받침하고, 경남지역의 지명과 몇 개의 어휘를 통해서 고구려어와 비교하면서 가야어를 재구해 보려는 노력을 보였다.

경남 방언은 /ㄱ/와 /ㄲ/, /ㄴ/와 /ㄷ/, /ㄴ/과 /ㄷ/ 등의 변별력 유무로 서남부와 동북부로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북에 접한 동북쪽의 울주, 양산, 밀양, 창녕, 합천, 거창의 전 지역과 의령, 함안, 창원, 김해를 포함하는 동북경남방언과 전라도에 접한 서부와 남해안에 접한 남부의 함양, 산청, 하동, 사천, 진양, 남해, 고성, 통영, 거제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 서남경남방언으로 나뉜다. 이는 논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고성지역어가 서남 경남방언에 속한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고성은 경남의 남부 해안의 조그마한 반도를 끼고 있으며, 북동쪽은 창원시, 서쪽은 사천시, 남쪽은 통영시, 북쪽은 진주시에 접경하며, 남동쪽과 남서쪽은 한려수도에 접한다.

본고에서 고성지역어라 함은 현재 행정 구역상의 고성군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어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고래로부터 외지인의 유입이 적은 곳이라서 방언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다른 지역어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으로 이해된다.

경남서남방언권에 속하는 고성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정연찬(1968)에서 최소대립쌍을 바탕으로 하여 모음체계가 세워졌으며, 성조체계 수립의 큰 업적을 남겼고(1974), 이병선(1967, 1971)에 의하여 비모음화 현상과 모음조화에 대한 탐구가 있었다. 그 뒤 잠시 특별한 업적이 보이지 아니하다가 박창원(1983), 최중호(1983, 1984, 1998) 등에서 음운연구에 활기를 띠었다.

우리는 고성지역어의 음운, 형태, 통사를 기술하면서도 음운현상을 음운체계에 완전히 관련시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늘 음운체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려고 노력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고성지역어의 자료는 필자가 이 지역어의 화자이기 때문에 직접 취하여 여러 제보자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여 결코 자기암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고성지역어는 그 동안 비교적 다른 지역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옛 모습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에 의해,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 본래의 모습은 사라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II 음운 체계

1. 음소 체계(音素 體系)

1) 모음 체계

경상도방언의 공시적 모음체계를 기술한 지금까지의 업적들을 보면 하위 지역어에 따라 6모음체계 내지 8모음체계로 되어 있다. 고성지역어에 대해서도 8모음체계로 보는 견해가 있고, 6모음체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6모음체계로 설정함에 있어서도 /ㄱ(e)/와 /ㄱ(ε)/가 중화되어 /E/로 실현되고, /ㅡ(i)/와 /ㅡ(ə)/가 중화되어 /ɜ/로 실현된다는 견해와, /ㄱ/와 /ㄱ/는 /ㄱ/로 합류되고, /ㅡ/와 /ㅡ/는 /ㅡ/로 합류되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중부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에서의 전설원순모음 /니(∅)/와 /기(y)/를 설정하지 않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고성지역어의 단모음을 /l, ㄱ, ㅅ, ㅡ, ㅊ, ㅌ, ㅍ, ㅍ, /의 8개로 보면, 이 가운데서 /l, ㅌ, ㅍ, ㅍ/에 대해선 모두 독립된 음소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하고, 이견(異見)을 보이는 /ㄱ/와 /ㄱ/, /ㅡ/와 /ㅡ/에 대해서 이들이 음소로서의 대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최소대립쌍(minimal pair)과 중부방언과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ㄱ/ : /ㄱ/

게 (蟹) : 개 (犬)	께 (謀) : 깨 (荏)
테 (升) : 대 (竹)	떼 (群) : 때 (垢)
세 (三) : 새 (鳥)	메다(負) : 매다(結)
제 (罪) : 재(灰)	세다(強) : 새다(黎明)

(2) 고성지역어의 /ㄱ/에 대응되는 중부방언의 모음

a. /ㄱ/ : /ㄱ/

게 (蟹) : 게	체 (篩) : 체
떼 (槌) : 떼	떼 (群) : 떼

b. /ㄱ/ : /니/

께 (謀) : 피	썩 (鐵) : 쇠
제 (罪) : 죄	테 (升) : 되
텐장(된장) : 된장	

c. /꺀/ : /꺁/

꺀 (櫃) : 꺁 꺀방 (毀謗) : 꺁방 꺀 (何, 웬) : 꺁

d. /꺀/ : /꺂/

꺀롭다 (難) : 꺂롭다 꺀리다 (加鹽) : 꺂리다

꺀리다(幼) : 꺂리다 꺀리다 (棄) : 꺂리다

꺀 (櫃) : 꺁 꺀방 (毀謗) : 꺁방 꺀 (何, 웬) : 꺁

(3) 고성지역어의 /ㅈ/에 대응되는 중부방언의 모음

a. /ㅈ/ : /ㅉ/

꺀 (犬) : 꺁 꺀 (鞭) : 꺁

꺀 (川) : 꺁 꺀 (梨) : 꺁

꺀 (竹) : 꺁 꺀 (鳥) : 꺁

꺀 (垢) : 꺁 꺀 (日) : 꺁

b. /ㅈ/ : /꺀/

꺀 (布) : 꺁 꺀물 (蕎) : 꺁밀

c. /ㅈ/ : /꺂/

꺀눔 (倭눔) : 꺂눔 꺀이(꺀이) : 꺂이

꺀기 (꺀기) : 꺂기 꺀수(꺀과리) : 꺂과리

(4) 고성지역어에서의 /ㅡ/ : /ㅍ/

꺀 (書) : 꺁(웃놀이) 꺀다 (增) : 꺁다 (꺁다)

꺀 (機) : 꺁 (毛) 꺀다 (舉) : 꺁다 (減)

꺀다(꺀다) : 꺁다(振衣)

(5) 고성지역어의 /ㅡ/에 대응되는 중부방언의 모음

/ㅡ/ : /ㅡ/

꺀(書) : 꺁 꺀다(舉) : 꺁다

꺀(鑿) : 꺁 꺀다(大) : 꺁다

꺀다(增) : 꺁다

(6) 고성지역어의 /ㅍ/에대응되는 중부방언의 모음

a. /ㄱ/ : /ㄲ/

거름 (肥料) : 거름	머리 (髮) : 머리
서리 (霜) : 서리	절 (寺) : 절
버들나무(柳) : 버드나무	허리(腰) : 허리
얼굴 (顔) : 얼굴	벌 (蜂) : 벌
걸다 (掛) : 걸다	절다 (蹇) : 절다
널다(널다) : 널다	벗다 (脫) : 벗다
덜다 (減) : 덜다	덮다 (覆) : 덮다
멀다 (遠) : 멀다	던지다(投) : 던지다
얼다 (凍) : 얼다	떨다 (慄) : 떨다

b. /ㄴ/ : /ㄷ/

걸리(權利) : 권리	흰하다(흰하다) : 흰하다	경구(眷口) : 권구
-------------	----------------	-------------

(7) 중부방언 /ㄴ/에 대응되는 고성지역어

/ㄴ/ : /ㄷ/ 또는 /ㄱ/

외 (瓜) : 에, 웨	외톨이 (孤) : 에토리, 웨토리
왼손(左手) : 엔손, 웬손	외가 (外家) : 에가, 웨가
외우다(暗誦) : 에우다, 웨우다	외롭다(孤獨) : 에롭다, 웨롭다

(8) 중부방언 /ㄱ/에 대응되는 고성지역어

/ㄱ/ : /ㄴ/

쥐 (鼠) : 지	귀 (耳) : 기
쉰 (五十) : 신	쉬다 (休) : 시디
쥐다 (把持) : 지다	귀하다 (貴) : 기하다
귀신 (鬼神) : 기신	취하다 (醉) : 치하다

(1)-(3)에서와 같이 /ㄷ/와 /ㄱ/는 서로 동일한 음성 환경에 출현하여 의미 분화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을 이루고 있으며 중부방언과의 음운대응에서도 고성지역어의 /ㄷ/와 /ㄱ/는 중부방언의 /ㄷ/와 /ㄱ/에 대응되므로 /ㄷ/와 /ㄱ/는 변별력을 가진 독립된 음소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중부방언의 /ㄴ/와 /ㄱ/는 (2.b.c)와 같이 이 지역에서는 전설모음에 원순계열의 모음이 존재하지 않고, 어두(語頭)에서 특히, 어두자음 다음에 결합되는 이중모

음이 실현되지 않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하여 /꺄/로 실현되고 있다.(2.d)는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라우트에 의하여 /꺄/로 실현된 예들이다.

또한 (4)-(6)과 같이 /ㅡ/와 /ㄱ/도 제1음절 위치에서는 최소대립쌍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부방언과도 대응되어서 /ㅡ/와 /ㄱ/는 독립된 음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박창원(1983)에서는 고성지역어의 공시적인 /ㄱ/는 /ㅡ/에 합류하여서 /ㄱ/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6.a)와 같은 어휘형태소들을 제1음절 위치에서 /ㅡ/로 발음하는 고성지역인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ㅡ/와 /ㄱ/가 중화되어 /꺄/로 실현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적극적인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음운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기원적인 /ㅡ/는 /꺄/로 나타내어 오히려 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고성지역어의 모음에 /꺄/와 /꺈/, /ㅡ/와 /ㄱ/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지역어의 모음은 후설평순모음(後舌平唇母音)에 /ㅡ/, /ㄱ/, /ㅏ/가 있으며, 이에 대립되는 전설모음에 /ㅣ/, /꺄/, /꺈/가 각각 존재한다. /ㅡ/, /ㄱ/, /ㅏ/는 음라우트 현상에 의하여 각각 개구도가 같은 /ㅣ/, /꺄/, /꺈/로 실현된다. 음라우트 현상이 전설모음에 의한 후설모음의 전설모음화라면, 조음위치의 전설적 이동을 가져올 따름이지 그 개구도에 있어서 까지 변화를 가져 오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후설모음에서 양성 대 음성으로 모음조화의 대립관계를 이루던 /ㄱ/와 /ㅏ/가 음라우트 현상으로 인하여 그 변별력이 상실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 언어의 체계적 조화를 위배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스러운 음운현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음라우트 현상이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음운현상으로 발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즉, 후설모음 /ㅡ/, /ㄱ/, /ㅏ/의 역행동화 현상은 그 개구도에 대응되는 전설모음 /ㅣ/, /꺄/, /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고성지역어의 공시적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은 8모음체계임이 확인 되었다.

ㅣ	ㅡ	ㅏ
꺄	ㄱ	ㅑ
꺈	ㅓ	

위의 모음체계는 이병근(1970b, 1976b)에서 밝힌 19세기 한국어의 모음체계와 같다. 방언은 중앙어보다 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언어의 일반적인 사실이라면, 고성지역어의 모음체계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2) 자음 체계

고성지역어의 공시적 자음체계는 현대국어의 자음체계와 차이가 없는 듯하다. 유음과

/ㅎ/를 포함한 이 지역어의 공시적 자음체계는 다음과 같다.

ㅂ(p)	ㄷ(t)	ㅅ(s)	ㅈ(c)	ㅋ(k)	ㅎ(h)
ㅍ(ph)	ㅌ(th)		ㅊ(ch)	ㅋ(kh)	
ㅃ(p')	ㄸ(t')	ㅆ(s')	ㅉ(c')	ㆁ(k')	
ㅁ(m)	ㄴ(n)			ㅇ(j)	
	ㄹ(l)				

/ㅅ/과 /ㅎ/을 제외한 /ㅂ, ㄷ, ㅈ, ㅋ/은 /ㅂ, ㄷ, ㅈ, ㅋ/을 무표항(無標項)으로 하고, 유기성(aspiration)과 긴장성(tensity)을 변별적 자질로 하는 소위 삼지적(三肢的) 상 관속을 이루고 있다. /ㅅ/의 유기음은 음운 체계상 빈칸을 이룬다.

유음 /ㄹ/(l)은 [+voc] [+cons]으로서 순수 자음과 구별하고, 유음으로서 독립된 자연부류를 이루기도 하고, 모음과 함께 [+voc]의 자연부류를 형성하며 순수자음과는 다른 음운 과정을 보여 준다.

/ㅎ/은 순수 자음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활음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순수 자음으로 간주한다.

3) 활음(滑音)

활음에는 전통적으로 반모음(또는 반자음)이라 불리워 온 /j/, /w/가 있다. 이는 [-voc] [-cons]의 자질을 가지고, 모음, 순수자음, 유음과 함께 주요분류자질(major class feature)로서 자연부류를 형성한다.

/ㅎ/은 생성음운론에서 활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성지역어에서는 이를 활음으로 볼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아직 발견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순수 자음과 같이 처리한다.

4) 이중모음(二重母音)

이중모음은 활음 + 모음의 상향 이중모음과 모음 + 활음의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활음과 모음은 모두 단위 음소로 파악 되므로 이들이 어떻게 결합되며, 사적으로 자음과 결합된 이중모음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고성지역어의 상향이중모음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실현되고 있을 뿐, 자음과 결합될 때는 공시적으로 거의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어에 이중모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 회의를 품게 된다.

그러나 어두에서 자음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여시(狐), 열(十이), 요강(溺綱), 유리

(琉璃)” 등 이중모음이 실현되고 있고, “에렵다(難) (<어렵다), 핵고(學校) (<학교), 절(傍) (<곁), 전디다(忍) (<견디다)” 등 /j/에 의해서 일어나는 음라우트나 구개음화 현상을 통해서 기원적으로 이중모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어에는 상향이중모음이 존재했으며,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 한다.

상향 이중모음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모든 단모음에 /j/나 /w/를 결합시킬 수 있으나, ji, jɛ 등 /j/계 이중모음과 wi, wi̯, wu, wo 등 /w/계 이중모음은 보이지 않는다.

(1) a.	ji	jɛ	ju	b.	wi	wi̯	wu
	je	je	jo		we	wə	wo
	jɛ	ja			wɛ	wa	

ji는 /j/의 전설성과 /i/의 전설성이 중복되어 실현되지 못하고, wu, wo는 /w/의 원순성과 /u, o/의 원순성이 중복되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wi는 /w/의 원순성에 동화되어 /i/가 /u/로 변하므로써 실현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승재 1980:80 참조). 그런데, ji, wi는 아무런 체계적인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음운 결합상의 우연한 빈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wi는 어두에서는 대부분 /i/로 실현되고, 어말에서는 /u/로 실현되는 것이 경상도방언과 전라도방언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고성지역어에서 이중모음이 실현되는 예를 보면 (2)와 같다.

(2)	예(je) : 예 (대답),	예수 (예수),	예순 (六十),	수염이 (수염이)
	애(jɛ) : 액이(藥이),	애비다(여위-)		
	여(jə) : 여시 (狐)	열 (十)	연 (鳶)	
	엿 (飴)	옆 (옆)	여름 (夏)	
	야(ja) : 야시 (狐)	야달 (八)	야단 (야단)	
	야물다 (야물다)	약 (藥)	양복 (洋服)	
	유(ju) : 윤디 (인두)	울 (옷)	유리 (유리)	
	유자(柚子)	우유 (牛乳)		
	요(jo) : 요강 (요강)	요 (요)	요구 (療飢)	요새 (요새)
	웨(we) : 웨 ~ 에(瓜),	웨토리 ~ 에토리(외토리),		웨가 ~ 에가(외가)
	왜(wɛ) : 왜가리 ~ 애가리(새 이름),		왜놈 ~ 애놈(倭놈),	

위(wə) : 위 (소를 세우는 소리)	위 : 리 (개 부르는 소리),
위리 (감(柿) 종류의 이름)	원시 (怨讐)
와(wa) : 와 (何, 왜) 왕 (王)	왕고무 (王姑母)

(2) 에서 본 바와 같이 /j/계는 jə, ja, jo, ju 가 약간 활발히 실현되고, /w/계 이중모음은 어두에서 wə, wa 의 몇 개 어휘가 실현될 뿐,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약간 실현될 뿐이다.

2. 운소 체계(韻素 體系)

언어의 장단, 고저, 강약 등의 운율적 자질(prosodic feature)이 음소와 같이 어의(語義)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운소(prosedeme)라 한다. 이 운소는 분절음소로 이루어지는 음절 위에 상가(上加)되어 그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상가음소(上加音素)(suprasegmental phoneme)라고도 한다. 운소의 하나인 고저가 변별적 자질로 채택될 경우를 성조(聲調)라고 흔히 부르고 있다.

성조를 가진 언어를 대개 성조언어라 하는데, 국어에서는 중세국어와 경상도방언(동남방언)이 성조언어로 알려져 있다. 고성지역어의 성조에 대해선 이미 깊이 있는 업적(정연찬 1974)이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이 지역어의 성조가 저조, 고조의 2단체계인가, 저조 중조 고조의 3단체계인가, 그리고 저조(복합저고조 포함)에 음장(音長)이 따르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리는 정연찬(1974)에서 설정한 복합저고조의 음장을 확인함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이기에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저조, 중조, 고조의 3단체계로 기술해 나가려 한다.

- (1) 고조(高調) [H] : 말(馬) 손(客) . 걷다(收)
 중조(中調) [M] : 말(斗) 손(手) 밤(夜) .
 저조(低調) [L] : 말(言) 손(孫) 밤(栗) 걷다(步)

고성지역어에서 체언이나 용언의 저조인 1음절 어간은 음장을 수반한다고 한 견해에 대해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馬이), 말이(言이)” 에서 시간의 길이는 같으며, “말이(言이)” 는 [ma:li]나 [maali]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에서 본 고, 중, 저조는 음의 고저로서만 변별될 뿐, 장단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지역에서 장음이 실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완전순행동화에 의하여 동음이 중첩될 때 장음이 실현된다.

사알(三日) (< 사을 < 사흘), 마암(心) (< 마음)
 기이서(圃) (← 기 + 어서), 마다아(庭) (← 마당 + 에)

② 보상적 장모음화(報償的 長母音化)의 경우

바아서(見) (← 보와서 ← 보 + 아서),
 주우몬(拾) (← 주으몬 ← 줏 + 으면)

③ 서술어의 성조가 [MH-]일 때 [H]는 장음으로 실현된다.

a. 피동접사는 고조로서 장음이 실현된다.

잡히:- (被捕) 낚이:- (被釣)
 들리:- (被問) 깎이:- (被削)

b. 2음절 어간의 말음절에서 자음을 선행시키는 어간 “우” 와 사동접사 “우” 도 장음이 실현된다.

가두:다 (囚) 빼추:다 (照)
 식후:다 (食히다) 몰류:다 (使乾)

본고에서 음운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고조, 비고조로 나누어 고조에만 [´] 표시를 하고, 그 밖에는 성조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한다.

Ⅲ 음운 현상

1.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

1) 전설 고모음화

전설 고모음화란 치찰음(ㄱ, ㅋ, ㆁ, ㆁ)과 유음 뒤의 후설고모음 /—(i)/가 선행 음소의 전설성에 동화되어 전설고모음 /| (i)/로 실현된 음운현상으로 일종의 순행동화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어에서 강하게 작용한 통시적 음운현상이다.

- | | |
|---------------------|------------------|
| (1) a. 썰개 (臆)(< 쓸개) | 척 (葛)(< चु) |
| 썰다(掃)(< 쓸-) | 썩다 (苦)(< 쓰-) |
| b. 장인 (證人) (< 증인) | 칭개 (層階)(< 층계) |
| (2) a. 여시(狐)(< 여스) | 가실 (秋)(< 구슬) |
| 기침 (咳)(< 기춤) | 아침 (朝)(< 아춤) |
| b. 다시리다 (政)(< 다스리-) | 따시다(濫)(< 다스-) |
| (3) a. 가리(粉)(< 구르) | 나리(津)(< 누리) |
| 노리(獐)(< 누리) | 시리(飢)(< 시름) |
| b. 하리 (一日)(< 하루) | 바리(直)(< 바름) |
| 고리(調)(< 고름) | 따리 (別)(< 쓰름) |
| c. 다리다 (異)(< 다름-) | 모리다 (不知) (< 모름-) |
| 호리다 (流)(< 흐름-) | 바리다 (正)(< 바름-) |

(1)은 어두 치찰음 아래서 /—(i)/가 /| (i)/로 실현된 예들인데 (1.b)와 같이 한자어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2)는 비어두 치찰음 아래서 /·(Λ)/가 /| (i)/로 실현된 예들이며, (3)은 비어두 유음 아래서 /·/가 /|/로 실현된 예들인데, 이 경우는 어간말음이 /·/로 끝나야 된다.

어간말음이 /—(i)/로 끝날 경우, /—(i)/는 [+voc, +cons] 자질을 가진 유음 아래서 /|/로 실현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어가 경험한 뚜렷한 통시적 음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전설 저모음화

이 지역어에서는 어말(간혹 어두) 개음절의 /ㅏ(a), ㅑ(ə)/가 (1)-(2)와 같이 /ㅓ(ε)/로 실현된 현상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전설 저모음화라 한다.

- | | |
|---------------------|--------------|
| (1) a. 가마 (轎) > 가매 | 가마 (釜) > 가매 |
| 가마 (頭旋) > 가매 | 허파 (肺) > 허패 |
| 고구마(甘薯) > 고오매 | 도마 (狙) > 도매 |
| 길마 (鞍) > 질매 | 파 (蔥) > 패 |
| b. 선가(船價) > 성개 | 장가(娶) > 장개 |
| 모과(木瓜) > 모개 | 잉아(綜) > 잉애 |
| c. 소라 (螺) > 소래 | 지라 (脾臟) > 지래 |
| d. 이사 (移徙) > 이새 | 혼자 (獨) > 혼채 |
| (2) a. 잉어 (鯉魚) > 잉애 | 농어 (鱸魚) > 농애 |
| 광어 (廣魚) > 강애 | 뱅어 (白魚) > 뱅애 |
| b. 민어 (民魚) > 민애 | 전어 (錢魚) > 전애 |

(2)는 어종(魚種)의 명칭인데 /ə/에서 직접 /ɛ/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일단 ə > e 로의 중간단계를 거쳤다가 e > ɛ 로 하강하였다고 이해된다.

이 지역어에서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화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으며, 저모음 계열에서는 개음절로 끝날 때 /ɪ(ɛ)/ 가 토박이 화자의 언어직관으로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 안정된 음소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이 지역어에서는 다음 (3)의 예와 같이 e > ɛ 로 저모음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 | | |
|-------------|--------------|
| (3) 지개 > 지개 | 가게 (店) > 가개 |
| 시계(時計) > 시개 | 기계 (기계) > 기개 |
| 베 (布) > 배 | 모래(來後日) > 모래 |

그러므로 a > ɛ의 변화는 /ɛ/의 안정성과 후설모음이 전설화하려는 강한 경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후설모음 /a/는 개구도가 비슷한 전설모음 /ɛ/로 실현된 것이라 받아들여진다.

2. 고모음화(高母音化)

1) ei > ii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 세력이 강했던 e > I 규칙이 이 지역어에서는 어떠한지 알아본다.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하여 əj 에서 변한 /e/가 e > I 규칙에 의하여 /i/로 실현된

예는 별로 발견할 수 없고, [+grave] 자음 뒤에서 jə가 모음축약에 의해서 /e/로 변하고, 이 /e/가 e > i 규칙에 의하여 /i/로 실현된 예가 다음 (1)에서 보일 정도이다.

- (1) 딩기 : 등겨 > 덩겨 > 덩계 > 덩기
 왕기 : 왕겨 > 왕겨 > 왕계 > 왕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움라우트에 의하여 /ə/에서 변한 /e/가 /i/로 실현된 현상이 약간 활발하게 나타난다.

- (2) a. 뚜끼비 : 뚜꺼비 > 뚜개비 > 뚜끼비
 건디이 : 건더기 > 건데기 > 건데이 > 건디이
 무디이 : 무더기 > 무데기 > 무데이 > 무디이

(2)와 같이 고성지역어에서 e > i 가 실현되고 있는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면, 움라우트에 의하여 /ə/에서 변한 /e/는 그 뒤에 동화주였던 /i/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어서 단순한 /e/라고 하기 보다는 ‘ei’ 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여기서 /e/가 단독으로 /i/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e/ 뒤에 따르는 고모음 /i/에 이끌리어 /i/로 실현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어에 적용되는 e > i 고모음화 규칙은 <ei > ii 규칙>이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음 항에서 논의할 <ei > ei 규칙>과 같은 성질의 음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의 e > i 규칙은 이 지역어에서 극히 미약하게 일부에만 적용되고, 오히려 <ei > ii 규칙>이 활발하게 실현되었다.

2) ei > ei

고성지역어를 포함한 일부 경상도 방언에 고모음화 현상의 하나로 <ei > ei 규칙>이 상당한 세력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가래이̃ : 가랑이 > 가랭이 > 가래이̃ > 가래이̃
 강새이̃ : 강상이 > 강생이 > 강새이̃ > 강새이̃
 호래이̃ : 호랑이 > 호랭이 > 호래이̃ > 호래이̃
 옛새이̃ : 옛장이 > 옛쟁이 > 옛새이̃ > 옛새이̃

막데이 : 막다기 > 막대기 > 막대이 > 막데이

개메이 : 개막이 > 개매기 > 개매이 > 개메이

이 지역어에서는 /ɛ/가 독자적으로 /e/로 실현되는 예는 거의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개(時計), 기개(機械), 지개(지계)” 등과 같이 개음절로 끝나는 어말 /e/가 /ɛ/로 저모음화하는 경향이 왕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설저모음화> 참조).

(3)은 제2음절 이하에서 음라우트에 의하여 /a/에서 변한 /ɛ/가, ‘ei’ 환경에 필수적으로 놓인 것들이다. 이는 aCi > ɛCi로 음라우트가 실현되었다가 개재자음의 삭제로 ‘ei’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앞의 <ei > ii 규칙>과 같이 /ɛ/가 독자적으로 /e/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뒤에 따르는 /i/에 이끌리어 /e/로 실현된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ei > ei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더기 > 무대기 > 무데이 > 무다이” 와 같이 ai에서 음라우트가 실현된 ei는 ii로 상승하여도 (3)의 예와 같이 “가랑이, 호랑이” 에서 음라우트와 ei > ei 규칙의 적용을 받은 “가래이, 호래이” 는 “가리이, 호리이” 로 상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ei > ei 규칙>으로 실현된 ei는 <ei > ii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a/, /e/, /ɛ/ 음소의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모음 조화(母音調和)

알타이어 특질의 하나인 모음조화는 15세기 국어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지켜졌으나, 16세기 /·/(Λ) 의 제1단계 변화와 함께 쇠퇴하기 시작하여 현대 국어에 있어서는 -아/어 (과거시제 -았/었 포함)로 시작되는 어미와 의성·의태어, 그리고 빛깔의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휘 형태소 “빨갳다/빨겡다, 노랗다/누렁다, 파랗다/퍼렁다, 까맣다/꺼멧다, 하얗다/허엿다” 등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고성지역어는 “구름(雲), 소금(鹽), 오줌(尿), 쫄오(紙), 쫄우(袴)” 등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중세 문헌어의 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모음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예를 더러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고성지역어에서의 파생접미사 -아기/어기, -아지/어지, -앙이/엿이 등의 결합에 대한 통시음운론적인 모음조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a. 쌀(米) + -아기 /쌀아기/ > 싸래기 > 싸래이 > 싸래이
 털(毛) + -어기 /털어기/ > 터레기 > 터레이 > 터리이
 문(堆積) + -어기 /문어기/ > 무데기 > 무데이 > 무디이
 b. 꼬리(尾) + -앙이 /꼬리앙이/ > 꼬랑이 > 꼬랭이 > 꼬래이 > 꼬래이
 뿌리(根) + -engi /뿌리engi/ > 뿌렁이 > 뿌랭이 > 뿌래이 > 뿌래이
 c. 목(頸) + -아지 /목아지/ > 모가지
 박(瓢) + -아지 /박아지/ > 박아치~바아치
 벌기(蟲) + -어지 /벌기어지/ > 벌거지
 쫄기(莖) + -어리 /쫄기어리/ > 쫄거리

(1)은 파생접미사 “-아기, -앙이, -아지” 등이 결합하는 예들인데, 이 때 어간모음이 양성이면 -a가, 음성이면 -ə가 결합하여 모음조화를 이루며, 어간이 /i/로 끝날 때에는 <i 삭제규칙>이 적용되어 그 앞 음절 모음과 모음조화를 이룬다.

(1.a.b)는 파생접미사 자체의 모음구조가 <움라우트>와 <ei > ii 규칙> 또는 <ei > ei 규칙> 등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어서 -a/ə는 표면형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앞에 말한 규칙을 적용하면 -a/ə가 모음조화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a)는 파생접미사 /-아기/가 결합한 예들인데, 이 때에는 어간말 모음에 따라 모음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1.b)는 파생접미사 /-앙이/가 결합된 예들인데, 어간이 /i/로 끝날 때에는 <i 삭제규칙>이 적용되어 그 앞 음절의 모음과 모음조화를 이루고 있다. (1.c)는 접미사 /-아지, -아리/는 피동화주인 후설모음과 동화주 /i, j/ 사이에 개재하는 자음이 [-grave] 자질이어서 자체의 구조가 움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a/ə가 표면형에 들어가 모음조화 현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고성지역어에서의 용언의 어간에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조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 (2) | -아서/어서 | -아도/어도 | -아라/어라 |
|-----------|--------|--------|--------|
| a. 막- (防) | 막아서 | 막아도 | 막아라 |
| 잡- (把) | 잡아서 | 잡아도 | 잡아라 |
| b. 맵- (辛) | 맵아서 | 맵아도 | 맵아라 |
| 맺- (結) | 맺아서 | 맺아도 | 맺아라 |
| c. 업- (負) | 업어서 | 업어도 | 업어라 |

견- (收)	견어서	견어도	견어라
d. 녹- (溶)	녹아서	녹아도	——
좁- (狹)	좁아서	좁아도	——
e. 굽- (曲)	굽어서	굽어도	——
묻- (埋)	묻어서	묻어도	묻어라
f. 늦- (晚)	늦어서	늦어도	——
들- (擧)	들어서	들어도	들어라
g. 익- (熟)	익어서	익어도	——
잡- (補)	잡어서	잡어도	잡어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자음을 가진 1음절 어간은 모음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 즉, 어간모음 /ㅏ, ㅓ, ㅗ/에는 어미 /-아/가 결합되고, /ㅓ, ㅗ, ㅗ, ㅣ/에는 어미 /-어/가 결합됨을 볼 수 있다. (2g)의 중립모음 /ㅣ(i)/는 대체로 음성모음 어미 /-어/를 취하고 있다.

(3) a. 가- (去)	가서	(가 + -아서 > 가서)
사- (買)	사서	(사 + -아서 > 사서)
b. 서- (立)	서서	(서 + -어서 > 서서)
c. 매- (結)	매에서	(매 + -아서 > 매에서)
깨- (破)	깨에서	(깨 + -아서 > 깨에서)
d. 메- (負)	메에서	(메 + -어서 > 메에서)
e. 보- (見)	바아서	(보 + -아서 > 봐서 > 바아서)
f. 오- (來)	와서	(오 + -아서 > 와서)
g. 주- (與)	조오서	(주 + -어서 > 줘서 > 조오서)
누- (尿)	노오서	(누 + -어서 > 뉘서 > 노오서)

(3)은 말자음이 없는 1음절 어간의 경우인데, 대부분 어미 -a/ə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3.ab)는 동음삭제가 실현된 경우이고, (3.cd)는 어미모음이 어간모음에 완전 순행동화된 것이며, (3e)는 <활음형성>-<활음삭제>-<보상적 장모음화>의 음운과정을 거친 것이고, (3.f)는 활음이 형성된 경우이다. (3.g)는 활음형성에 의하여 ‘u + ə’는 wə가 되고, wə의 동시적 실현으로 /o/가 된다고 본다. (3.c)는 어미모음이 -a인지 -ə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2.b)의 경우를 유추해서 -a로 보면, 말자음이 없는 1음절 어간에서도 대체로

모음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4)	기저형	표면형
a. 까깁- (鬱)	까깁 + -아서 >	까깁아서 ~ 까깁애에서
게롭- (苦)	게롭 + -아서 >	게롭아서 ~ 게롭애에서
무섭- (恐)	무섭 + -아서 >	무섭아서, 무섭어서 ~ 무섭애에서
어둡- (暗)	어둡 + -아서 >	어둡아서, 어둡어서 ~ 어둡애에서
b. 드물- (稀)	드물 + -아서 >	드물아서, 드물어서
가물- (旱)	가물 + -아서 >	가물아서, 가물어서
c. 모우- (集)	모우 + -아서 >	모와서 > 모아서
치우- (棄)	치우 + -아서 >	치와서 > 치아서
d. 다르- (異)	다르 + -아서 >	달라서
모르- (不知)	모르 + -아서 >	몰라서
부르- (飽)	부르 + -어서 >	블러서
무르- (軟)	무르 + -어서 >	물러서

(4)는 용언의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이다.

(4.a)는 어간 말자음이 /ㅂ(p)/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어간 말자음에 관계 없이 대체로 ‘-아’ 어미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어미 ‘-아서’가 연결되는 경우 ‘-애에서’라는 이형태(異形態)가 공시적으로 존재한다. 이 지역어에는 ‘까깁다(鬱)’, ‘까깁하다’의 두 형태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까깁다’는 ‘까깁아서’로 활용하고, ‘까깁하다’는 ‘까깁애에서’로 활용한다. 이와 같이 (4.a)는 과거 어느 시기에 기저형으로 ‘-하다’가 결합된 이형태가 공존하는 일이 있어서 ‘-애에서’라는 이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4.b)는 어간의 말음절이 ‘-물-’로 된 형태소인데, 이는 어미 ‘-아/어’를 수의적으로 취하나 ‘-아’가 약간 우세한 듯하다.

(4.c)는 2음절 어간으로 어간 말음절 모음이 ‘ㄷ(u)’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용언은 이 지역어에서 많이 발견된다. 모음조화 규칙이 음절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면, ‘ㄷ’ 다음에는 어미 ‘-어’가 결합되든지, 또는 활음형성이 된다면 선행음절 모음의 성질에 따라 ‘-아’ 또는 ‘-어’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상도 방언에선 ‘-아’가 결합된다.

(4.a.b.c)를 보면 어간이 2음절 이상일 때는 거의 모음조화가 파괴되면서 ‘-아’ 로 통일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어에선 양성모음이 우세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d)는 소위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어사들로서, 이에는 <‘으(i)’ 삭제규칙>이 먼저 적용되어서 표층형태가 1음절 어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모음조화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모음조화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말자음을 가진 1음절 어간에서는 어미 ‘-아/어’ 가 모음조화를 충실하게 지키지만, 어간이 2음절 이상으로 확대되면 모음조화는 파괴되고 양성모음의 우세로 인하여 ‘-아’ 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4. 완전 순행동화(完全順行同化)

활음형성이나 모음삭제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모음과 모음이 인접할 때, 뒤의 모음이 앞의 모음과 같아지는 것을 완전순행동화라 이른다.

한국어의 모음 결합에서 일어나는 동화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모음조화 현상과 음라우트 현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많은 업적들이 나타났지만, 경상도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완전순행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병선(1967, 1971), 백두현(1982), 최중호(1984) 등에서 약간 관심을 보여 기술한 바 있을 정도다.

고성지역어에서는 이 완전순행동화 현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 한다.

모음 결합에서 일어나는 완전순행동화 현상은 어휘형태소 내부의 경우와 형태소 경계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해 보겠는데, 먼저 통시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완전순행동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 | | | |
|--------|-------------------|-------------------|
| (1) a. | 싸흙 (爭) > 싸암 | 아희 (兒) > 아아 |
| | 사흘 (三日) > 사알 | 나흘 (四日) > 나알 |
| | 열흘 (十日) > 여얼 | 종히 (紙) > 쯤오 |
| b. | 장어 (長魚) > 쯤아 ~ 짱애 | 농어 (鱸魚) > 뇨오 ~ 농애 |
| | 중의 (中衣) > 쯤우 | 동이 (盆) > 도오 |
| | 오늘 (今日) > 오올 | |

d.	소곰 (鹽) > 소곰	오줌 (尿) > 오줌
	구름 (雲) > 구름	머섬 (雇人) > 머섬
e.	요령 (搖鈴) > 요령	졸업 (卒業) > 조름
	수건 (手巾) > 수군	

(1.a)는 중세 또는 근세 문헌어의 형태소 내부에 /ㅎ(h)/ 음이 개재하는 어사인데, 이 지역어에선 완전순행동화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 경우에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모음 사이의 /h/ 음이 삭제된 뒤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열흘 > 여얼’ 로 되는 것은 열흘(jəlhil) > 열을(jəlil) > 여를(jəril) > 여을(jəil) > 여얼(jəəl) 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1.b)는 /o(ɸ)/이 삭제되면서 비모음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되었다고 본다. 비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짱애, 농애’ 로 각각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고유어에서는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모음 사이에 자음이 개재하면 완전순행동화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1.c)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모음 사이의 /ㄴ(n)/이 삭제되면서 비모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동시에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되었다고 파악된다.

(1.d)는 문헌어에서 동모음(同母音) 중출(重出)의 어사로 되어 있는 것인데, 중부방언과는 달리 이 지역어에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e)는 한자어인데도 완전순행동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보면 이 지역어의 완전순행동화는 왕성하게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고성지역어의 공시적 음운현상인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완전순행동화 현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 한다.

이에는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 어미 모음 -a/ə 가 어간 모음에 완전동화하는 경우와 체언의 곡용에 있어서 조사 -ε 가 체언의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하는 경우가 있다. 용언 활용의 경우에는 어간 모음이 /i/로 끝날 때, 어미 모음 /ə/가 /i/에 완전순행동화되어 /i/로 실현되는 경우와 어간모음 /ε, e/ 뒤의 어미 -a/ə 가 /ε, e/로 각각 실현되는 경우, 어간모음 /u/ 뒤에 어미 -ə 가 /u/로 실현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어간말 자음삭제가 함께 일어난다. 어미모음 -i 는 모음과 유음 뒤에서 삭제되므로 완전순행동화는 실현되지 않는다.

1) 어간모음이 i 로 끝나는 경우

		-고	-아서	-아도
(1) a.	시- (酸)	시고	시이서	시이도
	띠- (躍)	띠고	띠이서	띠이도
	피- (發)	피고	피이서	피이도
	기- (匄)	기고	기이서	기이도
	히- (白)	히고	히이서	히이도
b.	시- (休)	시고	시이서	시이도
	비- (空)	비고	비이서	비이도
	지- (把)	지고	지이서	지이도
c.	지- (負,敗)	지고	저서	저도
	치- (打,養)	치고	쳐서	쳐도
	찌- (蒸,肥,挾)	찌고	찌서	찌도

여기에는 어간말 모음이 기원적으로 /i/였던 어사와 역사적으로 중세어와 대비할 때 ij, Δj , uj 등에 대응되는 /i/가 있으나,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함께 다룬다.

(1.a.b)는 어간말 모음 i + 어미 ㅅ는 모두 ii(i:)로 실현된다. (1.a)는 어간 /i/가 고조 또는 중조인데 어미 ㅅ가 결합되어도 성조의 변동은 없고, (1.b)는 어간 /i/가 저조인 경우인데, 여기에 어미 ㅅ가 결합되면 고조로 성조변동을 일으키면서 ii(i:)로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된다. 이와 같이 고성지역어에서는 1음절 어간 용언으로 어간의 성조가 저조인 경우 어미 -ㅅ와 결합하면 고조로 성조변동을 일으키는 규칙이 있다.

(1.c)와 같은 과찰음 아래서의 어간말 모음 /i/는 어미 ㅅ와 결합할 때 완전순행동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활음형성>-<활음삭제>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성조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1.b)의 “지-” (把)와 (1.c)의 “지-” (負)를 비교해 보면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지-” (把)는 저조이며 <활음형성>이 되는 “지-” (負)는 고조임이 드러난다.

		-고	-아서	-아도	-아라
(2)	지- (把)	지고	지이서	지이도	지이라
	지- (負)	치고	저서	저도	저라

성조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예를 (3)에서 또 살펴 본다.

(3)	이- (蓋)	이고	이이서	이이도	이이라
	이- (戴)	이 ^ˊ 고	여서	여도	여라

저조인 “이-” (蓋)와 고조인 “이-” (戴)는 (3)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저조는 어미 -ㄹ 와 결합되면 고조로 성조변동을 일으키면서 완전순행동화를 실현시키고, 고조는 어미 -ㄹ 와 결합하면 중조로 성조변동을 일으키면서 <활음형성>이 실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활음형성은 1음절 어간으로 자음과 결합되지 않는 /i/와 파찰음 아래에 있는 /i/ 어간으로서, 고조 또는 중조의 성조를 가질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어간말 모음이 /i/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의 경우를 살펴본다.

		-고	-아서	-아도	-아라
(4) a.	찌지- (灼)	찌지고	찌지서	찌지도	찌지라
	다치- (傷)	다치고	다치서	다치도	다치라
	던지- (投)	던지고	던지서	던지도	던지라
	몬치- (撫)	몬치다	몬치서	몬치도	몬치라
	부치- (附)	부치고	부치서	부치도	부치라
b.	빠지- (陷)	빠지고	빠져서 ~ 빠지서		
	터지- (爆)	터지고	터져서 ~ 터지서		
c.	이기- (勝)	이기고	이기서	이기도	이기라
	땡기- (引)	땡기고	땡기서	땡기도	땡기라
	비비- (鑽)	비비고	비비서	비비도	비비라
	때리- (打)	때리고	때리서	때리도	때리라
	대리- (熨)	대리다	대리서	대리도	대리라
	돌리- (使回)	돌리고	돌리서	돌리도	돌리라
d.	잡히:- (被捕)	잡히:고	잡히:서	잡히:도	——
	간치:- (被獄)	간치:고	간치:서	간치:도	——
	물리:- (被咬)	물리:고	물리:서	물리:도	——
	보시:- (眩)	보시:고	보시:서	보시:도	——

(4.a)는 파찰음이 /i/에 선행하지만 어간말 모음 i + 어미 -ㄹ는 어간말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어 항상 /i/로만 실현되어 활음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4.c)는 /i/에 파찰음 이외의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로 어미 -ㄹ는 어간말 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한 것이라 본다. 우리는 이를 /i/로 끝나는 제2음절 어간에서 파찰음이 /i/에 선행하더라도 활음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미 -ㄹ가 어간말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장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성조가 관련되었다고 본다. 이 지역어에서 2음절 어간에 장음이 발생하는 환경은 MH- 성조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4.a.c)는 HM- 성조로 장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음삭제> 규칙이 적용되어 /i/로만 실현된 것으로 파악한다.

(4.b)는 <활음형성> → <활음삭제>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완전순행동화>를 하기도 한다. 전자가 훨씬 우세한데, 이는 동시에 전단계에는 <활음형성> → <활음삭제>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4.d)는 피동형 어사인데, 피동접사는 본디부터 장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의 성조도 MH-로 장음발생의 환경이다. 이 경우에도 어미 -ㄹ는 어간말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고, 장음 발생의 환경으로 계속 장음을 유지하고 있다.

2) 어간말 모음이 ε, e로 끝나는 경우

이 지역어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완전순행동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고	-아서	-아도	-아라
1) a. 깨- (破)	깨고	깨에서	깨애도	깨애라
매- (結)	매고	매에서	매애도	매애라
달개- (說)	달개고	달개에서	달개애도	달개애라
포개- (重)	포개고	포개에서	포개애도	포개애라
b. 세- (強)	세고	세에서	세애도	————
폐- (伸)	폐고	폐에서	폐애도	폐애라

(1)은 어간 모음이 /ε, e/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 때엔 음절수에 관계없이 어미 -a/ə가 결합되면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서 각각 /ε, e/로 실현된다. 이는 완전순행동화로 보지 않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을 것이다.

3) 어간말 자음이 삭제되는 경우

	-고	-아서	-아도	-아라
(1) a. 짓- (作)	짓고	지 [˙] 이서	지 [˙] 이도	지 [˙] 이라
b. 줏- (拾)	줏고	추 [˙] 우서	추 [˙] 우도	추 [˙] 우라
c. 붓- (腫)	붓고	부 [˙] 우서	부 [˙] 우도	—
d. 꺾- (引)	꺾고	끄 [˙] 으서	끄 [˙] 으도	끄 [˙] 으라
e. 붓- (注)	붓고	부 [˙] 우서	부 [˙] 우도	부 [˙] 우라
f. 찌- (搗)	찌고	찌 [˙] 이서	찌 [˙] 이도	찌 [˙] 이라
g. 묵- (食)	묵고	무 [˙] 우서	무 [˙] 우도	무 [˙] 우라

(1.a~e)은 기저형의 어간 말음이 /Δ(z)/라고 본다. 이와 같이 어간 말음으로 /z/를 가지는 용언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z/이 삭제되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z/는 /s(s)/로 변하는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어간말 자음 /z/ 뒤에 어미 -a가 모음조화 규칙에 의하여 -a 또는 -ə 로의 교체를 먼저 보이고,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a/ə와 i(ㅡ) 앞에서 /z/ 이 삭제되고 어미 -a/ə와 -i는 어간말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어 표면형으로 나타난다.

(1.a~c)는 기저형에서 어간의 성조가 저조인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고조로 변한다.

(1.c)는 이 지역어에서 기저형으로 /puz-/ , /pus-/ 쌍형이 존재하여 [부웃다(puutta)], [부섯다(pusatta)]로 실현되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모음조화 규칙이 적용되었다는 것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간의 성조가 저조인 경우, 고조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f)는 다른 방언에서는 기저형이 대체로 “짚-” (搗)이지만 이 지역어에는 “찌는다”, “찌으로” (또는 “찌이로”) 등으로 실현되어 기저형을 “찌-” 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1.f.g) “찌-”, “묵-” 에서 어간말 자음 /ɣ/은 /k/가 아닌 /ɣ/로 보고, 앞의 /z/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ɣ/는 삭제되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ɣ/가 /k/로 변하는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고 해석한다.

이리하여 (1.f.g)는 어간말 자음 뒤에 어미 -a가 결합되면 <모음조화> 규칙에 의하여 -a/ə 로의 교체를 먼저 보이고 다음에 어미 -a/ə와 -i 앞에서 /ɣ/는 삭제되고,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4) 체언이 곡용하는 경우

다음은 체언이 곡용할 때 일어나는 완전순행동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경우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와 /o(ɸ)/, /ɯ(y)/으로 끝나는 명사에 -ɪ(ε) 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될 때, 조사 -ɪ(ε)는 체언말 음절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어 표면에 나타난다. 고성지역어에서 처소격조사는 -ɪ(ε)로 실현되는데, 이는 양성(陽性) 우세를 보이는 이 지역어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기저형	표면형
(1) a. 질가(路邊)	/질가 + 애서/	→ [질가아서]
바다(海)	/바다 + 애서/	→ [바다아서]
나무(木)	/나무 + 애서/	→ [나무우서]
정기(廚)	/정기 + 애/	→ [정기이]
디 (後)	/디 + 애서/	→ [디이서]
b. 마당(庭)	/마당 + 애서/	→ [마다 [~] 아서]
청(廳)	/청 + 애서/	→ [쳐 [~] 어서]
농(籠)	/농 + 애서/	→ [노 [~] 오서]
지붕	/지붕 + 애서/	→ [지 [~] 부 [~] 우서]
산중(山中)	/산중 + 애서/	→ [산 [~] 주 [~] 우서]
c. 압닥(山)	/압닥 + 애서/	→ [압다아서]
언덕(阜)	/언덕 + 애서/	→ [언더어서]
저녁(夜)	/저녁 + 애/	→ [저 [~] 녀어]
그릇(器)	/그릇 + 애/	→ [그르 [~] 으]

(1.a)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에 처소격 조사 -애(ε), -애서(εsə)가 결합되는 경우인데, 이 때 바로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적용되고, (1.b)는 /o(ɸ)/ 으로 끝나는 명사에 조사 -애(서)가 결합되는 경우인데, 이 때는 /o/이 삭제되면서 동시에 <비모음화>가 일어나고 다음에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된다. (1.c)는 /ɯ(y)/으로 끝나는 명사에 처소격 조사 -애(서)가 결합되는 경우인데, 이 때는 모음 사이에서 /ɯ(y)/이 삭제되고 나서 <완전순행동화>되어 표면형으로 실현된 것이라 파악된다.

5. 비모음화(鼻母音化)

<비모음화>란 비자음 /ㄴ(n)/, /ㅇ(ŋ)/에 의해서 인접 모음이 [+nasal]의 자질에 동화되어 비음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성지역어에서 비모음화를 일으키는 비자음으로 /ㄴ/과 /ㅇ/ 이 있다. 이들은 인접 모음을 비음화시켜 자신의 흔적을 남긴 후 삭제된다.

먼저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비모음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 본다.

- | | | |
|--------|-----------------|-----------------|
| (1) a. | 동이(盆) > 도오 | 방아(搗精機) > 바아 |
| | 종이(紙) > 조오 | 중의(袴衣) > 주우 |
| b. | 짱어(長魚) > 짜아 | 농어(鱸魚) > 노오 |
| c. | 호맹이 > 호매이 | 강쟁이 > 강새이 |
| | 호랭이 > 호래이 | 꼬랭이 > 꼬래이 |
| d. | 잉어(綜) > 잉애 | 광어(廣魚) > 강애 |
| | 농어(鱸魚) > 농애(노오) | 짱어(長魚) > 짱애(짜아) |

위에서 (1a)는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과 /i/ 사이와 동모음 사이에 /ŋ/ 이 개재할 때, <ŋ 삭제><비모음화><완전순행동화>가 동시에 실현된 경우이고, (1.b)는 모음과 /ə/ 사이에 /ŋ/ 이 개재할 때, <ŋ 삭제><비모음화><완전순행동화>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이며, (1.c)는 모음과 /i/ 사이에 /ŋ/이 개재할 때 <비모음화>를 일으킨 경우다.

그런데 (1.d)는 비록 모음과 모음 사이에 /ŋ/ 이 개재한 경우라도 <비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예다. (1.b)와 (1.c)와 같이 “짜아/짱애”, “노오/농애” 등의 두 가지 표면형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개재한 /ŋ/ 은, /ŋ/ 이 삭제되면서 비모음화할 때엔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되고, 비모음화하지 않을 때엔 완전순행동화하지 못하고 전설저모음화가 실현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 | | |
|--------|---------------|-----------------|
| (2) a. | 늙은이 > 늑그이(老人) | 뻘히 > 뻘이 > 뻘이 |
| | 가마니 > 가마이(叭) | 많이 > 만이 > 마이(多) |
| b. | 하늘 > 하알 | 마늘 > 마알 |
| | 오늘 > 오울 | |
| c. | 민어 > 미내(民魚) | 문어 > 무내(文魚) |

위에서 (2.a.b)는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n/의 비모음화 예다. (2.a)는 모음과 /i/사

이에 /n/이 개재할 때 <비모음화>를 일으킨 경우고, (2.b)는 모음과 -il(을) 사이에 /n/이 개재할 때 <비모음화>가 일어난 예다. (2.c)는 비록 모음과 모음사이에 /n/이 개재해도 비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예다. 그러므로 형태소 내부에서 /n/의 비모음화는 모음과 /i/ 사이, 모음과 '-il' (을) 사이에 /n/이 개재할 때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구상명사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파생접미사 -양이(afji), -아니(ani)가 결합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 꼬리(尾) /꼬리 + 양이 > 꼬랑이 > 꼬랭이 > 꼬래이 > 꼬래이
 나시(薺) /나시 + 아니 > 나사니 > 나사이

(3)과 같은 접미사 -afji와 -ani가 결합된 어휘 형태소를 보면 기저에 /ɕ/이 개재된 -afji는 음라우트가 실현되지만, 기저에 /n/이 개재된 -ani는 비모음화가 실현되었어도 음라우트를 실현시키지 못한다. -afji와 -ani가 똑 같이 <비모음화>가 실현되었어도 결과는 달리 나타난다. ‘나사이’는 결코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 지역어의 형태소 경계에서 공식적으로 실현되는 비모음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 | | |
|-----------------------|--------------------|
| (1) a. 산(山) + 이 → 사이 | 손(客) + 이 → 소이 |
| 손(手) + 이 → 소이 | 논(畚) + 이 → 노이 |
| b. 산(山) + 을 → 사알 ~ 산을 | 손(手) + 을 → 소을 ~ 손을 |
| c. 산(山) + 애 → 산애 | 손(手) + 애 → 손애 |

(1.a.b)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ㄴ/의 비모음화 현상의 예들이다. (1.a)는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과 주격조사 - | (이) (서술격 조사 -i- 포함) 사이에 /n/이 개재할 때, <n 삭제><비모음화>가 실현된 것인데, 이 경우 비모음화는 활발히 실현된다. (1.b)는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과 목적격조사 -il(-을) 사이에 /n/이 개재할 때, <n 삭제><비모음화><완전순행동화>가 동시에 실현된 것인데, 이 경우는 수의적이다. 대체로 60대 이상의 화자는 비모음화가 실현되는데, 60대 이하의 화자는 “산을, 손을”로 실현한다. (1.c)로 모음과

-i(이), -il(을) 외의 다른 조사 사이에 /n/이 개재할 때, 비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형태소 경계에서 /n/의 비모음화는 모음과 주격조사 사이에 /n/이 개재할 때 비교적 활발히 실현되고, 모음과 목적격조사 -il 사이에 /n/이 개재할 때는 수의적이나 실현되지 않은 쪽이 우세한 듯하다.

- | | |
|-----------------------|---------------------|
| (2) a. 방(房) + 이 → 배이 | 병(病) + 이 → 배이 |
| 장(市場) + 이 → 재이 | 땅(地) + 이 → 때이 |
| b. 방(房) + 애 → 바아 ~ 방애 | 장(市場) + 애 → 자아 ~ 장애 |
| 상(床) + 애 → 사아 ~ 상애 | 청(廳) + 애 → 처어 ~ 청애 |
| 농(籠) + 애 → 노오 ~ 농애 | 지붕 + 애 → 지부우 ~ 지붕애 |
| c. 방(房) + 을 → 바알 | 장(市場) + 을 → 차알 |
| 콩(豆) + 을 → 코올 | 지붕 + 을 → 지부울 |

(2)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 ɲ/ 의 비모음화 현상의 예들이다. (2.a)는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과 주격조사 -i(서술격 조사 -i- 포함) 사이에 / ɲ/ 이 개재할 때, < ɲ 삭제><비모음화>가 실현된 것인데, 이 경우 비모음화는 활발히 실현된다. (2.b)는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과 처소격조사 -애(e) 사이에 / ɲ/ 이 개재할 때, < ɲ 삭제><비모음화><완전순행동화>가 동시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2.b)와 같은 비모음화는 50대 이상의 화자에게는 활발히 실현되나 40대 이하의 화자에게는 수의적이다. (2.c)는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과 목적격조사 -il 사이에 / ɲ/ 이 개재할 때, < ɲ 삭제><비모음화><완전순행동화>가 동시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도 대체로 50대 이상의 화자에게는 활발히 실현되며, 40대 이하의 화자에게는 수의적이나 실현되지 않는 쪽이 우세한 듯하다.

형태소 경계에서 / ɲ/ 의 비모음화는 모음과 주격조사 -i 사이와 모음과 처소격조사 -애, 모음과 목적격조사 -il 사이에 / ɲ/ 이 개재할 때만 실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실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비모음화 현상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경향인 듯하다. 그러나 /n/, / ɲ/ 이 모음과 /i/ 사이에 있다고 해도 /i/ 앞에 단어 경계가 있으면 (3)과 같이 /n/, / ɲ/ 은 삭제되지 않는다.

- (3) 산(山) # 이름 → [산 이름(sanirim)] 강(江) # 이름 → [강 이름(kafjirim)]

이와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비모음화 현상은 갈수록 약화되어 30대 이하의 토박이 화자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 듯하다.

6. 모음 삭제(母音削除)

국어에는 모음과 모음이 직접 연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인접한 두 모음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모음삭제>라 한다.

이 지역어의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모음삭제에는, 동일한 모음이 만날 때 그 중 하나가 삭제되는 <동음삭제>와 어간말이나 어미의 두음에 위치하는 /i/ 가 모음과 직접 만날 때 삭제되는 <i 삭제> 등 2 종류가 있다.

1) 동음삭제

동음삭제는 용언이 활용할 때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간 말음 /a/와 어미두음 /a/가 결합하여 /a/로, 어간 말음 /ə/와 어미 두음 /ə/가 결합하여 /ə/로 실현되는 것은 연속되는 두 모음 중 하나가 삭제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동음삭제>라 한다.

	기저형	모음조화	표면형
(1) a. 가- (去)	/가 + 아서/	→ 가아서	→ [가서]
사- (買)	/사 + 아서/	→ 사아서	→ [사서]
차- (蹴)	/차 + 아서/	→ 차아서	→ [차서]
b. 서- (立)	/서 + 아서/	→ 서어서	→ [서서]
펴- (汲)	/펴 + 아서/	→ 펴어서	→ [펴서]

(1.a)는 /가/의 삭제를, (1.b)는 /서/의 삭제를 각각 보여 준다.

2) i 삭제

어간 말음 /-(i)/ 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ə 앞에서, 그리고 어미의 두음 /i/가 모음이나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 밑에서 삭제되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i 삭제>라 한다.

이 지역어에는 어간이 /i/ 로 끝나는 용언은 다음 몇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저형	모음조화	표면형
(2)	끄- (消)	/끄 + 아서/ →	끄어서 → [꺼서]
	뜨- (浮)	/뜨 + 아서/ →	뜨어서 → [떠서]
	크- (大)	/크 + 아서/ →	크어서 → [커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어에는 모음 연속체를 싫어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2)와 같이 어간 말음 /i/ 와 어미두음 /a/가 결합하면 어간말 모음 /i/ 가 삭제된다.

7. 활음 형성(滑音形成)

현대국어에 있어서 V_1, V_2 의 모음연속체가 이루어질 때 이를 거부하는, 즉 [+syll]을 [-syll]로 바뀌게 하는 음운현상으로 <활음형성>이 있는데, 이는 음절을 하나 삭제하여 경제적 발화를 하기 위한 음운 행위라고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활음형성>이란 용어의 어간말 모음 /i, u, o/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a/a와 결합할 때, /i/는 /j/로, /u, o/는 /w/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고성지역어는 활음형성의 환경에 포함되는 어휘형태소들이 중부방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 활음 j 의 형성

어간말 모음 /i/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a/a와 결합할 때 /j/로 변하는 현상이기에 이는 반드시 어간말 모음이 /i/로 끝나는 어휘형태소라야 한다. 어간말 모음 /i/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a/a와 결합할 때 (1)과 같은 표면형이 실현된다.

활음 /j/의 형성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1.a)와 같이 자음과 결합하지 않는 1음절 어간 /i/로서 성조가 고조인 경우 활음 /j/가 형성되고, (1.b)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i/로 끝나는 1음절 어간으로서 /i/앞에 파찰음이 오고 성조가 고조 또는 중조인 환경에서만 활음 /j/의 형성이 자유롭게 실현된다. 2음절 어간에서는 (1.cd)와 같이 활음이 형성되기도 하고, 비록 파찰음이 /i/ 앞에 놓이더라도 활음이 형성되지 못하고 완전순행동화 하기도 한다. (1.cd)와 같은 예외적 음운형상이 시사하는 바는 이 지역어의 (1.cd)와 같은 어사들보다 전단계에는 완전순행동화하지 않고 <활음형성>→<활음삭제>의 음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활음 w 의 形成

	기저형	활음형성	활음삭제	표면형
(1) a. 이- (戴)	/i + əsə/	→ jəsə	→ ———	→ [여서]
b. 지- (負,敗)	/ci + əsə/	→ cjəsə	→ cəsə	→ [저서]
치- (打,養)	/c ^h i + əsə/	→ c ^h jəsə	→ c ^h əsə	→ [쳐서]
찌- (蒸,肥)	/c' i + əsə/	→ c' jəsə	→ c' əsə	→ [찌서]
c. 찌지- (灼)	/c' ici + əsə/	→ c' icjəsə	→ c' icəsə	→ [찌저서 ~ 찌지서]
다치- (傷)	/tac ^h i + əsə/	→ tac ^h iəsə	→ tac ^h əsə	→ [다쳐서 ~ 다치서]
부치- (附)	/puc ^h i + əsə/	→ puc ^h jəsə	→ puc ^h əsə	→ [부쳐서 ~ 부치서]
d. 빠지- (陷)	/p' aci + əsə/	→ p' acjəs	→ p' acəsə	→ [빠저서 ~ 빠지서]
터지- (爆)	/t ^h əci + əsə/	→ t ^h əcjəsə	→ t ^h əcəsə	→ [터저서 ~ 터지서]

(1) 어간말 모음이 o로 끝나는 경우

	기저형	활음형성	활음삭제	표면형
(1) a. 오- (來)	/o + asə/	→ wasə	→ ———	[wasə]
b. 보 (見)	/po + asə/	→ pwasə	→ paasə	→ [paasə]

이 지역어에서 어간말 모음이 /o/로 분석되는 어휘형태소는 “오-”(來) “보-”(見) 두 개 밖에 발견되지 아니한다. 중부방언에서 어간말 모음이 /o/인 “고-”(煎), “꼬-”(索), “쏘-”(射)는 이 지역어에서 각각 “고우-(고아-)”, “까-”, “싸-”로 재구조화된다.

(1)과 같이 어간 /o/에 어미 -a가 결합되면 활음형성이 일어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활음형성에 의해서 (1.b)는 장모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1.a)는 장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w 활음 형성> 후에 어두 자음이 있을 때 <w 삭제>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두 자음이 없을 때는 활음삭제가 실현되지 않으며, 어두 자음이 있을 때는 활음삭제가 실현된다.

(2) 어간말 모음이 u로 끝나는 경우

	기저형	표면형	기저형	표면형
(2) 주- (興)	/cu + asə/	→ [coosə]	/cu + ara/	[coora]
누- (尿)	/nu + asə/	→ [noosə]	/nu + ara/	[noora]

두- (置) /tu + asə/ → [toosə] /tu + ara/ → [toora]

이 지역어에서 어간말 모음이 /u/로 끝나는 1음절 어간 용언은 (2)의 3개 뿐인 것 같다. 이 경우에 어미 -a/ə가 결합되면 oo(o:)로 실현된다. 중부 방언에서 /u/로 끝나는 개음절의 단음절 형태소 어간인 “꾸-(夢), 추-(舞), 쑤-(粥), 푸-(汲)” 등은 이 지역어에서는 “끄-, 치-, 씨-, 퍼-”로 재구조화된다.

u로 끝나는 2음절 어간 용언은 1음절 어간과는 달리 이 지역어에서 많이 발견된다. 중부 방언에서 어간 말음이 /i/ 인 “잡그다, 담그다, 고프다, 바쁘다”는 “잡구다, 담구다, 고푸다, 바뿌다”로 재구조화되고 사동접사 “히”를 가지는 “삭히다, 식히다”는 “삭후다, 식후다”로 재구조화되어 쓰이고 있다.

	기저형	활음형성	활음삭제	표면형
(3) a.	잠구- (鎖) /camku + asə/	→ camgwasə	→ camgasə	→ [caŋgasə]
	담구- (潛) /tamku + asə/	→ tamgwasə	→ tamgasə	→ [taŋgasə]
	바뿌- (奔) /pap'u + asə/	→ pap'wasə	→ pap'asə	→ [pap'asə]
	고푸- (飢) /kop ^h u + asə/	→ kop ^h wasə	→ kop ^h asə	→ [kop ^h asə]
b.	뿌수:- (破) /p'osu: + asə/	→ p'oswa:sə	→ p'osa:sə	→ [p'osa:sə]
	가두:- (囚) /katu: + asə/	→ kadwa:sə	→ kada:sə	→ [kada:sə]
	거두:- (收) /kətu: + asə/	→ kədwa:sə	→ kəda:sə	→ [kəda:sə]
	삭후:- (삭히) /sakhu: + asə/	→ sak ^h wa:sə	→ sak ^h a:sə	→ [sak ^h a:sə]
	식후:- (식히) /sikhu: + asə/	→ sik ^h wa:sə	→ sik ^h a:sə	→ [sik ^h a:sə]

모음조화 규칙은 1음절 어간 용언에만 잘 지켜진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3.a)와 같은 2음절 어간에는 모음조화가 파괴되어 이 지역어에서는 대체로 어미 -a가 결합된다. 그리하여 u + a가 활음형성에 의하여 wa가 되고, 활음삭제에 의하여 /w/가 삭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b) “뿌수-, 가두-, 거두-”는 기저형이 “뿌사-, 가다-, 거다-”로도 되는데, 이는 인근 창원지역어 등 다른 지역어의 간섭에서 온 결과인 듯이 보이며, 앞엿 것이 사용빈도수가 높아 우세하기 때문에 이를 기저형으로 삼았다. 여기서도 모음조화와 관계없이 어미 -a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a가 결합되는 것은 이 지역어에서는 양성모음이 우세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기저형에서 장모음을 가진 것은 장음발생의 환경인 MH- 성조이기 때문에 장음을 유지하면서 활용하고 있음을 본다.

8. 움라우트

여기서는 고성지역어가 경험한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 문헌의 어휘 형태소 내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의 형태소 경계에까지 일어나는 움라우트 현상에 대해서 통시적 음운현상과 공시적 음운현상을 구분해서 기술한다.

그러면 먼저 이 지역어가 겪은 움라우트 현상으로서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통시적 음운현상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 (1) a. 아비 > 애비(父)
 사비 > 새비(蝦)
 샷기 > 새끼(雛)
 싸라기 > 싸래기 > 싸래이 ~ 싸레이(小米)
 방망이 > 방매이 ~ 방메이(砵杵)
 호랑이 > 호래이 ~ 호레이(虎)
 훔아비 > 훔애비(鰥)
 가자미 > 가재미(鰈魚)
- b. 어미 > 예미 ~ 이미
 두꺼비 > 뚜끼비(蟾)
 구렁이 > 구래이 ~ 구리이
 두드러기 > 두드레기 > 두드레이 ~ 두드리이(疹)
- c. 고기 > 게기 ~ 게이(魚)
 조끼 > 쨌끼
 포기 > 페기 ~ 페이(株)
- d. 누비옷 > 니비옷
 몽둥이 > 몽디이(棒)
 몸뚱이 > 몸띠이(身)
 모퉁이 > 모티이(隅)
 문둥이 > 문디이
- e. 다듬이 > 따딤이(砧)

위의 (1.a~e)의 예와 같이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 /i, j/ 를 동화주로 하는 움라우트 현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이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자음

이 개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 /i, j/ 를 동화주로 하면서 음라우트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본다.

- | | |
|------------------------|-----------------------|
| (2) a. 가시(荊) > *개시 | 가지(茄子) > *개지 |
| 모시(苧) > *메시 | 바지(袴) > *배지 |
| 말이(伯) > *매지 | 고치(繭) > *게치 |
| 가지(枝) > *개지 | 같이(共) > *개치 |
| b. 마리(匹) > *매리 | 서리(霜) > *세리 |
| 머리(頭) > *메리 | 고리(環) > *게리 |
| 허리(腰) > *헤리 | 구리(銅) > *기리 |
| 다리(橋) > *대리 | 소리(聲) > *세리 |
| 자리(席) > *제리 | 오리(鴨) > *에리 |
| (3) a. 다리다(熨) > 대리다 | 버리다(棄) > 베리다 |
| 아리다(痛) > ऐ리다 | 어렵다(難) > ऐ렵다 |
| 어리다(幼) > ऐ리다 | 그리다(晝) > 기리다 |
| 저리다(加鹽) > 제리다 | |
| b. 다리다(異)(<다르다) > *대리다 | 보리다(塗) (<보르다) > *베리다 |
| 너리다(廣)(<너르다) > *네리다 | 모리다(不知) (<모르다) > *메리다 |
| 바리다(直)(<바르다) > *배리다 | 흐리다(流) (<흐르다) > *히리다 |
| c. 살리다 > *셀리다 | 걸리다 > *겔리다 |
| 말리다 > *멜리다 | 돌리다 > *델리다 |
| 갈리다 > *겔리다 | 울리다 > *일리다 |
| 잘리다 > *젤리다 | 흘리다 > *힐리다 |

우리는 (2)에서 [-grave] 자질을 가진 자음이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하면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런데 [-grave] 자질의 자음인 /ㄹ/이 개재할 때 (2.b)의 예와 같이 명사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는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데, 동사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는 (3.a)의 예와 같이 음라우트가 실현된다. 이 지역어에서는 명사 어휘인 “다리미(熨)”는 “다리비”로 실현되어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동사 어휘인 “다리다(熨)”는 “대리다”라는 표면형으로 실현

까지 일어나서 움라우트 현상을 더욱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4.d)는 [-grave]와 [+grave] 자음으로 연결되어서 [-grave]로 인해 움라우트가 실현될 수 없지만, 이는 변자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어서 후부변자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나서, 다음에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4.e)는 먼저 폐구조음화(閉口調音化)로 /r/(l)이 삭제된다. 이와 같이 /r/이 삭제되면 (4.c)와 같은 환경이 되어서 후부변자음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움라우트 현상이 실현되게 된다 (도수희, 1981 : 4-5참조).

(4.f)는 피동화주와 동화주 사이에 [+grave] [-grave] 순으로 자음이 개재한 환경인데, 이 경우는 움라우트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후부변자음화 규칙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4)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개재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grave] 자음이 개재하면 움라우트 규칙은 자유롭게 적용되며, [-grave] [+grave] 순으로 자음이 개재하면 후부변자음화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 움라우트는 실현된다. 반대로 [+grave] [-grave] 순으로 자음이 개재하면, 즉 동화주 /i, j/ 바로 앞에 [-grave] 자음이 개재하면 움라우트는 실현될 수 없음을 보았다.

다음은 파생어 가운데 명사화 접미사(nominalizer) ‘기/이’가 결합되는 경우, 움라우트가 실현되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 (5) a. 맛보기 > 맛베기 > 맛베이
 돌보기 > 돌베기 > 돌베이
 개막이(出網) > 개맥이 > 개매이 > 개메이
 똑똑이 > 똑떡이 > 똑떡이 > 똑띠이
 쌍둥이 > 쌍뎡이 > 쌍디히
- b. 물넘기 > 물녕기 > 물냉기
- c. 가기 > 개기 하기 > 해기
 오기 > 예기 보기 > 베기
 묵기 > 믱기

명사화소 ‘기/이’는 흔히 움라우트를 방어하는 인자가 된다. 이 움라우트의 제거는 통사론적 기능에 있는 것이어서 ‘-기’는 단순히 용언 어간에만 후접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언을 포함하는 통사론적 구성 전체에 대하여 명사화(nominalization)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움라우트는 단어 내부에서 실현된다는 문법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움라우트로부터 소외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병근 1971). 그런데 위 (5.a.b)의 예를 보면

막히다(塞) > 맥히다	업히다(負) > 엽히다
뽑히다(選) > 뺨히다	
b. 맡기다(任) > 맥기다	벗기다(脫) > 백기다
웃기다(笑) > 익기다	옮기다(遷) > 앵기다
속이다(欺) > 썩이다	죽이다(死) > 직이다
잡히다(捕) > 째히다	업히다(負) > 엽히다

(8.a)는 피동형이고, (8.b)는 사동형이다. (4.c.d)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사동형, 피동형에서도 음라우트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면 자유롭게 실현됨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통시적 음운현상인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음라우트를 살펴보았다. 이제 공시적 음운 현상인 주격 조사 -i(서술격 조사 -i- 포함)가 결합될 때에 실현되는 이 지역어의 <음라우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a.	밖(外) + 이 → 백이	닭(鷄) + 이 → 닥이
	방(房) + 이 → 뱅이	강(江) + 이 → 갱이
	잠(睡) + 이 → 뺨이	담(牆) + 이 → 댐이
	밥(食) + 이 → 뺨이	앞(前) + 이 → 앓이
	바람(風) + 이 → 바램이	사람(人) + 이 → 사램이
b.	법(法) + 이 → 뺨이	겁(怯) + 이 → 겹이
	섬(石) + 이 → 썸이	떡(餅) + 이 → 뻘이
	점(點) + 이 → 째이	범(虎) + 이 → 뺨이
c.	목(頸) + 이 → 맥이	쪽(內) + 이 → 썩이
	복(福) + 이 → 백이	콩(豆) + 이 → 켩이
	몸(身) + 이 → 뺨이	꿩(雉) + 이 → 꺽이
d.	이름(名) + 이 → 이림이	지름(油) + 이 → 지림이
	거름(肥) + 이 → 거림이	금(裂) + 이 → 김이

(1)에서 주격조사 -i가 결합되는 예만 들었는데 서술격 조사 -i-가 결합되어도 꼭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체언에 주격 -i 나 서술격 조사 -i-가 결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도 어휘형태소 내부에서와 같이 개재자음이 [+grave]일 때는 음라우트가 활발히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비록 개재자음이 [+grave]라는 음운론적 조건을 갖춘 환경에서도 음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 예를 (2)에서 볼 수 있다.

- (2) a. 죽(粥) + 이 → * 직이 쭉(蓬) + 이 → * 썩이
 중(僧) + 이 → * 징이
- b. 발뚝 + 이 → * 발딕이 중풍(中風) + 이 → * 중피이

(2)는 개재 자음이 [+grave] 인데도 피동화주가 /u/인 경우, 움라우트가 잘 실현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u/는 모음체계상 개구도가 가장 낮고, /u/에 대응하는 전설계 원순성을 가진 모음이 체계상 공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움라우트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와 같이 음운론적 제약 조건인 [-grave]의 자음이 개재할 경우 (3)과 같이 움라우트는 단연코 실현되지 않는다.

- (3) 갓(笠) + 이 → *갓이 낫(鎌) + 이 → *넷이
 옷(衣) + 이 → *엿이 붓(筆) + 이 → *빚이
 낫(晝) + 이 → *넷이 젓(乳) + 이 → *젯이
 낯(面) + 이 → *넣이 곁(表) + 이 → *겉이
 날(日) + 이 → *넣이 살(肉) + 이 → *셀이
 설(歲) + 이 → *셀이 술(松) + 이 → *셀이
 술(酒) + 이 → *실이

위에서 우리는 체언에 주격조사 -i와 서술격 조사(계사) -i가 결합하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경상방언, 전라방언, 충청방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어에서도 움라우트가 활발히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다.

9. 구개음화(口蓋音化)

구개음화란 i, j 가 지닌 전설고모음성에 의하여 선행하는 비구개자음이 전설고모음성을 지닌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역행동화 현상이다.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구개음화에는 <t 구개음화>, <k 구개음화> 및 <h 구개음화>가 있다.

1) t 구개음화

- (1) 접시(摺子) (<듭시) 좋-(好) (<똥-) 치-(打) (<티-)
 데치-(喋) (<데티-) 천지(天地) (<턴디)

(1)은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통시적 음운현상인데, 이 경우 동화주 /i/는 기원적인 /i/ 라야 구개음화가 가능하다.

2) k 구개음화

- | | | |
|-----------------|-------------|---------------|
| (2) 질(道) (<길) | 절(傍) (<곁) | 짐(海苔) (<김) |
| 짐치 (<김치) | 질-(長) (<길-) | 전다-(忍) (<견디-) |
| 지다리-(待) (<기다리-) | 채이(箕) (<키) | 치(舵) (<키) |

<k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만 실현된 통시적 음운현상이다. (2)는 <k 구개음화>의 예들인데, 여기서 보면 <k 구개음화>는 어두에서만 실현되었고, 비어두에서의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k 구개음화>의 동화주 /i/도 기원적인 /i/ 라야 구개음화가 가능하다.

3) h 구개음화

- | | |
|------------------|-----------------|
| (3) a. 심(力) (<힘) | 썩(舌) (<혀) |
| 숭 (<흥) | 썩-(引)(붙을) (<혀-) |
| b. 소자(孝子) (<효자) | 송년(凶年) (<흉년) |
| 소암(效驗) (<효험) | 세이(兄) (<형) |

(3)의 <h 구개음화>도 형태소 내부의 어두에서만 실현된 통시적 음운현상이다. <h 구개음화>는 현재 60대 이하의 화자에게는 점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구개음화현상을 살펴보는데, 이 지역어에서 공시적으로 실현되는 구개음화는 <t 구개음화>뿐이다.

- | | | |
|--------------------|--------------------|-------------|
| (4) a. 밭(田)+이 → 바치 | 꽃(花)+이 → 꼬치 | 낯(面)+이 → 나치 |
| 끝(末)+이 → 꼬치 | 빚(債)+이 → 비지 | 젖(乳)+이 → 저지 |
| b. 닫(閉)+히+다 → 다치다 | 묻(埋)+히+다 → 무치다 | |
| c. 밭(田)#일(事) → 반닐 | 꽃(花)#이파리(葉) → 꼰니파리 | |

(4.a)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공시적 음운현상이다. 이 지역어에서 “꽃(花), 낯(面)”은 “꼰, 낯”으로, “빚(債), 젖(乳)”은 “빔, 전”으로 재구조화되어 실현된다.

(4.b)는 /t/와 /i/ 사이에 /h/이 개입되어 있다. 이 경우는 “닫히다→다티다→다치다, 묻히다→무티다→무치다”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즉 /t/와 /h/의 격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t^h/로 격음화된 뒤에 /i/ 앞에서 /t^h/이 구개음화되어 /c^h/로 실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4.c)는 /i/ 앞의 /t^h/이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예이다. 이 경우는 어휘형태소와 어휘형태소의 경계, 즉 단어 경계이다. 그러니 공시적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t 구개음화>는 /t/, /t^h/과 /i/가 만나는 모든 형태소 경계에서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어

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 경계에서만 실현된다는 형태론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자음동화(子音同化)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자음에 영향을 주어 서로 닮게 되는 데, 이것을 자음동화라 한다. 자음동화는 ‘소리의 닮음’ 혹은 ‘자음접변’(子音接變) 등으로도 이르며, 여기에는 <비음화>(鼻音化), <순음화>(唇音化), <연구개음화>(軟口蓋音化), <마찰음화>(摩擦音化), <유음화>(流音化)가 있다.

1) 비음화(鼻音化)

파열음은 비음에 앞설 수 없으므로 파열음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에 동화되어 같은 계열의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 한다. 고성지역어에서도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보편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1) /ㄱ/ → /ㅇ/

- | | |
|---------------------|-----------------------|
| a. 도둑놈 → 도둥놈 | 짜눈 → 짱눈 |
| b. 국물 → 궁물 | 부석문 → 부성문 |
| c. 막 + 는다 → 망는다(防) | 묵 + 는다 → 몽는다(食) |
| 삐작 + 는다 → 삐장는다(비꼬다) | 깎 + 는다 → 깉는다 → 깡는다(削) |
| d. 독립 → 독닙 → 동닙(獨立) | |

(2) /ㄷ/ → /ㄴ/

- | | |
|--------------------|-----------------|
| a. 말메느리 → 만메느리 | |
| b. 닫 + 는다 → 단는다(閉) | 듣 + 는다 → 든는다(聞) |

(3) /ㅂ/ → /ㅍ/

- | | |
|--------------------------|-----------------------|
| a. 십년 → 심년(十年) | |
| b. 밥맛 → 밤맛 | 밥(食) + 물(水) → 밤물 |
| 앞문 → 압문 → 암문 | 손톱 + 만치 → 손툼만치 |
| c. 어둡 + 나 → 어둡나(暗) | 무겁 + 나 → 무검나(重) |
| 입 + 는다 → 임는다(被) | 덮 + 는다 → 덮는다 → 덤는다(蓋) |
| d. 밥(食) + 만 → 밤만 | 값(價) + 만 → 감만 |
| e. 밟 + 는다 → 봄는다 → 밟는다(踏) | |
| 뚫 + 는다 → 뜯는다 → 뚫는다(穿) | |

2) 순음화(脣音化)

<순음화>는 설정적(舌頂的) 자음 /ㄴ, ㄷ, ㅅ, ㅈ, ㅊ/ 등이 순음 앞에서 순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신문(新聞) → 심문	눈물(淚) → 눈물
돋베이(돋보기) → 뚝베이	갓방 → 갠방 → 갑방
낫(鎌) + 만 → 날만 → 난만 → 남만	
갓(笠) + 만 → 갈만 → 간만 → 감만	
솥(鼎) + 만 → 솥만 → 손만 → 슴만	

3) 연구개음화(軟口蓋音化)

<연구개음화>는 연구개음 이외의 모든 순수자음이 연구개음 /ㄱ/ 앞에서 연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anterior assimilation, 변자음화(邊子音化), 후부변자음화(後部邊子音化)라고도 한다.

- | | |
|--------------------------|---------------|
| a. 샷갓 → 산갓 → 삭갓 | |
| 벗기다(脫) > 변기다 > 벽기다 > 백기다 | |
| 맡기다(任) > 만기다 > 막기다 > 맥기다 | |
| 닫 + 고 → 닥고(閉) | 입 + 고 → 익고(被) |
| 찾 + 고 → 찰고 → 착고(探) | |
| b. 손 + 가락 → 송까락 | 문 + 고리 → 몽꼬리 |
| 안 + 고 → 앙고(抱) | 숨 + 고 → 승고(隱) |
| c. 삶 + 고 → 삼고 → 쌍고(烹) | |

4) 마찰음화(摩擦音化)

여기서의 <마찰음화>란 설정적 장애음 /ㄷ, ㅌ, ㅈ, ㅊ/이 마찰음 /ㅅ/앞에서 /ㅅ/으로 동화되는 것을 말한다.

닫(閉) + 소 → 닷소	묻(問) + 소 → 몫소
같(同) + 소 → 간소 → 갓소	맡(嗅) + 소 → 만소 → 맛소
찾(探) + 소 → 찰소 → 찻소	늦(遲) + 소 → 늘소 → 늦소
쫓(追) + 소 → 쫘소 → 쫓소	

5) 유음화(流音化)

<유음화>는 /ㄹ(1)/을 선행시키는 어간말 자음군과 어미의 두음 /ㄴ/이 결합할 때, /ㄴ/이 선행자음 /ㄹ(1)/에 동화되어 /ㄹ(1)/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훔(舐) + 는다 → 훔는다 → 훔른다

훔(抽穗) + 는다 → 훔는다 → 훔른다

앓(病) + 는다 → 알는다 → 알른다

달(耗) + 는다 → 달는다 → 달른다

이 지역어에서는 어간말음에 /ㄹ(1)/이 선행하는 자음군 ‘ㅼ, ㅼ’이 /ㄴ/ 두음을 가진 어미와 결합할 때에만 유음화 현상이 실현된다.

11. 자음 중화(子音 中和)

단어 경계나 자음 앞에서 일어나는 장애음들의 미파(未破)현상과 유기음화 현상, 경음화 현상을 포함하여 자음 중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고성지역어에서의 자음 중화는 유기음화나 경음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음과 단어경계 즉 휴지 앞에서 장애음의 미파현상만을 자음 중화로 다룬다.

자음 중화에는 <ㄷ 중화>, <ㄱ 중화>, <ㅂ 중화>가 있다.

1) ㄷ 중화

국어의 치조파열음과 마찰음 그리고 경구개 파찰음과 같은 치조장애음 /ㄷ, ㅌ, ㅈ, ㅊ, ㅍ, ㅅ, ㅆ/는 자음과 휴지(休止) 앞에서 [ㄷ]으로 발음되는데, 이를 <ㄷ 중화>라 이른다. 이론적으로는 /ㄷ, ㅌ, ㅈ, ㅊ, ㅍ, ㅅ, ㅆ/ 등 모든 치조장애음이 <ㄷ 중화>를 실현시키지만 한국어에서는 음절말에 /ㅌ, ㅆ/이 나타나는 일이 없는데, 더욱이 고성지역어에서는 음절말에 /ㅆ/까지 나타나는 일이 없다.

a. 밭(田) → 받

절(傍) → 전

b. 찾다(探) → 찰다

늦다(遲) → 늘다

c. 쫓다(追) → 쫘다

훔다(追) → 혼다

d. 웃담(上村) → 운담

잇다(笑) → 인다

2) ㄱ 중화

연구개 파열음 /ㄱ, ㅋ, ㆁ/는 자음과 휴지 앞, 즉 파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ㄱ]로 발음되는데, 이를 <ㄱ 중화>라 이른다.

깎다(削) → 깎다
 닦다(洗) → 딱다
 밖(外) → 박

낚다(釣) → 낚다
 섞다(混) → 석다
 닭(鷄) → 닉

3) ㅂ 중화

양순파열음 /ㅂ, ㅃ, ㅍ, ㅍ/는 자음과 휴지 앞, 즉 파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ㅂ]으로 발음 되는데, 이를 <ㅂ 중화>라 이른다.

앞(前) → 압
 짚(藁) → 집
 덮다(蓋) → 엇다

옆(側) → 엽
 짚단 → 집단
 엇다(覆) → 엇다

12. 자음 삭제(子音 削除)

형태소 내부 또는 형태소 경계에 존재하던 자음이 표면형에 실현되지 않는 현상을 자음삭제라 한다.

고성 지역어의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자음삭제에는 <ㄱ 삭제>, <ㄴ 삭제>, <ㅇ 삭제> 등이 있다.

1) ㄱ 삭제

이 지역어에서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ㄱ/이 삭제되는데, 그 환경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ㄱ 삭제>에 대해서 고찰한다.

- (1) a. 게이 < 고기 고오매 < 고구마 바아치 < 바가치
 자안집 < 작은집 문내 < 묵은내
- b. 기잉 < 구경(求景)
- c. 싸레이 < 싸라기 꼭테이 < 꼭대기 무디이 < 무더기
 꺾디이 < 꺾더기 메띠이 < 메뚜기 소네이 < 소나기
 탁베이 < 탁배기 두드리이 < 두드러기

위의 예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ㄱ/이 삭제된 예들인데, (1.a)는 어휘 형태소 내부의 /ㄱ/이 삭제된 것인데, 그 예는 많지 않으며, (1.b)는 한자어임에도 ‘ㄱ’이 삭제된 것인데 그 예는 찾기가 힘들다. (1.c)는 축소접미사 ‘-야기/어기’가 접속되었거나 명사화 접미사 -i 등이 접속되어 ‘-기’로 끝나는 어사들인데, 이 경우 거의 /ㄱ/은 삭제된다.

다음은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ㄱ 삭제/에 대해서 살펴 본다.

- (2) a. 압따아 ← 압따(山)+애 바다아 ← 바닥(底)+애
 저녀어 ← 저녁(夜)+애 언더어 ← 언덕(阜)+애
 그르으 ← 그릇(器)+애 새보오 ← 새복(曙)+애
 b. 무우라 ← 묵(食)+어라 찌이라 ← 찌(搗)+어라

(2.a)는 /ㄱ/으로 끝나는 명사 어휘에 처격조사 ‘-애’가 연결된 경우인데, 이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ㄱ/ 삭제가 먼저 실현되고 바로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된 예들이다. (2.b)처럼 이 지역어에 “떡다(食)”는 “묵다”로, “찡다(搗)”는 “찌다”로 재구조화되어 실현된다.

2) ㄴ 삭제

/ㄴ/이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 시키면서 삭제되는 현상을 <ㄴ 삭제>라고 한다. 이 현상이 실현되는 환경은 /ㄴ/ 음소 뒤에 /i/가 오는 경우와 모음과 ‘i(을)’ 사이에 /ㄴ/이 오는 경우이다.

- (3) a. 하알 < 하늘(天) 마알 < 마늘(蒜) 오올 < 오늘(今日)
 b. 늘그이 < 늙은이(老人) 마이 < 만이 < 많이(多) 가마이 < 가마니(畝)

(3)은 어휘형태소 내부에서 <ㄴ 삭제>가 일어난 예들인데, (3.a)는 모음과 ‘i(을)’ 사이에 /ㄴ/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고, (3.b)는 모음과 /i/ 사이에 /ㄴ/이 개재한 경우이다.

다음은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ㄴ 삭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 (4) a. 사이 ← 산(山) + 이 초이 ← 손(手) + 이
 누이 ← 눈(眼) + 이 노이 ← 논(畓) + 이
 b. 사알 ← 산(山) + 을 초올 ← 손(手) + 을
 누올 ← 눈(眼) + 을 노올 ← 논(畓) + 을

(4.a)는 /n/이 모음과 /i/ 사이에서 약화되어 삭제되는 음운 변동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체언의 말음 /n/이 주격조사 -i 앞에서 삭제되면서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시킨다. (4.b)는 모음과 목적격 조사 -il(-을) 사이에서 /n/이 삭제되면서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 시키고, 동시에 완전순행동화 되어 실현 된다.

3) ㅇ 삭제

어휘 형태소 내부와 체언과 조사 사이의 형태소 경계에서 /o(ㅅ)/이 삭제되는 현상을

<○ 삭제>라 한다. <○ 삭제>도 <ㄴ 삭제>와 같이 /○/이 삭제되면서 그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 시킨다. 먼저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 삭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 | | | |
|--------|-------------|--------------|
| (5) a. | 도오(盆) < 동이 | 추우(袴衣) < 중의 |
| | 조오(紙) < 종이 | 바아(搗精機) < 방아 |
| | 짜아(長魚) < 짱어 | 노오(鱸魚) < 농어 |
| b. | 호매이 < 호맹이 | 강새이 < 강생이 |
| | 호래이 < 호랭이 | 꼬래이 < 꼬랭이 |

(5.a.b)는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 삭제> 현상이데, (5.a)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여진 /○/이 삭제되면서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 시키고 동시에 완전순행동화된 예이고, (5.b)는 그 환경이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과 /i/ 사이에 /○/이 개재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이 삭제되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 시킨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 삭제>는 체언의 말자음 /○/이 조사 -i와 -e(sa) 앞에서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 시킨 뒤 삭제된다.

- | | | |
|--------|----------------|----------------|
| (6) a. | 배이 ← 방(房) + 이 | 베이 ← 병(病) + 이 |
| | 채이 ← 장(市場) + 이 | 개이 ← 강(江) + 이 |
| b. | 바아 ← 방(房) + 애 | 노오 ← 농(籠) + 애 |
| | 차아 ← 장(市場) + 애 | 지부우 ← 지붕 + 애 |
| | 사아 ← 상(床) + 애 | 치어 ← 청(마루) + 애 |
| c. | 바알 ← 방(房) + 을 | 코올 ← 콩(豆) + 을 |

(6)은 체언과 조사 사이의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 삭제> 현상이데, (6.a)는 주격조사 -i 앞의 /○/이 삭제되면서 전후 모음을 비모음화 시킨 경우이고, (6.b)는 /○/으로 끝나는 체언에 처격조사 -e(sa)가 연결될 때, <○ 삭제>-<비모음화>-<완전순행동화>의 음운과정을 실현시킨 경우이다. (6.c)는 모음과 목적격조사 -il(-을) 사이에 /○/이 개재될 때에 <○ 삭제>-<비모음화>-<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된 것이라고 본다.

13. 자음군 단순화(子音群 單純化)

국어는 음절말에서 두 자음이 동시에 발음될 수 없으며, 모음 사이에서 세 자음이 발음될

수 없는 표면 음성 제약(surface phonetic constraints)을 가지고 있다. 끝 기저의 (C)VCC#와 (C)VCCCV는 보다 자연스러운 음절 구조인 (C)VC#와 (C)VCCV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기저의 자음군이 표면에 실현될 때, 자음 중의 하나가 삭제되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 한다.

고성지역어에는 ‘ㄴ, ㄹ, ㄷ, ㅌ, ㄹ, ㅍ, ㅍ, ㅍ, ㅍ’ 등의 어간말 자음군이 있다. 중부방언과 다른 지역에 있는 ‘ㄴ, ㅍ’은 이 지역어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언에는 말자음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부방언에서 ‘ㄴ’을 가진 “뫼”, “샷”은 각각 “목, 모가치”, “씩”으로, ‘ㅍ’을 가진 “값”은 “갑”으로, ‘ㄷ’을 가진 “닭”, “흙”은 “닥, 닭”, “흙, 흙”으로, ‘ㅌ’을 가진 “여덥”은 “여덜”로 각각 재구조화되었다.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이 보여 주는 음운현상은 다음과 같다.

	기저형	-아도/어도	-으몬	-고	-다
ㄴ	앉- (坐)	앉아도	앉으몬	안꼬	안따
	엎-	엎어도	엎으몬	언꼬	언따
ㄹ	많- (多)	만아도	만으몬	만꼬	만타
ㄷ	꺾- (太)	꺾어도	꺾으몬	꺾꼬	꺾다
	늑- (老)	늑어도	늑으몬	늑꼬	늑다
ㅌ	쌈- (烹)	쌈아도	쌈우몬	쌈꼬	쌈다
	굶- (飢)	굶어도	굶우몬	굶꼬	굶다
ㅍ	값- (對)	값아도	값우몬	값꼬	값다
	넓- (廣)	넓어도	넓우몬	넙꼬	넙다
ㅍ	흙- (舐)	흙어도	흙으몬	흙꼬	흙따
	흙- (扱)	흙아도	흙으몬	흙꼬	흙따
ㅍ	올- (正)	올아도	올으몬	올꼬	올타
ㅍ	없- (無)	없어도	없스몬	없꼬	없따

이 지역어에는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에도 ‘ㅍ’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없- (無)’도 ‘없- (無)’으로 재구조화 되어서 ‘ㅍ’이란 자음군이 존재한다.

이 지역어는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는 형태소 경계에서 대체로 두 번째 음소가 삭제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어에서 대체로 두 번째 음소가 삭제되는 ‘ㄷ, ㅌ’은 이 지역어에서는 첫 번째 음소가 삭제된다. 그리하여 이 지역어에서 첫 번째 음소가 삭제되는 어간말 자음군은 ‘ㄷ, ㅌ, ㅌ’, 이 3개에 한한다. 즉, 두 번째 음소가 /ㄱ, ㄷ, ㅌ/ 등 [+grave] 자질을 가진 자음군은 첫 번째 음소가 삭제된다.

IV. 어법(형태와 통사)

어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포괄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용언의 활용어미와 체언의 곡용어미에 한해서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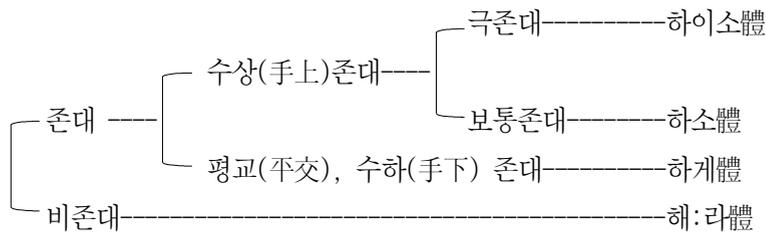
1. 활용(活用)

용언의 활용 어미는 종결어미, 전성어미, 선어말어미로 나눈다.

1) 종결어미(終結語尾)

종결어미는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로서 하나의 문(文)을 종결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어미다. 종결어미는 청자(聽者)에 대한 화자(話者)의 존비감(尊卑感)과 태도에 의하여 달리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대우법[敬語法]과 기능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체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종결어미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나눈다.

여기서는 종래에 대부분 비존대(非尊待)로 다루던 ‘하계 체(體)’를 존대로 다루어 고성지역어의 대우법 체계를 다음과 같이 네 등분으로 나눈다.



(1) 평서법(平叙法)

평서법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이나 약속, 감탄, 추측 등을 표시하는 문체법이다.

<해:라體>

<1> -다, -라

‘-다’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연결되며, ‘-라’는 서술격 조사나 선어말어미 ‘-더’에 연결되어 일반적인 진술을 나타낸다.

- a. 물이 지푸다. (=깊다)
- b. 이기 내 옷이다. (=이것이 내 옷이다)

c. 철수는 발에서 일하고 있더라.

㉞ -ㄴ다(-는다)

‘-ㄴ다(-는다)’는 동사 어간과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시-’, 의도(意圖)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을라-’에 연결되어 일반적인 진술이나 어떤 사실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이 개이[~]는 지를 참 잘 잡는다. (=이 고양이는 쥐를 참 잘 잡는다)
- 나는 오[~]올 큰집에 제사 지내로 간다. (=나는 오늘 큰집에 제사 모시러 간다.)
- 선생님이 글을 읽으신다.
- 은자(=이제) 집에 갈란다.

㉟ -으끄마

‘-으끄마’는 동사의 어간에만 연결되어 화자(話者)의 약속을 나타낸다.

- 오[~]올 저녀어 느그 집에 놀러 가끄마. (=오늘 밤에 너의 집에 놀러가마)
- 착 갑은 내가 주끄마. (=책 값은 내가 주마)

㊱ -아라/어라

‘-아라/어라’는 형용사 어간에만 연결되어 감탄을 표시한다.

- 아이, 덩어라. (=아이구, 더워라)

㊲ -은(는)잡다

‘-은(는)잡다’는 ‘-은(는)가 보다’에서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본래 어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굳어진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어미로 잡는다. 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어간, 그리고 ‘-으시-’, ‘-앗(엇)-’, ‘-긋(것)-’, ‘-더-’ 등 선어말 어미에 연결되어 제3자의 동작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 저 아야는 핵고 가는잡다. (=저 아이는 학교에 가는가 보다.)
- 아아가 우는걸 보[~]이 배가 고평잡다. (=아이가 우는 것을 보니 배가 고평가 보다.)
- 지난 여름은 몽창시리 덩던잡다. (=지난 여름은 매우 덩던가 보다)

㊳ -으께, -으께이

이는 ‘-을께’에서 ‘ㄹ’이 삭제된 형태로 약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드시 동사 어간에만 연결되는데 아주 낮춤의 약속을 뜻하는 어미 ‘-으끄마’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 오[~]올 느그 집에 놀러 가께(가께이). (=오늘 너의 집에 놀러가마)
- 먼침 가 있으[~]몬 나도 가께(가께이). (=먼저 가서 있으면 나도 가마)
- 니 줌 주께이. (=네에게 줌 주마)

<하계체>

“하계체”의 평서법 어미에는 ‘-네’가 있다.

<1> -네

‘-네’는 모든 서술어 어간과 ‘-더-’를 제외한 선어말어미에 연결된다.

- a. 나는 오늘 차가 가네. (=나는 오늘 장에 가네)
- b. 저 산에 노리가 떠이 가네. (=저 산에 노루가 뛰어 가네.)
- c. 나는 함께 몬가것네. (=나는 함께 못 가겠네)

<하소체>

<1> -소(-요)

‘-소(-요)’는 모든 서술어 어간과 ‘-더-’를 제외한 선어말어미에 연결된다.

- a. 그냥 놓고 있소. (=그냥 놓고 있어요.)
- b. 그거는 우리끼요. (=그것은 우리 것이요.)

<2> -으께이요, -으께이요

‘-으께이요, -으께이요’는 동사 어간에만 연결되어 약속을 나타낸다.

- a. 집에 갔다 오께이요(으께이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 b. 누워 자께이요(자께이요) (=누워 자겠습니다.)

<하이소체>

<1> -읍니다. -십니다

‘-읍니다, -십니다’는 모든 어술어 어간과 ‘-더-’를 제외한 선어말어미에 연결되어 일반적인 진술을 나타낸다.

- a. 우리집 아이는 핵고 갓십니다. (=우리 집 아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 b. 철수는 바아서 누워 잡니다. (=철수는 방에서 누워 잡니다.)
- c. 아버지는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십니다.)

<2> -읍디다, -십디다

이는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이나 보고의 의미를 나타낸다.

- a. 고성은 오올 비가 옴디다. (=고성은 오늘 비가 오더이다.)
- b. 철수는 밥을 먹십디다.

(2) 의문법(疑問法)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 속에 의문을 품어보는 것을 나타내는 문

법적 방법을 의문법이라 한다.

<해:라체>

“해:라체” 의문법은 「+하대, -존대, +친밀, -격식」의 자질을 갖는다. 이 지역어의 “해:라체” 의문법 어미는 ‘-가/고’와 ‘-나/노’가 주류를 이룬다.0

<1> -가/고

서술격 조사 ‘이다’, 형용사 ‘아이다(아이이다)’, ‘기다’와 체언에 직접 연결되어 의문을 나타낸다.

- ① a. 나는 학생(이)가?
b. 저가: 여시가? (=저것이 여우냐?)
c. 이가: 니 착(이)가? (=이것이 너의 책이냐?)
d. 오홀이 장날(이)가? (=오늘이 장날이냐?)
e. 니가 가야 잇는기: 담배 아이가?(=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담배 아니냐?)
- ② a. 나는 누구?
b. 가:가 누구? (=그 애가 누구고?)
c. 저기: 머엇고?(or 머:시고)
d. 이기: 무신 착(이)고? (=이것이 무슨 책이냐?)
e. 운재가 장날(이)고? (=언제가 장날이냐?)

‘-가/고’는 둘 다 동일한 의미 자질을 가지는 의문 표시의 기능이 있으나 그들의 발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문(文) 중에 의문사의 존재 여부다.

예문 ① ②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문 중에 의문사가 없으면 ‘-가’가 선택되고, 의문사가 있으면 ‘-고’가 선택된다. 여기서 의문사를 포함하는 문은 청자가 의문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문사가 없는 문은 단지 가부 판정을 청자에게 요구한다.

<2> -나/노

용언 어간과 과거 회상,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에 연결되어 직접 의문을 나타내며, 이것도 ‘-가/고’와 같이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되는데 의문사가 있으면 ‘-노’가 선택되고 의문사가 없으면 ‘-나’가 선택된다.

‘-나/노’는 “이다, 아이다, 기다”를 제외한 용언 서술어에 연결된다.

- ① a. 이번에는 내가 하나? (=이번에는 내가 하나?)
b. 나는 공부하나?
c. 가:가 왔나? (=그 애가 왔나?)
d. 니가 아까 우리 집에 왔더나?

- e. 아파서 핵고 가겠나?
- ② a. 지금 내가 며:하노?
 b. 니는 무신 공부 하노?
 c. 가:가 운재 왔노? (=그 애가 언제 왔느냐?)
 d. 니가 우리 집에 운재 왔더노?
 e. 아파서 핵고 우찌 가짓노?

이와 같이 ‘-나/노’는 용언 서술어에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명사 + 서술격 조사]의 체언 서술어에 추측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것-’과 회상을 나타내는 ‘-더-’가 개재되면 ‘-나/노’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③ a. 그기: 꿈이더나?
 b. 그기: 머이더노? (=그것이 무엇이더냐?)
 c. 이기: 머이것노?

여기서 의문사는 성조의 제약을 받는다. 이 지역어에서 의문사는 대체로 [MH]의 성조를 가질 때 의문사의 구실을 한다.

- ④ a. 오^[MH]대 가노?
 b. *오^[HM]대 가노?
 c. 오^[HM]대 가나?
 d. *오^[MH]대 가나?

(④.a.b)가 형태는 동일한데 (④.b)가 비문(非文)이 되는 것은 “오대”가 [MH]의 성조가 아니고 [HM]의 성조를 가져 의문사의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d)가 비문이 되는 것은 “오대”가 의문사의 성조 [MH]를 가져서 ‘-나’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어에서는 ‘-으끼가/으끼고’가 어미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으끼가/으끼고’는 본래 이 모두가 어미는 아니다. ‘-으끼가/으끼고’에서 ‘-으끼’는 ‘-르것이’에서 /스/이 삭제되어 ‘거이’로 되고, ‘거이’가 「기」로 되었다. 여기서 ‘-르’뒤에 ‘기’가 경음화되고, 다음에 ‘르’이 삭제되어, 어미로 굳어진 것이다.

‘으끼가/으끼고’는 동작 동사와 “있다(있다)”에 연결되어 청자가 서술의 동작을 할 것인지를 물을 때 쓴다. ‘-으끼가’는 의문사가 없을 때, ‘-으끼고’는 의문사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 ⑤ a. 집에 가끼가?

b. 오홀 집에 잇이끼가?

⑥ a. 지금 머: 하끼고?

b. 이 그물을 맹그러 가이고 무신 게이로 잡으끼고?

㉞ -(으)까/(으)꼬

동작 동사나 “있다”의 어간에 연결되어 화자 자신이 서술 동작을 해도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청자의 허락이나 지시를 요구할 때 쓴다. ‘-(으)꼬’는 의문사가 있을 때, ‘-(으)까’는 의문사가 없을 때 쓰이며, 이 경우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이어야 한다.

① a. 내하고 놀로 가까?

b. 지금 밥 무우까?

c. 이거 니 주까?

d. 내는 집에 이시까?

② a. 내는 무신 일보탕 면침 하꼬?

b. 올매나 무우꼬?

c. 내는 운재꺼정 집에 이시꼬?

그런데 ‘-(으)까/(으)꼬’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계사)에 연결되어 화자가 스스로 추측을 표시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서술어의 주어는 3인칭이어야 한다.

③ a. 이기: 약이까? (=이것이 약일까?)

b. 노는 기: 그리 좋으까? (=노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

④ a. 이기: 머:시꼬? (이것이 무엇일까?)

b. 가:가 누꼬? (=그 애가 누구일까?)

c. 이 비로 맞고 누가 가꼬? (=이 비를 맞고 누가 갈 것인가?)

위의 ‘-까/꼬’ 앞에는 그것과 밀착되어 있는 ‘-르’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기저형은 ‘-을까/을꼬’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르’ 뒤의 ‘-가/고’가 경음화되고, 다음에 ‘-르’가 삭제되는 음운 규칙의 적용을 받은 것이 된다.

㉟ -느냐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어근)에만 연결되어 현재 진행의 직접 의문을 나타낸다.

a. 지금 밥 묵느냐?

b. 옷 입느냐?

c. 게이 잡느냐? (=고기 잡느냐?)

‘-느냐’는 모든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간의 말음이 ‘르’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중에서 “묵-(食), 잡-(捕), 입-(被), 닦(洗), 꺾-(吸煙), 씻-(洗), 담-(潛, 侵), 볶(炒), 죽-(死), 놓-(産), 묻-(問), 줏-(拾), 씹-(咀), 박-(毆), 업-(負) ……” 등 현재 진행의 동작이 실현될 수 있는 어사에만 연결된다.

<5> -을래

‘-을래’ 는 청자가 서술의 동작을 할 것인지 의지를 타진하는데 쓰이며, 반드시 동작 동사와 형용사 “있다(有)” 에만 연결된다.

- a. 네엘 내하고 등산 갈래?
- b. 이거 니가 무을래?
- c. 이 만년필 니가 할래?
- d. 오을 집에 이실래?

<6> -재

‘-재’ 는 용언의 어간, 과거시제 ‘-았-’ 과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것-’ 등 용언 서술어에 연결되어 화자가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형식의 의문법에 사용되는 어미다. 그러므로 의문의 내용을 화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전제 때문에 이에는 의문사가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 ① a. 이 감을 니가 무엇재?
- b. 오을 날씨가 참 춥재?
- c. 어지 니가 우리 집에 왔재? (=어제 니가 우리 집에 왔지?)
- d. 네엘 비가 오것재?

또한 ‘-재’ 는 체언과 서술격 조사 등 체언 서술어에 연결되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물을 확인하려고 물을 때 쓴다.

- ② a. 이기: 서양 담배재?
- b. 저기: 농구 공이재?

또한 이 지역어에서는 ‘-을 것이재’ 가 ‘-으끼재’ 로 되어 어미로 굳어졌다. ‘-으끼재’ 는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어 화자가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형식의 의문법이다.

- ③ a. 네엘 놀로 가끼재?
- b. 이거는 니가 하끼재?

<7> -라, -니라

‘-라’ 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연결되어 체언 서술어로만 한정되어 쓰이고, 의문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쓰이며, 미지의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다.

- ① a. 이 안경 유리가 프라스틱이라?

b. 이기: 무선 전화기라?

c. 이기: 무선 나무라?

또 ‘-라’ 는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더-’ 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 에 선어말어미 ‘-더-’ 가 연결되는 경우인 ‘-더라’ , ‘았/엇더라’ 의 형태로도 쓰이며,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되어 쓰이는데, 이는 잘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한 회상 의문을 나타낸다.

② a. 그가: 무선 나무더라?

b. 그 사람 이름이 머:더라?

c. 나는 이 핵고 운재 줄옴했더라?

②의 경우와 같은 ‘-더라’ 대신에 ‘-니라’ 가 ③과 같이 수의적으로 쓰이는데, ‘-니라’ 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었-’ 에만 연결된다.

③ a. 그가: 무선 나무니라?

b. 그 사람 이름이 머: 니라?

c. 나는 이 핵고 운재 줄옴했니라?

<하계體>

‘자네’ 라고 부를 수 있는 수하(手下)나 평교간의 청자에 대한 의문법은 문헌상으로는 중세 국어에는 발견되지 않고, 근대 국어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지역어에서의 「하계체」 의문법은 처가의 어른들이 사위를 대하는 말이나, 장년기를 지난 사람을 대하는 이웃 어른들의 말에 쓰이는데, 점차 사용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다.

<▷ -는가/는고

‘-는가/는고’ 는 동사와 존재를 나타내는 형용사(있다. 없다(無), 계시다)의 어간과 ‘-더-’ 를 제외한 각종 선어말어미 뒤에 연결, 즉 용언서술어에 연결되는데 ‘해라체’ 의 ‘-가/고’ 처럼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는가’ 가, 있을 때에는 ‘-는고’ 가 쓰인다. 그러나 의문사가 있더라도 점차 ‘-는가’ 가 많이 쓰여져서 그 세력을 넓혀 나가는 경향이다.

① a. 박서방, 자아 가는가? (=박서방, 장에 가는가?)

b. 자네가 그 일을 하것는가?

c. 자네 어르신, 집에 계시는가?

d. 저녁 자식는가?

e. 은자 갈라는가? (=인제 가려는가?)

② a. 박서방, 지금 오대 가시는가? (or 가는가?)

b. 자네, 지금 누 집에 가는고? (or 가는가?)

c. 자네, 어지 머: 헛는고? (or 헛는가?)

◀ -은가/-은고

‘-은가/은고’ 는 존재를 나타내는 형용사 “있다. 없다” 를 제외한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더-’, ‘-을라’ 뒤에 연결되며,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은가’ 가,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은고’ 가 선택되나, 의문사가 있더라도 점차 ‘-은가’ 가 쓰여지는 경향이다.

- ① a. 이기: 자네 집인가?
 b. 통영은 경치가 좋던가?
 c. 자네는 오홀 차아 갔던가? (자네는 오늘 장에 갔던가?)
- ② a. 이기: 누 집인고? (=or 누 집인가?)
 b. 운재 또 올란고? (=or 올란가?)
 c. 이기: 머:신고? (=or 머:신가?)
 d. 그 집 쳐이 올매나 이뿐고? (or 이뿐가?) (=그 집 처녀 얼마나 예쁜가?)

‘-은가/은고’ 는 ‘해라체’ 의문법으로도 쓰인다. 이를 어원적으로 보면 관형사형 어미 ‘-은’ 에 의문 첨사 ‘-가/고’ 가 결합된 것이다.

‘-은가/은고’ 가 ‘하계체’ 로 쓰일 때에는 “자네” 라고 부를 수 있는 청자에게 물을 때 쓴다.

의문 어미 ‘-은가’, ‘-은고’ 는 경남방언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용법을 가진다. 첫째 구체적인 청자가 상정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 화자가 자신에게 의심과 의구를 제기해 보는 자문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이러한 용법으로 쓰일 때에는 ‘해라체’ 로 분류되어 왔다. 둘째, 간접 화법에서 간접 인용된 의문문의 어미로 쓰이고 의문문을 보문으로 요구하는 동사(예: ‘모루-’, ‘의심하-’, ‘궁금하-’ 등)가 보문 서술어일 때 그 보문의 어미로 쓰인다. 셋째, 공손법 등급으로 보아 ‘하계체’ 의문에 사용된다. 즉, 청자가 대명사 ‘자네’ 로 지칭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일 때 그 손아랫 사람에 대한 대우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예컨대, 어른이 장성한 아랫 사람을 어느 정도 대우해서 말하는 경우나 처가댁 어른들이 사위에게 대접해서 말할 경우에 이 어미가 쓰이는 것이다.

다음 (③.a.b)는 위의 첫째 경우에 해당한다.

- ③ a. 저기: 산인가?
 b. 이기: 머:신고?

우리는 여기서 ‘해라체’ 의 ‘-가/고’, ‘-은가/은고’ 와 ‘하계체’ 의 「-은가/은고」 가 어떻게 구별되어 사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④ a. 저기: 산이가?
b. 저기: 산인가?
c. 박서방, 저기: 산인가?

(④.a)는 ‘해라체’로 화자가 청자에게 ‘저것이 산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고, (④.b)는 화자 자신이 ‘저것이 산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문하는 ‘해라체’의 문문이다. 그리고 (④.c)는 ‘자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수하 존대로 ‘박서방, 저것이 산이냐, 아니냐’를 묻는 ‘하계체’ 의문문이다.

<하소體>

극존대인 ‘하이소체’를 쓰기 어려운 수상이나, 상대를 잘 모르는 청자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존대로 ‘하소체’가 이 지역에서는 쓰인다.

<1> -소/요

‘-소’와 ‘-요’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하여 자동 교체되는 이형태이다. 서술어의 어간 말이 /ㄹ/ 이외의 자음 아래서는 ‘-소’가 발생되고, 서술어의 어간 말이 /ㄹ/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요’가 발생한다.

- ① a. 지금 머: 목소?
b. 혼차 가것소?
c. 호홀은 무신 게이(=고기) 잡앗소?
② a. 오대 갖다 오요?
b. 저기: 유자 나무요?
c. 요새 놀고 있다 쿠드마는 우찌 사요?

기저형의 어간 말이 /ㄹ/인 동사에서 종결어미 ‘-소/요’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 ① a. 나는 밭을 가요.(나는 밭을 갑니다) b. 나는 고성에 사요.(나는 고성에 삽니다.)
② a. 밭을 가요? (=밭을 갑니까?) b. 당신은 오대 사요?
③ a. 밭을 가소. (=밭을 가십시오) b. 고성서 사소. (=고성에서 사십시오)

위의 (① a,b)는 평서법, (② a,b)는 의문법, (③ a,b)는 명령법이다.

<2> -은기요, -는기요, -으끼요

동남 방언에서는 대체로 불완전 명사 ‘것’에 서술격 조사(계사) ‘이-’가 연결되면 이것이 축약되어 ‘기’로 실현된다. ‘것이다’가 이 지역어에서 평서법 ‘해라체’는 ‘기다’(또는 ‘끼다’)로 실현되고, 의문법 ‘하소체’로는 ‘기요’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은 것이+요’는 ‘-은기요’로 ‘-는 것이 +요’는 ‘-는기요’로, ‘-을 것이+요’는 ‘-으끼요’로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 ① a. 오딘 가: 좋은기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이오?) b. 이 게이 냤은기요?
 ② a. 이기: 묵는기요?(=이것이 먹는 것이오?) b. 저 물건 파는기요?
 ③ a. 지금 공부 하끼요? b. 이거 누한테 주끼요?

㉞ -으까요/으꼬요 (-으까/으꼬+요)

‘헤라체’ 의문법 어미 ‘-으까/으꼬’에 청자 존대소 ‘-요’가 연결되어 ‘하소체’로 쓰인다.

- a. 은자 집에 가까요? (=이제 집에 갈까요?)
 b. 나는 운재 가까요? (or 가꼬요?)
 c. 나는 며: 하까요? (or 하꼬요?)

<하이소體>

[-하대, +존대]의 자질을 가진 청자에게 사용하는 극존대의 의문법이다.

<1> -읍니까/십니까

‘-읍니까/십니까’는 ‘헤라체’ 의문법 어미 ‘-가/고’, ‘-나/노’에 대한 극존칭 의문법 어미다.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읍니까’가 선택되고, 자음으로 끝나면 ‘-십니까’가 선택되는데, 이는 모든 서술어 어간과 ‘-더-’, ‘-느-’를 제외한 선어말어미 ‘-시-’, ‘-것-’, ‘-올라-’에 연결된다. 극존칭의 경우에는 존칭 선어말어미 ‘-시-’를 어간 다음에 연결시키고, 그 뒤에 다른 선어말어미를 연결시키며 마지막에 이 의문법 어미를 연결시킨다.

- ① a. 지금 오대 잡니까?
 b. 거어서 며 : 잡십니까? (=거기서 무엇을 잡습니까?)
 c. 날도 어두운대 지금 가것십니까?
 d. 은자 가실랍니까?

(①a)는 ‘가 + 읍니까’, (①b)는 ‘잡 + 십니까’, (①c)는 ‘가 + 것+ 십니까’, (①d)는 ‘가 + 시+ 올라 + 읍니까’로 분석된다.

㉞ -읍디까/십디까

이는 청자로 하여금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을 요구하는 어미다. 이 의문법 어미 앞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가 모음으로 끝나면 ‘-읍디까’가 연결되고, 자음으로 끝나면 ‘-십디까’가 연결되는데, 모든 서술어 어간과 선어말어미 ‘-시-’, ‘-것-’, ‘-올라-’에 연결된다.

- ② a. 철수는 오대 간다릅디까? (=철수는 어디 간다고 합디까?)
 b. 밥을 잘 묵십디까? (=밥을 잘 먹습디까?)
 c. 우라부지가 그리 하십디까? (=우리 아버지가 그리 하십디까?)
 d. 그 일을 하것십디까? (=그 일을 하겠습디까?)
 e. 그 어른도 함께 가실랍디까? (=그 어른도 함께 가시려고 하십디까?)

위에서 ②a)는 ‘쿠 + 읍디까’, ②b)는 ‘묵 + 십디까’, ②c)는 ‘하 + 시 + 읍디까’, ②d)는 ‘하 + 것 + 십디까’, ②e)는 ‘가 + 시 + 올라 + 읍디까’로 분석된다.

여기서 ‘-읍디까/십디까’의 ‘디’는 회상 선어말어미 ‘-더-’와 존대소 ‘-이-’가 축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명령법(命令法)

회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을 명령법이라 한다. 명령법 어미는 동사와 존재형용사 “있다, 계시다”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시-’에만 연결된다.

<해:리體>

◁1> -아라(-어라), -거라, -니라.

- a. 거어 좀 앉아라. (=거기 좀 앉아라.)
 b. 꾸무대애지 말고 퍼떡 핵고 가아라. (=구물거리지 말고 빨리 학교에 가거라.)
 c. 이 그릇을 실경에 엎어라. (=이 그릇을 시렁에 엎어라.)
 d. 거어 좀 앉거라. (거기 좀 앉아라.)

여기서 “-거라”는 “가다, 자다, 잇다(有), 서다, 일어나다, 앓다, 눅다(臥)” 등의 동사에만 쓰이는데 이 경우 “-아라(-어라)”도 함께 쓰인다.

“-니라”는 “오다(來)”란 동사에만 쓰이는데 이때 “-니라”는 “ㄴ”이 삭제되면서 앞의 어간과 함께 비모음화하기도 하고 “ㄴ”이 바로 삭제되기도 한다.

- e. 철수야 이리 오~라.(오이라) (=철수야 이리 오너라.)

◁2> -으라모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어 아랫사람에게 시키거나 의사가 있으면 해 보라는 뜻으로 쓰인다.

- a. 무올라쿠거든 무우라모. (=먹으려고 하거던 먹으려무나)
 b. 이리 오라모. (=이리 오려무나.)

<하계體>

<1> -게

동사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시-’ 에 연결된다.

- a. 자네는 내 말만 믿게.
- b. 식기 전에 드시게
- c. 이 일은 자네가 좀 하게
- d. 어서 오시게

<2> -자

‘-자’는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명령법 어미인데, 이는 청유법 어미 ‘-자’에서 전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끝에 [j]를 덧붙여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a. 잘 가자 (j)
- b. 은자 고만 자자 (j) (=이제 그만 자자.)

<하소體>

<1> -으소

- a. 나만 믿으소.
- b. 췌히 가소.(속히 가시오.)
- c. 체면 체리지 말고 마이 무으소.(=체면 차리지 말고 많이 먹으오.)
- d. 자리 좀 앉으소.

<하이소體>

<1> -으이소, -으시이소

- a. 이리 오시이소.
- b. 손으로 꼭 움키 잡으이소.(잡으시이소)(=손으로 꼭 움켜 잡으십시오.)
- c. 그르으 담으이소. (=그릇에 담으십시오.)

(4) 청유법(請誘法)

청유법 어미는 동사와 존재형용사 “있다”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으시-” 다음에만 연결된다.

<해:리體>

<1> -자(또는 -caj)

- a. 내하고 함께 놀로 가자.(가자이) (=나와 함께 놀러 가자.)
- b.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ㅁㅁ이 잇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하계體>

<1> -으세

- a. 내하고 함께 놀러 가세.
- b. 쪽는 썸 치고 한분 믿어 보세. (=속는 썸 치고 한번 믿어 보세.)

<하소體>

<1> -읍시다

- a. 내하고 함께 놀시다.
- b. 여어 좀 앞읍시다. (=여기 좀 앞읍시다)

<하이소體>

<1> -으입시다.

- a. 오을 진주 놀로 가입시다. (=오늘 진주에 놀러 가십시다.)
- b. 사진 한 장 찍으입시다.

2) 연결어미(連結語尾)

둘 또는 그 이상의 구절을 접속시켜 그들의 관계성을 규정해 주는 어미를 연결어미라 한다. 연결어미의 분류는 2분법에서 14분법까지 다양한 형식이 있으나, 여기선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이 지역어에서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를 나열한다.

<1> -으께내, -은께내

이는 표준어의 “-으니까”에 해당하는 말로 동사, 형용사 어간에 연결되어, 어떤 사실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 상황 등을 나타낸다. “-으께내”와 “-은께내”는 수의적으로 쓰인다.

- a. 내가 거어 간께내 그 사람이 있더라.(=내가 거기 가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
- b. 비가 온께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 c. 바람이 분께내 날이 칩다.(=바람이 부니까 날이 춥다.)
- d. 조은 옷을 입은께내 기부이 좋다.(=좋은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좋다.)

<2> -아서(-어서)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 a. 기부이 조아서 죽겠다.(=기분이 좋아서 죽겠다.)
- b.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3> -결래

이는 표준어 “-기에”에 해당한다.

- a. 니가 하걸래 내도 안 했나.(=너가 하기에 나도 안 했나.)
- b. 비가 오걸래 고만 돌아 왔다.(=비가 오기에 그만 돌아 왔다.)

<4> -으몬

이는 표준어 “으면”에 해당한다. 용언의 어간, 서술격 조사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을라-’에 연결되어 가상적 조건을 나타낸다.

- a. 니가 가몬 내도 간다.(=네가 가면 나도 간다.)
- b. 이기 금이몬 울매나 좋겠노? (=이것이 금이면 얼마나 좋겠나?)

<5> -을라몬, -라몬

“-을라몬”은 용언의 어간에, “-라몬”은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연결되어 가정을 나타낸다.

- a. 갈라몬 가아라.(=가려면 가거라.)
- b. 이기 금이라몬 울매나 좋겠노? (=이것이 금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6> -거든, -거들랑

- a. 집에 가거든 편지 해애라. (=집에 가거든 편지해라.)
- b. 집에 가거들랑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라이. (=집에 가거든 아버지께 안부 전해라.)

<7> -아야(-어야)

- a. 집에 가야 돈을 가야 온다. (=집에 가야 돈을 가지고 온다.)
- b. 밥을 무우야 산다. (=밥을 먹어야 산다.)

<8> -지마는

- a. 가보기는 가보지마는 일이 텔란가 모리겠다. (=가보기는 가보지만 일이 될는지 모르겠다.)
- b. 나락은 잘 테엿지마는 소출이 음따.(=벼는 잘 되었지마는 소출이 없다.)

<9> -을란가, -을란지

표준어 “-는지”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어 막연하게 의심을 나타낸다.

- a. 일이 잘 텔란가(텔란지) 모리겠다.
- b. 내가 음스몬 겐창을란가(겐창을란지) 모리겠다. (=내가 없으면 겐창을는지 모르겠다.)

<10> -아도(-어도)

- a. 암만 바아도 모리겠다.
- b. 손에 지이 조오도 모린다.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른다.)

<11> -은따나, -으나따나

선행절의 내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행절의 내용은 최소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 a. 늦게 온따나(오나따나) 그거 해 가야꼬 오이라. (=늦게 오더라도 그것 해 가지고 오너라.)
- b. 얼굴이 몬 생겼인따나 마암씨나 이뿌몬 좋겠다. (=얼굴이 못 생겼더라도 마음씨나 예쁘면 좋겠다.)

<12> -을수록

- a. 이 일은 더덜수록 좋다.
- b. 갈수록 태사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13> -두룩

- a. 집을 몬 짓두룩 해방을 나아서는 안덴다. (=집을 못짓도록 방해해서는 안된다.)
- b. 폭 쌈기두룩 불을 때애라.

<14> -으로

동사 어간과 선어말어미 ‘-으시’ 에 연결되어 목적을 나타낸다.

- a. 밥 무우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 b. 오올 저너어 우리 집에 놀로 오이라. (=오늘 밤에 우리집에 놀로 오너라)

<15> -으나마나

- a. 보나마나 한가지다.

<16> -든지, -든가

이 “-든지” 와 “-든가” 는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

- a. 가든지 말든지 네 마암대로 해애라.=가든가 말든가 네 마암대로 해애라.
- b. 가든가 말든가 나 도오라. (=가든가 말든가 놓아 두어라)

<17> -그로

선행 구절의 행동을 성취하기 위하여 후행 구절의 동작을 요구하는데 쓰는 어미다.

- a. 공부하그로 나아 도오라. (=공부하게 놓아 두어라.)
- b. 놀로 가그로 퍼떡 옷 입어라. (=놀러 가게 빨리 옷 입어라.)

<18> -음시로

이는 표준어 “-으면서” 에 해당한다.

- a. 공부함시로 자불몬 데나. (=공부하면서 졸면 되나.)
- b. 핵고 갖다 음시로 큰집에 가서 고오매 줌 얻어 오이라.
(=학교에 갔다 오면서 큰집에 가서 고구마 줌 얻어 오너라.)

<19> -다가

- a.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었다.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었다.)
- b. 병이 낫았다가 또 도졌다. (=병이 나았다가 또 도졌다.)

3) 전성어미(轉成語尾)

전성어미란 용언 이외의 다른 기능을 함께 가지는 어미를 말하는데, 이에는 부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

(1) 부사형 어미

<1> -아(-어)

- a. 통일벼로 한 밥인데 무운 분께내 맛이 우쁜노.
(=통일벼로 한 밥인데 먹어 보니까 맛이 어쩡나.)
- b. 배 타고 가서 게이 좀 낚안 오이라. (=배를 타고 가서 고기 좀 낚아 오너러.)

<2> -기

- a. 니가 거어 가기 데엿나.(=너가 거기에 가게 되었나?)
- b. 그 일 좋기 해결테엿다.(=그 일은 좋게 해결되었다.)

<3> -지(-저)

- a. 니는 거어 가진(가저)마라. (=너는 거기 가지 마라.)
- b. 이 떡은 묵지(묵저)마라.

<4> -고

- a. 저어 말이 떠이 오고 잇다.(=저기 말이 뛰어 오고 있다.)
- b. 머 하노? 공부하고 안 잇나.

(2) 명사형 어미

이 지역어에서의 명사형 어미에는 “-기” 만 있고, “-음” 은 없다.

<1> -기

- a. 놀기만 조아하몬 몬 찰다. (=놀기만 좋아하면 못 찰다.)
- b. 여어는 참 놀기 좋다. (=여기는 참 놀기 좋다.)

(3) 관형사형 어미

<1> -는

- a. 가는 사람이 있어야 오는 사람이 있다. (=가는 사람이 있어야 오는 사람이 있다.)
 b. 자는 아아를 깨배지 말아라. (=자는 아이를 깨우지 말아라.)

◁ -은

- a. 노푼 남개 올라 가지 마라. (=높은 나무에 올라 가지 마라.)
 b. 지푼 물에 디가지 마라.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

◁ -을

- a. 은자 더 을 사람이 음것재. (=인제 더 을 사람이 없겠지.)
 b. 무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

4)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보통 보조 어간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존대, 시제, 추측, 의도를 나타내는 것만을 선어말어미로 취급한다.

(1) 존대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으시-”가 있다. 이는 아주 높임(하이소체), 예사높임(하소체)의 대우(待遇)를 받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사낮춤(하계체)의 대우를 받을 사람에게도 쓰는 수가 있다.

◁ -으시-

- a. 박서방, 이거 좀 드시게.
 b. 이 나무는 마다아 심으시몬 땀니다. (=이 나무는 마당에(뜰에) 심으시면 땀니다.)

(2) 과거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앗(-엇)-”이 있는데, 이는 용언의 어간(서술격 조사 포함)과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시-”에 연결된다.

◁ -앗(-엇)-

- a. 수건을 가지고 입을 틀어 막앗다. (수건을 가지고 입을 틀어 막었다.)
 b. 나는 밥 무엇다. (=나는 밥 먹었다.)

“무엇다”는 “묵엇다”(食)에서 /ㄱ/ 삭제, 완전순행동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표준어의 “떡다”는 이 지역어에서 “묵다”로 재구조화되었다.

(3) 회상 시제

회상시제 어미로는 ‘-더-’가 있는데, 이는 회상을 나타내는 일 이외도 과거사실에 대한

보고, 또는 단순한 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형태소는 선어말어미의 서열상 가장 어미에 접근한다.

<1> -더-

- 철수는 에갓집에 가더라. (=철수는 외갓집에 가더라.)
- 니 어지 오대 갓더노? (=너 어제 어디 갔더냐?)
- 이기 내가 탱기던 핵고 아이가. (=이것이 내가 다니던 학교다.)

(4) 추측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에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용언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으시-’, ‘-앗(엇)-’ 등에 연결된다.

<1> -것-

- 오을 정때는 비가 오것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오겠다.)
- 이 문제는 선생님도 모르시것다.
- 이 소식을 친구한테서 들었것다.

(5)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에는 ‘-을라-’가 있는데, 이는 동사와 존재형용사 “있다, 계시다”와 선어말어미 ‘-으시-’에만 연결된다.

<1> -을라-

- 은자 고만 집에 갈라다. (=이제 그만 집에 가려다.)
- 철수가 극장 앞에서 지다릴라꼬 했다. (=철수가 극장 앞에서 기다리려고 했다.)
- 아부지가 집에 계실라가 모리것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실는지 모르겠다.)

2. 곡용(曲用)

곡용 어미에는 격어미와 후치사(후치사는 흔히 보조사로 일컬어진다)가 포함된다.

1) 격어미

(1) 주격

<1> -이/-가

다른 지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주격어미다.

- 비가 온다.
- 배가 아프다.
- 날이 샌다.
- 바람이 분다.

“-이/-가”는 표준어에서와 같이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70대 이상의 화자에게서 “-이”가 연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가” 주격어미 생성 이전의 잔재인 듯하다.

- a. 느그 웨가(에가)이 오디고? (=너의 外家가 어디인가?)
- b. 그 사람 처가(인) 어이더라? (=그 사람 妻家가 어디더라?)

◁ -에서, 서

“-에서”는 “나라, 정부, 학교...” 등 집단을 나타내는 체언에 연결된다.

- a. 우리 핵교:서 이겠다. (=우리 학교가(에서) 이겠다.)
- b. 나라:서 하는 일이다. (=나라가(에서) 하는 일이다.)

(2) 관형격

◁ -으

- a. 그 놈으 자식 때민애 문 살것다.(=그 놈의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 b. 느그 집→느으 집(너의 집), 즈그 집→즈으 집(자기의 집)

◁ -우

- a. 넘우 집(=남의 집)
- b. 달구똥(←닭우똥) (= 닭의 똥)

이는 체언의 말음이 순음, 연구개음 등의 [tgrave] 자질을 가질 때 “-으-”가 “-우”로 변환 것이다.

(3) 목적격(대격)

목적격 어미에는 “-을, -로”가 있다. “-을”은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쓰이며, 모음과 “ㄹ”로 끝날 때는 대체로 “-로”가 쓰인다.

◁ -을

- a. 옷을 입어라.
- b. 감나무우 올라가서 감을 따 오이라.(=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 오너라.)

◁ -로

- a. 세로 물고 간다.(=소를 물고 간다.)
- b. 물로 먼침 묵고 밥을 무우라.(=물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라.)
- c. 아버지한테는 쳐어서 절로 해라.(=아버지께는 칭에서(마루에서) 절을 해라.)

그러나 목적격어미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a. 세∅ 물고 간다.(=소를 물고 간다.)
- b. 밥∅ 묵고 오이라.(=밥을 먹고 오너라.)
- c. 자아 가서 세게이∅ 사 오이라.(=장에 가서 쇠고기를 사 오너라.)

(4) 처격(處格)

처격을 표시하는 어미에는 “-애”가 있다. 그러나 40대 이하의 화자는 표준어의 간섭을 받아 “-에”로 바뀌어 가는 듯하다.

<1> -애

- a. 철수는 즈그(즈으) 집애 갔다.(=철수는 저의 집에 갔다.)
- b. 멘(面)애 가서 호적초본 떼 오이라.

그런데 이 “-애”는 “ㄱ, 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연결되면 완전순행동화를 한다.

- a. 압딱(山) + 애 → 압따아
- b. 저녁(夕) + 애 → 저녁어
- c. 장(市場) + 애 → 자아
- d. 지봉 + 애 → 지부우
- e. 질가(路邊) + 애 → 질가아
- f. 나무(木) + 애 → 나무우

처격어미 뒤에는 후치사 “-서, 도, 다(가)” 등이 연결된다. 후치사 “-서”와 결합된 “-에서”는 재격(在格)의 의미를 가지지만 시발격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5) 조격(造格)

조격을 표시하는 어미는 “-으로”뿐이다. 조격어미는 기구, 재료, 자격, 수단, 원인, 향진(向進), 정도, 변성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표시하는데 쓰인다.

<1> -으로/로

- a. 콩으로 메주를 찐다.
- b. 이 집은 나무로 지었다.
- c. 진주로 놀로 간다.
- d. 나는 이 자리에 군수 대리로 참석했다.
- e. 우짤 일로 왔노?
- f. 얼음이 물로 텐다.

조격어미 “-으로”가 기구, 재료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으로”와 함께, 목적격어미 “-을/로” + 후치사 “가지고(가이고)”와 같은 형식이 이 지역어에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 a. 콩으로 메주를 찐다 → 콩을 가지고(가이고) 메주로 찐다.
- b. 이 집은 나무로 지었다. → 이 집은 나무로 가이고 지었다.
- c. 팽이로 땅을 파라 → 팽이로 가이고 땅을 파라.

이 “로 가지고” 는 “-로 가이고” 또는 “-로 가야꼬” 로도 실현된다.

(6) 공동격(共同格)

표준어의 공동격 “-와/과” 는 이 지역어에서 존재하지 않고, “-하고, 강” 등 후치사가 이를 대신한다.

<1> -하고, -강,

- a. 책하고 엔필 가야 오이라. (=채과 연필을 가지고 오너러)
- b. 책강 엔필 가야 오이라. (=채과 연필을 가지고 오너러)
- c. 니강 내강 함께 놀로가자. (= 너하고 나하고 함께 놀러가자.)

(7) 호격(呼格)

호격은 표준어와 같이 “-아/야” 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선행 체언이 <+유정, -존대>의 의미 자질을 가질 때 사용된다.

<1> -아/야

- a. 철수야, 네 지금 머 하고 잇노?
- b. 영숙야, 이리 퍼떡 오이라.

손윗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에 합당한 칭호를 부른다.

- a. 아버지, 엄마가 오시라 큘니다. (=아버지, 엄마가 오시라고 합니다.)
- b. 교수님, 요분 시험은 오대서 큘니까. (=교수님, 이번 시험은 어디서 큘니까.)

2) 후치사(後置詞)

(1) 여격(與格) 표시

이 지역에서는 여격어미 “-에게” 나 존대를 나타내는 여격어미 “-께” 가 존재하지 않고, 여격은 후치사에 의하여 표시된다. 여격표시 후치사에는 “한테” 와 “보고” 가 있다. 이 후치사에 선행하는 체언은 [+유정] 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1> 한테

- a. 우리부지한테 물어 보께이.(=우리 아버지께 물어 보마.)
- b. 철수한테 놀러 가자.
- c. 개한테 물렀다. (=개에게 물렀다)

후치사 “한테” 는 그 뒤에 다시 후치사 “서, 는, 만, 도, 꺼정” 등이 연결될 수 있다.

- d. 이 말은 니한테서 안 들었나?

- e. 니한테는 돈 가졌다. (=너에게는 못 가졌다.)
- f. 철이한테만 비이(=보여) 조오라. (=철이에게만 보여 주어라.)
- g. 철수가 니한테도 왔더냐? (=철수가 너에게도 왔더냐?)
- h. 내한테까지 오긴가? (=나에게까지 올 것인가?)

◁ 보고

- a. 누가 니보고 거들어 주라 캬나? (=누가 네에게 거들어 주라고 했나?)
- b. 아버지보고 그런 말 하몬 안덴다. (=아버지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보고”가 언제나 여격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의 선행체언의 의미상 주어가 되기도 하고, 선행체언의 지위나 체면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a. 철수보고 갔다 주라 캐애라.
- b. 니보고 받는 기다. (*안 받을 것을 네 체면을 보아서 받는 것이다 라는 뜻)

(2) 공동격 표시

이 지역어에는 표준어의 공동격 어미 “와/과”가 존재하지 않고, 후치사 “하고, 캬, 이랑” 등이 이 기능을 대신한다. 여기서 “하고”가 세력이 가장 우세하고, “캬, 이랑”은 조금 쓰일 따름이다.

- a. 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 b. 친구하고 놀다가 싸우몬 안 덴다. (=친구와 놀다가 싸우면 안 된다>)
- c. 철수는 영수하고 놀로 갔다.
- d. 나는 내캬(내하고)같이 가자.
- e. 니랑, 내랑, 같이 잇자.

(3) 비교 표시

비교를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하고, 거치, 메이(로), 만치(마침), 보당” 등이 있다.

◁ 하고

- a. 자아는 즈 새이하고 영 판판이다. (=저 아이는 제 형과는 영 판판이다.)
- b. 나는 니하고 안 다리나.

◁ 거치, 메이(로)

- a. 나는 내거치 하겠나.
- b. 나는 내메이로 하겠나.

◁ 만치(마침)

- a. 철수는 지금 오대만치(마침) 갓실꼬. (=철수는 지금 어디만큼 갔을까?)

<4> 보당

- a. 내보당 니가 심이 더 안 세나. (=나보다 너가 힘이 더 안 세나.)
- b. 철수보당 영수가 공부를 잘한다.

(4) 시발 표시(始發表示)

행위, 상태, 시간, 장소 등 시발점을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보탕” 이 있다.

<1> 보탕

- a. 네보탕 먼침 해애라. (=너부터 먼저 해라.)
- b. 옥보탕 먼침 해 놓고 말로 하나. (=옥부터 먼저 해 놓고 말을 하나?)
- c. 핵교보탕 갖다 오이라.
- d. 운재보탕 니가 그리 노푸기 데엿노.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높게 되었나?)

(5) 도착 표시(到着表示)

행위, 시간, 장소, 상태 등의 도착점을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꺼정” 이 있다.

<1> 꺼정

- a. 보골이 나서 그 말꺼정 다 했다. (=화가 나서 그 말까지 다했다.)
- b. 네는 운재꺼정 그 일을 다 하꿏고.
- c. 니는 오대꺼정 가꿏고.
- d. 요렇게꺼정 안해도 데는데...

이 “꺼정” 은 의미가 확대되어 첨가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 a. 나꺼정 잡아 여얼래. (=나까지 잡아 넣을래.)
- b. 바람이 데에기 부는데 비꺼정 퍼붓는다. (=바람이 몹시 부는데 비까지 퍼붓는다.)

(6) 선택 표시(選擇表示)

선택을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도, 이나, 만, 백기(뺨기)” 등이 있다.

<1> 도

- a. 눈이 어드배서 아무것도 안 비인다.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2> 이나

- a. 노네이(=노느니) 공부나 좀 해애라.

<3> 만

- a. 구꺽(기꺽)만 하지 말고 네도 좀 해애라. (=구꺽만 하지 말고 너도 좀 하여라.)
- b. 잠만 자지 말고 공부 좀 해애라.

<4> 백기(백기)

- a. 저 사람은 제백기 모른다. (=저 사람은 제뵈에 모른다.)

(7) 불만 표시(不滿表示)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인따나(이나따나)” 가 있다.

<1> 인따나(이나따나)

- a. 죽인따나(죽이나따나) 줌 드이쇼. (=죽이나마 줌 드세요.)
 b. 키는 작아도 살인따나 줌 찢으몬 올매나 좋것노.

(8) 고사 표시(姑捨表示)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엉뚱한 결과나, 기대 이하의 것이 일어남을 표시하는 후치사에 “커이” 가 있다.

<1> 커이

- a. 쌀은커이 보오살(=보리쌀)도 음따. (=쌀은커녕 보리쌀도 없다.)

(9) 주제(主題) 및 대조 표시(對照表示)

주제 및 대조를 표시하는 후치사에는 “은/는” 과 이를 강조하는 “야, 사” 가 있다.

<1> 은/는

- a. 네는 오늘 머 하끗고? (=너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b. 요새 농촌 사람들은 참 바뿌다.
 c. 나무는 씨언찰거마는 끝은 이뿌다. (=나무는 시원찰건마는 꽃은 예쁘다.)

“은/는” 은 처격, 조격 등 격어미와 다른 후치사에 잘 연결된다.

- a. 요새 구포에는 배가 참 마이 난다 쿠더라.
 b. 아버지한테는 그러쿠지 말아라. (=아버지께는 일러 주지 말아라.)
 c. 은자 네하고는 말도 안하끼다. (=이제 너하고는 말도 안 할 것이다.)
 d. 네만치는 몬 하카이.
 e. 네엘꺼정은 이 일로 다 해야 한다. (=내일까지는 이 일을 다 해야 한다.)

<2> 야, 사

- a. 요새야 오대 그런 사램이 있나?
 b. 내사 거어 몬 가겏다. (=나는 거기 못 가겏다.)

(10) 일양 표시(一樣表示)

하나도 빠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룬다는 의미로 쓰이는 후치사에 “마당” 이 있다.

<1> 마당

- 자아는 저녁마당 모실간다. (=저 애는 밤마다 나들이 한다.)

(11) 균일 표시(均一表示)

모든 것에 균일하게 어떻게 함을 보이는 의미로 쓰이는 후치사에 “씩” 이 있다.

<1> 씹

- a. 한참에 다 묵지 말고 하리 한 개씩 무우라.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하루 한 개씩 먹어라.)
- b. 한 사람이 다섯 개씩 가야 가아라. (=한 사람이 다섯 개씩 가지고 가거라.)

(12) 단독 표시(單獨表示)

다른 것과는 달리 홀로 어떠한 함을 보이는 의미로 쓰이는 후치사에 “만” 이 있다.

- 구경(기경)만 하지 말고 네도 좀 거들어라.
- 내는 아들만 너이 나았다. (=나는 아들만 넷 낳았다.)

V. 어휘(語彙)

어휘의 기술(記述)은 어휘 목록을 작성하고 조어론적(造語論的)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또 통시론적으로 고찰하면 대부분 음운론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고성지역어에서 특징 있는 어휘를 유형별로 몇 개씩 들고, 필자가 채집한 어휘 자료를 따로 붙인다.

1. 중간 자음을 유지하고 있는 어휘

1) ㅂ 유지 어휘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갈방니	가랑니	달비	다리
갈비	솔가리	니비	누에
고방	광	데불로	데리러
구분다	굴린다	따바리	또아리
깨반하다	개운하다	몰밤	마름
깨배다	깨우다	미자발	미주알
새비	새우	버부리	병어리
새빳대	(셋대)역새	자불음	줄음
우봉	우윙	찌불어지다	기울어지다
이박	이야기	호박(臼)	확
일바신다	일으킨다	호부래비	홀아비
자분다	즌다	호부래미	홀어미

2) ㅅ 유지 어휘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가새	가위	가실	가를
나사이	냉이	여시	여우
모시	모이	무시	무우
모실	마음	지심	김

3) ㄱ 유지 어휘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달개다	달래다	벌거지	벌레
돌가지	도라지	실경	시렁
머구	머위	얼기미	어레미
바구	바위	얼기빳	얼레빳

2. 경음화(硬音化)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까치	가지	뿐디기	번데기
갈치	갈치	빠가리	병아리
강새	강샘	빠들끼	비들기
깨고리	개구리	씨언ㅎ다	시원하다
꼬도밥	고두밥	쭈시	수세미 수수
꼬랑내	구린내	짤래비	잘래비
꼭감	곶감	쭈기	줄기
꾸깨다	구기다	찌린내	지린내
따답이	다듬이	찍개	집게

3. 격음화(激音化)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카지	가지	팽풍	병풍

4.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再構造化)

1) 체언말음 ㅈ→ㅌ의 재구조화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꿀	꽃(花)	을	웃
낱	낯(面)	울	웁
빛	빛(光)	슬	숯

공통어의 체언말음 “ㅈ”은 모두 “ㅌ”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어에는 “ㅈ”으로 끝난 체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체언말음 ㅈ→ㅊ의 재구조화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젼	젯	빈	빳

3) 어간말음 ㅂ→ㅅ의 재구조화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눅다 꿇다	눅다 굽다	줏다	줍다

어간말음에 “ㅂ”을 가진 어휘 중에서 “눅다(臥), 굽다(灸), 줍다(拾)등 세 어휘는 이 지역어에서 “눅다, 꿇다, 줏다”로 재구조화하였다.

5. 음운도치(音韻倒置)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갈딱질	딸꾹질	버꿈	거품

6. 음운삭제(音韻削除)와 축약(縮約)

고성지역어	공통어
개작대이	개화작대기
개쭈미	개화쭈머니
느아부지 (←느가부지 ←느그 아버지)	너의 아버지
만다꼬	무엇한다고
머라쿠노	무엇이라고 하느냐
앵뽑다	아니뽑다
우라부지	우리 아버지

7. 기타(공통어와 연결이 되지 않는 어휘)

고성지역어	공통어	고성지역어	공통어
강구	바퀴벌레	서답	빨래
까꼬막	오르막길	소도방	소댕, 솔뚜껍
까드립다	까다롭다	소풀	부추
대라지다	언행이 뻘지르르하다. 건방지다	솔빵	몽땅
들금	사태가 난 곳	용구리, 용구락	장작이 타고 난 뒤 이글이글 타는 숯불
매착	주견(主見), 일의 순서	이깎	미끼
머러쿤다	나무란다	정기, 정지	부엌
모독짚다	불편하다	차리밧다	장난기가 많다
모들띠기	모두	씨;럭	두루, 모두
모태	석쇠	야순다	겨눈다
몽창시리	매우	얹딱	산(山)
반주깨	소꿉질	영, 영장	벼랑
보골	부아	옷담	옷 마을
신발이	그리마	추달	심문
셋통	자물쇠	칼클ㅎ다	깨끗하다
셋대	열쇠	콩깃개	공기(놀이의 一種)
복새	노을	타개다	답다
보죽	썰기	통태	바퀴, 굴렁쇠
불기	새끼를 못 낳는 가축의 암컷	해애기	새 패기
빼다지	서랍	허들	엄살

8. 어휘 자료

[가]

가각중, 가악중	㉑ 갑자기
가근방	㉒ 가까운 근방(近方)
가다다	㉓ 가두다
가대기, 가데이	㉔ 초라하고 조그마한 집, →갯가데이 (=재를 모으는 조그마한 집) →통시가데이 (=변소를 만든 조그마한 집)
가락	[의명] 낫(鎌)을 헤는 단위
가래이, 가래이	㉕ 가랑이, 다리(肢)
가름	㉖ 좋은, 아끼는, 고운, →가름 아들(=아들 중에 가장 아끼는 아들) →가름 옷(=나들이할 때 입는 고운옷)
가리	㉗ 가루(粉)
가리	㉘ 가로(橫)
가리	㉙ 어리. 병아리 따위를 가두어 기르기 위하여 싸리 등의 가는 나무로 채를 엮어서 둥글게 만든 것
가리늦가	㉚ 뒤늦게
가리매, 가르매	㉛ 가리마
가리토시	㉜ 가래뿔[淋巴腺腫]
가린다	㉝ 나눈다
가마이	㉞ 가마니
가:말다	㉟ 아직 멀었다. 아직 모자라다
가매	㊱ 가마(旋毛)
가매	㊲ 가마(乘輜)
가매, 가매술	㊳ 가마(釜)
가무살	㊴ 가문(旱) 기운
가무치	㊵ 가물치
가물티리다	㊶ 빠다
가부, 가보	㊷ 과부(寡婦), 홀어미
가새	㊸ 가위
가수나, 가수내	㊹ 여자 아이
가실, 가알	㊺ 가을(秋)
가실한다	㊻ 가을한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는 일
가아오다	㊼ 가져오다
가안팍	㊽ 가운데 마을
가안때, 가잇대, 가인때	㊾ 간것대
가알	㊿ 가을(秋)
가알한다	㊱ 가을한다
가웃	㊲ 가웃; 되, 말, 차의 수를 셀 때 쓰는 반분.
가이방상하다	㊳ 엇비슷하다
가재미	㊴ 가자미
가재이	㊵ 가지(枝)
가적다, 개적다	㊶ 가깝다
가참다	㊷ 가깝다
가촉	㊸ 관리, 보살피는 짓, 돌보는 일
가씬가씬하다	㊹ 거의 닿일 듯하다
간	㊱ 소금기.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간난아	㊲ 갓난 아기

간띠이	ㄹ 간(肝), 간 텅어리
간술	ㄹ 관술
간수물, 초물	ㄹ 소금 녹인 물
간십	ㄹ 간섭(干涉)
간주	ㄹ 계산
간주대다	ㄹ 계산하다, 품삯을 계산하다
간주루마이	ㄹ 가지런히
간주룸하다	ㄹ 가지런하다
간초	ㄹ 초가집의 옆쪽에 붙여 달아낸 방이나 헛간
간풀다	ㄹ 난폭하다, 행동이 거칠다
갈가마귀	ㄹ 갈가마귀
갈개	ㄹ 논외의 경계를 짓거나 찬물 등이 벗논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좁고 가늘게 만든 둑
갈다	ㄹ 경작하다
갈라 목다	ㄹ 나누어 먹다
갈롱	ㄹ 옷 입기에 멋을 내려 하고, 얼굴 모양에 신경을 쓰는 일
갈롱지이다	ㄹ 멋을 부리다
갈리:다	ㄹ 바퀴에 치다
갈방니	ㄹ 가랑니
갈비	ㄹ 숭가리 (소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잎)
갈빗대	ㄹ 갈비뼈
갈세	ㄹ 팔시
갈아묵다	ㄹ 경작하다
갈아주다	ㄹ 물건을 사 주다.
갈다	ㄹ 맞서다, 대적하다, 보복하다
감시이	ㄹ 감성돔
갑작시리	ㄹ 갑작스레
갓	ㄹ 산(山), 산판
갓뚝띠기, 갓뚝띠이	ㄹ 실속없이 겉으로만 똑똑한 사람
갓신하문	ㄹ 자칫하면, 하마터면
강	ㄹ 바다
강구	ㄹ 바퀴벌레
강기, 개짓머리	ㄹ 감기
강기가 올랐다	[구] 감기가 유행했다.
강내이, 강네이	ㄹ 옥수수
강세이, 강생이	ㄹ 강아지
강연, 송진연	ㄹ 구리빛 나는 매우 여문 엷
강저리	ㄹ 광주리
강정, 산제	ㄹ 강정
개겁다, 개급다	ㄹ 가볍다
개고랑	ㄹ 개울
개꿀	ㄹ 철쭉과의 꽃으로 우리 나라의 산에 자생하는 것으로 잎이 피고나서 꽃이 피며 먹지 못함
개떡	ㄹ 겨(糠)로 만든 떡
개똥벌거이	ㄹ 반딧불
개메이	ㄹ 바다에 발로 막아 고기를 잡는 어법(漁法)의 일종. '개막이'에서 변한 말
개미	ㄹ 깊은 맛
개쌌, 벌눈	ㄹ 트라흙, 눈병의 일종
개액질	ㄹ 구역질
개오지	ㄹ ①개호주 ②이가 빠진 사람
개이, 앵고, 피	ㄹ 고양이
개잇대가리	ㄹ 감기

개작데이	㉔ 서양식 지팡이, '개화작대기'의 준말
개적다, 가잡다	㉔ 가잡다
개좃대가리	㉔ 감기
개짓머리, 고뿔	㉔ 감기
개쭈치, 개쭈미이	㉔ 호주머니. '개화 쭈치'의 준말
개피:다	㉔ 피다 P. 물이 개피:다
갸치, 갸엌치	㉔ 호주머니
갸게기, 갸게이	㉔ 생선, 바다 고기
갸물	㉔ 바닷물
갸벤, 갸분	㉔ 바닷가
갸편	㉔ 개평
갸가	㉔ 바닷가
거들다	㉔ 돕다
거따아	[구] 거기에다
거래이, 거래이	㉔ 비렁뱅이, 거지
거럼자	㉔ 그림자
거무	㉔ 거미(蜘蛛)
거무리	㉔ 거머리
거문같이	㉔ 보리를 심지 않았던 논을 가는 일.
거부지기, 거부지이	㉔ 김불(稿屑)
거섭	㉔ 건건이
거시이	㉔ 거위(蜘蛛), 지렁이
거어	㉔ 거기
거이 채다	㉔ 거니 채다, 김새를 알아채다
거죽	㉔ 겉
거지다	㉔ 건다. P. 소매 줌 거지라
건니다, 건디다	㉔ 건너다
건니가다, 건디가다	㉔ 건너가다
건디기, 건디이	㉔ 건더기
건드리다	㉔ 건드리다
건지럽다, 근지럽다	㉔ 가렵다
겉다	㉔ ① 무엇이나 잘 먹는 상태를 말함. P.입이 겉다. ② 푸짐하다
겉베이	㉔ 거지, 걸인(乞人)
검는다	㉔ 갈퀴로 그러모으다
검운같이	㉔ 보리를 갈지 않았던 논에 벼를 심기 위하여 갈아엎는 일 또는 그러한 논.
경구지	㉔ 애기를 낳았을 때 왼 새끼를 꼬아 미역, 고추, 숯 등을 문 위에 달아 두는 줄
계	㉔ 계[蟹]
계, 계짜	㉔ 퀘
계기, 게이	㉔ 고기, 생선
계더리	㉔ 구더기(蛆)
계루:다, 계라:다	㉔ 가리다. 여럿 가운데서 골라내다.
계롭다	㉔ 괴롭다
계리다	㉔ 고르다
계매	㉔ 매제(妹弟)
게아내다	㉔ 깨우다
게엘	㉔ 겨울(冬)
게엘	㉔ 공일(公日)
게이	㉔ 옹이
게차: 주다	㉔ 가르쳐 주다, 알리다
게찬다	㉔ 가르친다

견찰다	〔형〕 괜찰다
겔차: 주다	〔동〕 가르쳐 주다, 알리다
겔찬다	〔동〕 가르친다
겔기다	〔동〕 굶다
고	〔명〕 울가미
고까	〔명〕 때때웃, 새신
고닥	〔명〕 구덩이
고등애	〔명〕 고등어
고라이	〔명〕 고라니
고랑창	〔명〕 도랑
고래	〔명〕 아궁이의 뒷쪽 구들 밑으로 깊이 판 곳.
고름	〔명〕 고름(膿)
고방, 도장	〔명〕 광(倉庫)
고뿔	〔명〕 감기
고상	〔명〕 고생(苦生)
고상	〔명〕 되로 될 때 위로 수북히 올라 가게 하는 것.
고수	〔명〕 괴수(魁首), 우두머리
고시랑거리다	〔동〕 속삭이다
고우오다	〔동〕 가져오다
고우다, 고아다	〔명〕 괴다(支)
고운다, 고안다	〔동〕 곤다(煎)
고오매	〔명〕 고구마
고오매쫄거리	〔명〕 고구마 줄기
고이	〔명〕 ①고니 ②이리(魚白, 白子)
고치	〔명〕 ① 고추 ② 자지(어린 사내아이의 생식기)
곡석	〔명〕 곡식
곤치다	〔동〕 고치다
골다	〔형〕 굶다
골로간다	〔동〕 죽는다<卑語>
골롱	〔명〕 권연(捲煙)
골미이	〔명〕 골무
골땡	〔명〕 골땡
골앗다	〔형〕 굶았다
골짜	〔명〕 골짜기
곰배	〔명〕 고무래. 흙덩이를 깨는 도구
곰페이, 곰페이	〔명〕 곰팡이
곰새	〔명〕 곰사등이, 곱추
곰개	〔명〕 공기받기
곰갯돌	〔명〕 공기받기하는 돌.
곰골	〔명〕 콩크리트, 콩크리트로 만든 다리.
곰구: 다	〔동〕 괴다
곰산	〔명〕 소의 키
곰상타작	〔명〕 벧단이나 보릿단을 태질하여 곡식 알맹이를 터는 일. 개상
곰짜베이	〔명〕 곰 것
구녕	〔명〕 구멍(穴)
구덕	〔명〕 구덩이
구두순가락	〔명〕 구두 주걱
구두칼	〔명〕 구두 주걱
구들배애미	〔명〕 귀뚜라미
구디이	〔명〕 구덩이
구래풀	〔명〕 부레 풀, 집착제의 일종.
구루마	〔명〕 수레. 일본어에서 유래.

구리이	명 구령이
구릿간	명 유치장
구부	명 굽이
구부러뵈기다	동 굴러다니다
구분다	동 구르다, 굴린다
구성거리다, 구시렁거리다	동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불평하다.
구시	명 구유
구시, 똥구시	명 변소
구시리다	동 구슬리다
구시이	[구] 구석에. 구석 + 애 → 구시이
구실	명 구슬(珠)
구찮다	형 귀찮다
국시	명 국수
국죽	명 국밥
군대	명 그네
굴떡	명 굴떡
굴래씨엄, 굴래씨임	명 구레 나룻
굴리다	동 발로 아랫바닥이 울리도록 마구 내려 디디다.
굴밤	명 상수리
굴비이	명 굴병이
굴턱, 곰탁	명 지형이 움푹 들어간 곳.
궁디이	명 궁둥이, 엉덩이
그기:	대 그것이
그다안애	부 그 동안에
그 따우	부 그 따위
그라모, 그라몬	부 그러면, 그렇다면
그라쿤다, 그러쿤다	동 일러준다
그룩	명 그릇
그뭉	명 그믐(晦日)
그시다, 기시다	동 속이다
그차아, 그자아	감 그렇지!
그지	명 그저께
그그지	명 그그저께
그문날	명 그믐날
근근이	부 겨우
근지럽다	형 가렵다(痒)
근질다	동 굶다
근치다	동 그치다
클뽀	명 ① 화투놀이의 낫수 ② 권력(權力)
금띠이	명 ① 금덩이 ② 소중한 것
금봉	부 워낙
금비내	명 금비녀
궁갈	명 욕심. P. 궁갈 내지 마라.
기	명 귀(耳)
기가 야리다, 기가 애리다	[귀] 귀가 여러다.
기고리	명 귀걸이
기다	준 그것이다.
기얌, 개얌	명 고욤
기경, 기잉	명 구경
기고리	명 귀걸이
기꾸녕	명 귀구멍
기뻐	명 귀뜸(暗示)

기드리	명 구더기
기렵다	형 그럽다
기리기	명 기리기
기리다	동 그리다
기떡채이	명 귀머거리
기목나무	명 과목나무
기미	명 구미(口味)
기밥	명 낫불
기보리	명 귀리
기불개	명 귀밭이 술
기상	명 기생(姦生)
기시다	동 속이다
기암	명 고욤
기우, 기오	명 거위
기이지개	명 귀이개
기임	명 귀염
기임상	명 귀염성
기잉, 기경	명 구경
기지기	명 기지개
기차: 주다	동 가르쳐 주다, 알리다
기창	명 ①귀청, 고막 ②귀에지
기히비개	명 귀이개
기티이	명 구석, 귀통이
깃구녕	명 낫구멍
까꼬막	명 오르막길
까구래이, 까꼬래이	명 갈고리, 갈고랑이
까구리	명 갈퀴
까다	동 꼬다
까디비다	동 뒤집다
까딱하몬	부 자칫하면, 하마트면
까락지	명 가락지, 반지
까마구	명 가마귀
까막소	명 감옥, 교도소
까망눈	명 무식한 사람을 이르는 말
까망딱지, 까몽끼	명 주근깨
까목다	동 ① 까서 먹다 ② 잊어버리다
까분다	동 까불다. 행동을 경망하게 하다.
까분다리	명 진드기
까불다	동 까부르다
까시	명 ① 가시 ② 된장이나 고추장 독에 파리가 들어가 알을 까 놓은 것.
까재	명 가재
까죽신	명 갓신
까지	명 가지(茄子)
까탈	명 가탈, 트집
까데이	명 깍지, 콩이나 팥 등의 꼬투리에서 알맹이를 싸고 있는 겹질.
까채이	명 깍쟁이, 구두쇠
까치이	명 종지
까챗다, 까악챗다	형 많다
간치	명 까치
간치밥	명 들쫄레의 빨간 열매.
깔딱질, 깔딱수	명 딸꾹질
깔치	명 갈치

깜비기, 깜비이
 깜지이다
 깁대^〇, 깁테^〇
 깁짜시리
 깁다구
 깁새
 깁술
 깁아리
 깨고리, 깨구리
 깨금
 깨금쫓다
 깨깁시리, 깨깁시리
 깨똥구리
 깨반하다
 깨배다
 깨애미
 깨애미딸
 깨^〇
 깁단
 깁수
 깁꾸리
 깁고렵다
 깁적데이
 깁적
 깁떡거리다

 깁음창, 깁망창
 깁정콩, 깁^〇콩
 깁디기, 깁디이
 깁
 깁까드렵다
 깁꼬리
 깁꾸룸하다
 깁리다
 깁사리
 깁시리
 깁엘
 깁엘타
 깁엘발다
 깁엘베이
 깁엘지이다
 깁까지
 깁꼽하다
 깁도발
 깁들^〇
 깁드러지다
 깁라박다
 깁라보다
 깁랑내
 깁랑내^〇
 깁래이, 깁래^〇
 깁빼이, 깁빼^〇

깁^〇 깜부기
 동^〇 깁작이다
 명^〇 대님
 문^〇 깁자기
 명^〇 깁다귀
 명^〇 깁새암, 질투
 명^〇 깁주 없이 먹는 술
 명^〇 ① 식물 줄기 속에 들어 있는 심. ②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응어리.
 명^〇 깁구리
 명^〇 깁암
 동^〇 외발로 뛰다
 문^〇 새삼스레
 명^〇 나무의 그루터기가 썩은 것.
 형^〇 깁운하다
 동^〇 깁우다
 명^〇 깁미
 명^〇 뱀딸기
 명^〇 깁이
 명^〇 벼를 베어서 탈곡기에 타작할 때 들고 할 수 있도록 뭉친 것. 벗단.
 명^〇 깁과리
 문^〇 거꾸로
 형^〇 깁끄렵다
 명^〇 거적, 거적때기
 존^〇 깁지
 동^〇 ① 음식을 먹고나서도 양이 차지않아 허덕거리다.
 ② 일을 하고나서도 욕심에 차지 않아 허덕거리다.
 명^〇 눈의 검은 자위
 명^〇 검은콩, 검정콩
 명^〇 깁질
 명^〇 껍
 형^〇 깁다롭다
 명^〇 껍꼬리
 형^〇 깁름직하다
 동^〇 ① 깁다 ② 깁리다(문)
 명^〇 고사리
 문^〇 껍스럽게, 껍있게, 지혜롭게
 명^〇 깁으름
 형^〇 깁으르다
 형^〇 깁으르다
 명^〇 깁으름뱅이
 동^〇 깁으름을 피우다
 명^〇 깁마지
 형^〇 습기가 있다, 축축하다
 명^〇 고두밥
 명^〇 고들^〇
 동^〇 ‘죽다’의 俚語
 동^〇 ① 쳐박다 ② 노름판에서 돈을 잃다.
 동^〇 뻥히 쳐다보다
 명^〇 고린내
 명^〇 꼬리(尾)
 명^〇 꼬리(尾)
 명^〇 고뻐

꼬시다	형 고소하다.
꼬시다	갑 남의 일이 잘 못 되었을 때 반어적으로 쓰는 말.
꼬우다	동 껴다, 유혹하다
꼬잡다	동 꼬집다
꼬장쭈우	명 고쟁이
꼬제이	명 꼬챙이
꼬치	명 고치(鰻)
꼬타리	명 꼬투리
꼭감	명 꼭감
꼭갈	명 고갈
꼭대이, 꼭데이	명 맨 위, 꼭대기
꼭대이, 꼭다리	명 꼭지
끈	명 고누; 땅이나 종이 위에 말판을 그리고 돌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말을 잡아 먹거나 건너가는 놀이.
꿀	명 소의 먹이 풀.
꿀리다	동 성욕이 일어나다, 발기하다
꿀짝하다	동 알뜰한 짓을 하다.
꿀다	동 노름판에서 돈을 잃다.
꿀내이	명 각정이
꿀다	동 꿀다
꿀다시, 꿀다시	부 고스란히
꿀히다	동 꿀히다
꿍	명 꿍
꿍닥거리다	동 어린 아이가 까불다.
꿍도바리	명 팔찌
꿍보리밥	명 순전히 보리만으로 지은 밥.
꿍지바리	명 팔찌
꿀	명 꽃
꿀봉지	명 꽃봉오리
꿀시이	명 꽃송이
꾸깨다	동 구기다
꾸꿍하다	형 약간 축축하다
꾸깨지다	동 구겨지다
꾸룽내	동 구린내
꾸린다	동 꿍다, 꿍는다. p. 물팍을 꾸린다.(=무릎을 꿍는다.)
꾸중물	명 ① 흙탕물 ② 고장물(부역 설것이 물)
꾸지름	명 꾸중
꿀	명 ①별꽃 ②굴(石花)
꿀밤, 꿀뺨	명 상수리
꿀짬하다	형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거나, 허기를 느끼다.
꿈지이다	동 움직이다
꿍다	동 굶다
꿍심	명 속셈, 꿍꿍이 셈
끄내끼	명 끈
끄리미, 끼이미	명 꾸러미
끄시름	명 그으름
끄시리다, 끄실다	동 그을다
끄시리:다	동 그을리다
끄잡아뺨기다	동 끌어당기다
끄티이	명 끈
끈, 끈타불	명 끈
꿀	명 여름철 밭에 심을 잡곡, 콩, 팥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꿀티기
 꿀티이, 꿀티^ㅁ이
 꿀꺼라
 꿀끼:다
 꿀다리
 끼다
 끼루:다, 끼라:다
 끼리다
 끼이미

명 그루터기
 명 그루터기
 동 꺾어라, 끊어라
 동 꺾어지다. 끊어지다.
 명 우수리
 동 ①쨌다, ②쨌다
 동 자물쇠를 열다
 동 꿩이다
 명 꾸러미

[ㄴ]

나
 나락
 나락 이삭
 나락단, 깻단
 나락딩기
 나락빠까리
 나래
 나리
 나막시^ㅁ이
 나무딸
 나무래다
 나무새
 나발
 나부
 나부대:다
 나불, 나울, 나올
 나수:다, 나사:다
 나사지다
 나사^ㅁ이, 나상구
 나아하다
 나알
 나앗날
 나재
 낙매
 낙주
 낚수
 낚숫대
 난중
 날개쭈지
 날긋이
 날날하이, 날날^ㅁ이
 날래다
 날물
 날포리
 남개, 낭개
 남새밭
 남구:다
 남남끈^ㅁ이
 날

명 나이, 연령
 명 버
 명 버이삭
 명 벗단
 명 벗겨
 명 벗단을 쌓아 놓은 것.
 명 이영
 명 나루
 명 남생이
 명 산딸기
 동 나무라다
 명 남새, 채소
 명 나팔
 명 나비, 나방
 동 날뛰다
 명 폭풍과 함께 오는 파도.
 동 (병을) 낫게하다
 동 나아지다
 명 냉이
 동 말을 ‘해라체’로 하다.
 명 나흘
 명 나흔날
 명 낮
 명 넘어져서 다치는 일.
 명 낙지
 명 낚시
 명 낚숫대
 명^ㅁ 나중
 명 죽지. 새의 날개가 몸에 붙은 부분.
 명 ①날이 곳을 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음 ②개가 토해내는 것.
 ③사람이나 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명 나란히
 동 빠르다
 명 썰물, ↔ 들물(=밀물)
 명 하루살이
 명 나무에
 명 채소밭
 동 남기다
 명 높은 나무의 맨끝.
 명 낮

날뻘데이	명 '낮'의 俚語
날짜	명 '낮'의 俚語
내	명 냄새
내:나	문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내다	명 냐다
내띠다	동 나셔다
내띤짐애	문 나선 김에
내:미	명 냄새
내뻘리다	동 내버리다, 버리다
내시 았다	동 옆으로 비켜 았거나 뒤로 물러 았다.
내씨다	동 내키다
내앨	명 내일
내우간	명 내외간, 부부사이
내우하다	명 내외하다
내치	문 늘, 내내
냄비	명 냄비
냏기	문 냏게, 좏게, 녏녀하계
너리다	명 넓다
너무집	명 남의 집
널	명 관(棺)
널구리	명 너구리
널쭈:다	동 떨어뜨리다
널찌다	동 떨어지다
널꾼다	동 넓힌다
널판대기, 널판데이	명 널, 판자
넘,남	명 남
넘새시롭다	명 부끄럽다
녕쿨	명 당굴, 년출
네	명 너
네	명 연기
네다	명 냐다
네리다	동 내리다. P.차아서 네리다(=차에서 내리다)
네엘	명 내일
네짐	명 폐병
네할개	명 사지(四肢)
노내끼	명 노끈
노네기, 노네이	명 노래기
노랑쭈시	명 노른 자위. 여기서 '쭈시'의 중세국어는 '즈스'이다.
노래이, 노래이	명 노랑이, 구두쇠
노름	명 도박
노리	명 노루
노성	명 뇌성(雷聲)
노꾼다	동 녹인다
노꾸다	명 높다
녹디	명 녹두
논꼬동	명 우렁이
논도가리	명 논배미
논두름	명 논두렁
놏새	명 놏쇠
놏제까락	명 놏젓가락
농띠이	명 문제 인간, 게으른 사람.
농다	동 ① 놓다 ② 낡다

누릅다	〔형〕 마렵다. P.오줌이 누릅다.
누룬밥, 누운밥	〔명〕 누룽지
누	〔대〕 누구
누구	〔명〕 누기(漏氣), 습기
누우, 누우야	〔명〕 누나
누지리다	〔동〕 누르다
눈까알, 눈까알	〔명〕 눈알
눈꼬옷	〔명〕 속눈섭
눈꼽채기, 눈꼽채이	〔명〕 눈곱
눈꼽짜우	〔명〕 눈곱
눈떠풀, 눈꺼풀	〔명〕 눈두덩
눈빠알, 눈빠알	〔명〕 눈망울
눈살미	〔명〕 눈썰미
눈요구	〔명〕 눈요기
눈찌그디이	〔명〕 애꾸
눈치꾸리이	〔명〕 눈총꾸러기
눈티이	〔명〕 눈두덩
늦다	〔동〕 늦다
느그, 느으	〔대〕 너의
느그마이, 느으마이	〔명〕 너의 어머니
느그매, 느으매	〔명〕 너의 어머니
느으마이	〔명〕 너의 어머니
느으매	〔명〕 너의 어머니
느으집	〔명〕 너의 집
늑수구리하다	〔형〕 늑수구레하다
-는갑다	〔보형〕 -는가 보다
늘우:다	〔동〕 늘이다. 늘리다
늘쿠:다	〔동〕 늘리다
능거리, 능그리	〔명〕 능구렁이
능글맛다	〔형〕 능청스럽다
능금	〔명〕 사과
늦까아	〔부〕 늦게
니	〔명〕 뉘
니기미, 니이미	〔명〕 '너의 어머니'의 俚語
니비	〔명〕 누에
니비다	〔동〕 누비다
니비이불, 니이이불	〔명〕 누비이불
니애비	〔명〕 너의 아버지
니이	〔명〕 누에
니이살	〔명〕 과도
니인다	〔동〕 뉘다(뉘다) P.오줌을 니인다.
니피다	〔동〕 뉘다, 뉘히다

[ㄷ]

다구지다	〔형〕 다부지다
다듬받다	〔형〕 야무치다. 일을 야무지게 잘 처리하다.
다래	〔명〕 목화다래
다리비, 대리미	〔명〕 다리미
다리다	〔동〕 다르다
다문	〔부〕 다만, 단지
다부	〔부〕 다시, 도로

다불	명 다발
다비	명 양말
다신에미	명 의붓어미
다얌	명 다음
다인다	동 도착한다
닥알, 게란	명 달갈
단디이	부 단단히
단물, 단술	명 식혜
단장	명 담, 담장
단지	명 향아리
단초	명 단추
단출하다, 단출하다	형 간소하게 그리고 야무지게 차려입은 상태.
달개다	동 달래다
달구똥	명 닭똥
달구온밥	명 통닭에다 쌀을 넣고 끓인 죽.
달구씩개비	명 맨드라미
달구통	명 닭장
달흥개	명 달래
달리:다	형 모자라다
달문	명 달무리(月暉)
달비	명 다리
달패이	명 달팽이
담다	동 담그다. P. 장을 담다. 짐치를 담다.
담뱃대	명 담뱃대
담배꼭대기, 담배꼭데이	명 담배통, 담뱃대에서 담배를 눌러 넣는 부분.
담배물쭈리	명 담배 물뿌리
담보	명 담비
담부랑	명 담, 담벼락, 담장
당구다	동 담그다
당그라매다	동 달아매다, 붙잡아 내다.
당그려매다	동 달아매다, 붙잡아 내다.
당그래	명 고무래
당니구, 땡니구	명 당나귀
당초	부 도무지
달, 닥	명 닭
닥데이리	명 닭서리
대가리, 대갈뻘이	명 대가리
대국놈	명 되놈, 중국 사람
대리다	동 ① 다리다(燙) ② 달이다(煎)
대리지다, 대라지다	형 건방지다, 언행이 뻔지르르하다, 당돌하고 예의가 없다.
대탱기이다	동 만나다, 붙들리다
대목	명 집을 짓는 목수
대뻘애	부 대뻘애. 서슴지 아니하고 단숨에
대사	명 결혼잔치
대수	명 홍수. P.대수가 젖다.(=홍수가 났다)
대애	명 대야
대애 놓고	부 억지로
대애지, 데애지	명 돼지
대애지대가리	명 돼지머리
대애지마구	명 돼지우리
대이다	동 도착하다, 다단다
더듬수	명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눈가림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

더듬하다, 더듬하다
 더듬이, 더듬바리
 더불로, 데엘로
 더우
 덕석
 덧정
 데:기
 데다
 데다
 데름
 데베이
 데불로 간다
 데비
 데이리
 데잡다
 데침이
 데티이
 데피다
 데푸:다
 덕고 온다
 덴서리
 덴장, 디장
 도가지
 도구
 도구통
 도구통니
 도곳대
 도둑놈때
 도량사구

 도래바람
 도레이, 우장
 도매
 도오배:미, 도오뻬
 도방
 도부장사
 도삽
 도오
 도장
 도장밥
 도창문
 도틀
 도틀나무
 도치
 도치이
 독새
 독새
 돈내기, 돈네이
 돈내이
 돌가지
 돌감
 돌미이
 ~ ~

〔형〕 하는 일이 아무지지 못하다.
 〔명〕 말더듬이
 〔부〕 데리러
 〔명〕 더위
 〔명〕 명석
 〔명〕 더하고 싶은 생각.
 〔부〕 많이, 매우, 꽤
 〔형〕 고단하다, 힘들다
 〔형〕 밥이나 반죽이 무르지 않고 단단하다.
 〔명〕 도련님. 시동생에 대한 지칭, 호칭
 〔명〕 퇴(升)
 〔구〕 데리러 간다
 〔명〕 도배(塗褙)
 〔명〕 ‘머끄지’하는 것
 〔형〕 점잖지 아니하다
 〔명〕 퇴침, 천으로 짜서 털 딱딱하게 만든 목침.
 〔명〕 바보
 〔동〕 테우다
 〔동〕 테우다
 〔구〕 테리고 온다
 〔명〕 무서리
 〔명〕 된장
 〔명〕 독
 〔명〕 벼, 보리 논외 변두리에 물이 잘빠지도록 깊게 파 놓은 물길.
 〔명〕 절구(통)
 〔명〕 어금니
 〔명〕 절구 공이
 〔명〕 도깨비바늘
 〔명〕 자배기 모양으로 생긴 펍 작은 용기. 이보다 큰 것은 ‘사구’라 하고, 더 큰 것은 ‘버지기’라고 함.
 〔명〕 회오리바람
 〔명〕 도롱이
 〔명〕 도마
 〔명〕 도마뻬
 〔명〕 도시(都市)
 〔명〕 도붓장수
 〔명〕 도섭
 〔명〕 동이
 〔명〕 광(창고)
 〔명〕 인주(印朱)
 〔명〕 큰방의 출입문 옆에 조그맣게 내어놓은 창문.
 〔명〕 도토리
 〔명〕 떡갈나무
 〔명〕 도끼
 〔명〕 육십쟁이, 구두쇠
 〔명〕 보리논 등에 무성하게 나는 잡초.
 〔명〕 독사
 〔명〕 공사장 같은 데서 날짜에 관계없이 일의 몫을 주는 일.
 〔명〕 돈나물(佛甲草)
 〔명〕 도라지
 〔명〕 고욤
 〔명〕 돌맹이

돌째이, 돌째이	명 석공(石工)
돌쭈	명 돌쭈귀
돔	명 도미
돔방주우	명 잠방이
돔배기, 돔베이	명 토막
돔부	명 돔부
동가리	명 동강, 토막
동개다	동 썩다, 포개다
동다리	명 삭정이
동생, 동승	명 아우
동시	명 며느리와 며느리 사이, 동서
동치매다	동 동여매다
두꾸마리	명 먹동구미
두드러기, 두드러이	명 두드러기
두디기, 두디이	명 ① 포대기 ② 걸레
두루막	명 두루마기
두루매기, 두루메이	명 두루마기
두름	[의명] 두름(생선을 20마리 엮은 것이 한 두름임)
두롱박	명 뒤옹박
두리미	명 두루미
두리삼	명 공동으로 삼삼기하는 일.
두지	명 뒤주
둘러싸다	동 에워싸다
둥치	명 뭍팡이, 부피
드무	명 물통. 물을 담아 두는 곳.
드부	문 거꾸로
드부, 조푸	명 두부
들궁	명 사태가 난 곳
들물	명 밀물
들미이다	동 들먹이다
들지름	명 들깨 기름
등더리	명 등, 등어리
등물	명 목물
등반, 선반	명 살강, 부엌에 그릇을 엮어 두게 만든 것.
등시이	명 등신, 바보
디꼬마리, 디꿈치	명 뒤꾸머리, 발뒤꾸머리, 발뒤축
디꼬마리때	명 도꼬마리
디꼭데이	명 뒤통수
디다보다	동 들여다보다
디디하다, 데디하다	형 하는 일이 바보스럽다.
디루:다	동 드리우다
디리다	동 드리다
디비다	동 뒤지다, 뒤집다
디비시다	동 뒤집다
디비티리다	동 뒤집다
디숭스럽다	형 하는 일이 야무지지 못하다.
디신하다	형 비슷하다
디안	명 뒤꼍
디안간	명 뒤꼍 (집 뒤에 있는 마당)
디이다	동 데다. 화상을 입다
디장	명 된장
디지개, 디짐	명 뒷짐

디지기, 디지이	명 두더지
딩기	명 등겨
따구	명 따귀
따까리	명 뚜껍
따둑거리다	동 다독이다
따듬다	동 다듬다
따덤이	명 다듬이질
따리	부 따로
따시다	형 따스하다
따바리	명 또아리
따배이	명 또아리
뺨다	동 ① 닦다 ② 지우다
딸	명 ① 딸, ② 딸기
딸내미	명 '딸'의 애칭
딸막딸막하다	동 망설이다
땀띠, 땀띠래기, 땀띠레이	명 땀띠
땅개비	명 조개 껍질, 전복 껍질로 누룽지를 굽을 때 씀.
땅까알, 땅까알	명 파리
땅개	명 키가 작은 개의 종류.
땅나구	명 당나귀
때애기	명 놀이딱지
때애기친다	(구) 내동댕이친다. 당바닥에 힘껏 내동댕이친다.
때찌있다	형 인식하다
땡기다	동 보리, 벼 등의 애벌 방아 찧은 것을 두번째 찧는다.
땡기다	동 당기다
땡땡	명 피약별
땡잡다	동 황재하다
땡땡	명 땅벌
떠리미	명 떨어, 다 떨어져 싸게 팔 나머지 물건.
떨구:다	동 놓지다
떨우다	동 떨어뜨리다
떼	명 도. 윗놀이에서 1의 말
떼, 떼잔디	명 잔디
떼갈, 떼갈	명 떼, 억지, 고집, 우겨대는 것
떼리다	동 때리다
똑	문 꼭
똑디기, 똑디이	명 똑똑한 사람
똑디이	문 똑똑히
뚫아알	명 뚫바늘
뚫두디기, 뚫두디이	명 기저귀
뜰	명 돛
뚜깨비, 뚜끼비	명 두꺼비
뚜꾸	명 두께
뜨봉	명 뚜껍, 사발 뚜껍
뜨시다, 따시다	명 따뜻하다
뜨수:다	동 데우다
뚫다	동 뚫다
뚫디리다	동 음식이 완전히 익도록 조금 두다.
뚫비기, 뚫비이	명 뚫부기
띠안다	동 띄운다
띠이간다	동 뛰어간다
띠지	명 굽지

[ㅁ]

마구	ㅁ 외양간, 마구간
마느래	ㅁ 마누라, 아내
마시	ㅁ 마수
마~할	ㅁ 마늘
마암	ㅁ 마음
마암논	ㅁ 호미씻이, 마지막 논매기
마지이	ㅁ 마지기
마지미	ㅁ 마중
마치, 만치	ㅁ 만큼
마치맛다	동 꼭 맛다, 알맛다
마쿠:다, 마카:다	동 메우다
막	ㅁ 마구
막~이, 막네~이	ㅁ 막내
막설하다	동 그만두다
막죽	ㅁ 마지막
만구	ㅁ 어디에, 전혀, 만고(萬古)에
만날	ㅁ 늘
만다꼬	ㅁ 무엇한다고, 무엇 때문에
만만하다	형 허물없는 사이를 이르는 말.
말기다	동 말리다. 만류하다
말짱	ㅁ 모두, 몽땅, 모조리
말캉	ㅁ 모두, 몽땅, 모조리
맘논	ㅁ 호미씻이(벼논의 마지막 김매기)
맞구녕	ㅁ 맞구멍
맛내다	ㅁ 맛 있다
맛베기, 맛베이	ㅁ 맛보기
망개	ㅁ 청미래 덩굴의 열매.
망네이	ㅁ 막내
망세이	ㅁ 망아지
망후:다	동 망치다, 망하게 하다.
말	ㅁ 길다란 조개의 일종
매	ㅁ ①제사뎡 ②계, 개미, 지렁이 등이 구멍 밖으로 밀어내어 놓은 흙.
매, 맏등,	ㅁ 묘, 무덤
매가리	ㅁ 정강이 새끼
매가리	ㅁ 정미(精米)
매가릿간	ㅁ 정미소(精米所)
매구	ㅁ 여우가 늙은 것. 늙은 여우. 피가 많은 사람.
매끔하다	형 미끈하다
매띠이	ㅁ 메뚜기
매물	ㅁ 메밀
매분맛	ㅁ 매운맛
매시이	ㅁ 발가벗은 아이
매애	ㅁ 야무지게, 단단히
매애미	ㅁ 매미
매집이	ㅁ 왕겨
매착	ㅁ 주견, 일의 순서
매초리	ㅁ 메추리, 메추라기
맨다, 맨다	동 김을 맨다.
맨든다	동 만든다

맨맨하다	㉸ 만만하다
말강다	㉸ 말강다
맹건	㉸ 망건
맹글다	㉸ 만들다
맹매이	㉸ 멩매기[胡燕]
맹석자리	㉸ 돛자리
맹기다	㉸ 말기다
머구	㉸ 머위
머구	㉸ 모기
머드리다	㉸ 곡식을 심은 밭의 듨성듨성한 사이에 모종이나 종자를 더 심다.
머라켓노	(구) 무엇이라고 했나
머러쿤다, 머라쿤다	㉸ 나무란다
머섬, 머슴	㉸ 머슴
머시마, 머시매	㉸ 사내, 사내아이
머심	㉸ 머슴
머슴들레	㉸ 민들레
머슴아, 머심아	㉸ 남자 아이
머크닥, 멀크닥	㉸ 머리카락
먹보	㉸ 귀머거리
먹성	㉸ 먹새, 먹음새
먹통, 먹보리	㉸ 감부기
먼눈파다	㉸ 결눈팔다
먼당	㉸ 꼭대기. 높은 곳
먼지, 먼침	㉸ 먼지
멀리	㉸ 물래
멀크데이, 머크디이	㉸ 머리카락
메느리	㉸ 머느리
메쌀	㉸ 멩쌀
메띠기, 메띠이	㉸ 메뚜기
메에기	㉸ 메기
메역	㉸ 미역
메쿠:다, 메우다	㉸ 메우다
메이로	㉸ 처럼
멜구	㉸ 머루
멜치, 메르치, 멜	㉸ 멀치
멤다	㉸ 멩다
멩강, 멩깁	㉸ 거울, 면경
멩물	㉸ 민물
멩물 곁동	㉸ 다슬기
멩물 짜아	㉸ 뱀장어
멩지	㉸ 멩주
모가지, 목	㉸ 목
모가치	㉸ 몫
모개	㉸ 모과(木瓜)
모독잖다, 목잖다	㉸ 불편하다. 마뜩잖다
모드레이	㉸ 망울
모들띠기	㉸ 모두
모들띠리	㉸ 모두
모디	㉸ 마디
모디다	㉸ 마디다
모래	㉸ 머루
모래고패	㉸ 글피

모리다	동 ①마르다(乾) ②모르다(不知)
모시	명 모이
모실, 마실	명 마을
모자리, 모판	명 못자리
모장거리, 삭은다리	명 삭정이
모장개이	명 삭정이
모재기, 모제이	명 모자반, 바닷말의 하나
모지래다	동 모자라다
모친다	동 목에 갈증을 느껴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P. 목이 모친다.
모캐, 모켓볼	명 모깃볼, 연기로써 모기를 쫓기 위해 피우는 불.
모타리	명 조그마한 토막
모티이	명 모통이
목감다	동 미역감다
목간	명 모욕
목살	명 먹살
몬치다	동 만지다
몬한다	동 못한다
몰다	형 마디다, 험프지 않다
몰사우	명 만사위
몰이	명 만이
몰	명 민물 말(藻)
몰다	동 말다(捲)
몰류:다, 몰라:다	동 말리다
몰매	명 못매
몰미, 멀미	명 멀미
몰밤	명 마름(藻)
몰다	형 맑다
몸에꺼, 몸에껏	명 월경
몸치, 몸살	명 몸살
못대, 모태	명 석쇠
몽디이	명 몽둥이
몽오리, 모오리	명 명울, 몽어리
몽창시리	부 배우
몽치미	명 목침
무강	명 종자 고구마의 줄기를 끊어낸 뒤의 고구마.
무디이	명 무단히, 괜히
무대	명 팔푼이. 어리석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
무대 놓고, 대애 놓고	(구) 역지로
무디기, 무디이	명 무더기
무리다	형 ① 무르다 ② 푼다
무시	명 무우
무시악다지, 무시우거지	명 무우말랭이
무쭈우	명 무논에서 일할 때 입는 잠방이.
무지이	명 무지개
무짜로	부 함부로, 마구잡이로
목구지리하다	형 먹고 싶다, 먹고 싶어하다.
묵다	동 먹다
문내	명 묵은 냄새. 묵은 곡식의 냄새.
문디이	명 문둥이
문땀다	동 문지르다
문애	명 문어

문지, 미검, 미금
 문지리다
 문쪼호
 문턱
 물게기, 물게이
 물곳
 물끼
 물논
 물드무
 물래
 물미
 물빠알
 물방에이
 물새하다
 물에
 물뜨리
 물팍
 몽개다
 몽캐다
 몽키다, 몽끼다
 몽티이
 미
 미꼬래이, 미꼬래이
 미더덕
 미룩 대:지
 미성거리다
 미숫거리
 미송하다
 미알시럽다
 미영
 미이다
 미자발
 미제이
 민애
 밀까리
 밀저불, 밀지불
 밀창문
 밀구녕
 밀자리
 밀제비
 밀창, 밀창문
 밍물게이
 밍물짜아
 밍물고동

명 먼지
 동 썰다
 명 문종이, 한지
 명 문턱과 문지방을 통털어서 일컬음.
 명 생선
 명 무릇.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
 명 물꼬
 명 무논
 명 물통
 명 물레
 명 지붕의 경사도, 볼매
 명 물방울
 명 빨래방망이
 동 없는 것으로 간주하다. 삭제하다
 명 오이
 명 물부리, 담배대의 입으로 무는 부분.
 명 무릎
 동 몽그러지게 하다
 동 지우다
 동 묶다
 명 몽치
 명 뉘. 솥은 쌀 속에 섞인 겨가 벗겨지지 아니한 벼의 알갱이.
 동 미꾸라지
 명 더덕같이 생긴 바다 생물.
 명 살찐 사람을 비유하는 말.
 형 매씩거리다
 명 미숫가루
 형 메스껍다
 형 알밋다
 명 무명, 목화
 동 먹이다
 명 미주알
 명 미장이
 명 민어(民魚)
 명 밀가루
 명 밀기울
 명 미단이
 명 향문
 명 밀알[巢卵]
 명 수제비
 명 미단이
 명 민물고기
 명 뱀장어
 명 다슬기

[바]

바가치, 바이치
 바구
 바구리

명 바가지
 명 바위
 명 바구니

바그리, 바기미	명 바구미. 팔, 콩, 녹두 등을 파먹는 벌레.
바다리	명 발채
바람	[의명] 실의 토막
바리	명 마리[匹], 짐승의 머리수를 헤아리는 단위.
바래기, 바래이, 바래이	명 바랭이. 밭에 나는 잡초의 하나.
바아작데기, 바아작데이	명 지게를 받치는 막대기. ←바지게작대기
바아	명 방아
바앗게	명 방앗공이
바알	명 바늘
바지개, 바지이	명 발채를 엮은 지게.
바짜	부 바짝
박상	명 튀밥
박지	명 박쥐
반법디이	명 말더듬이
반중	명 트기
반주개, 반주깨미	명 소꿉질
반지락, 반지래기, 반지레이	명 바지락
반짓그룩	명 반진고리
반피이	명 팔푼이
발, 바람	[의명] 발. 양 팔을 벌인 길이.
발구롱내	명 고린내
발디꿈치, 발디꼬마리	명 발뒤꿈치
발때	명 발채
발때죽	명 발자국
발류:다	동 바루다
발툼	명 발뚝
발똥	명 바퀴
밤시이	명 ①밤송이 ②성계
밤뜨고리	명 밤알
방구	명 방귀
방앗고, 방앗구, 방앗게	명 절구공이, 방앗공이
방축	명 득
발골	명 발이랑, 발고랑
발는다	동 뺨는다
발뚝	명 발뚝
배	명 배(布)
배갈	명 바깥
배갈사돈	명 남자 상주
배갈상주	명 남자 상주
배끼:다	동 바뀌다
배내기, 배네이	명 배내[半養]
배:미	명 뺨
배:미	명 논배미, p. 큰배:미, 작은배:미, 옷배:미, 애랫:배미
배상	명 혼인이나 회갑 잔치집에서 축하객에게 차려주는 작은 음식상.
배애지	명 배(腹) <卑語>
배알애	명 바깥에
배잡다, 비잡다	명 비좁다
배추썩	명 고갱이
백:기, 백:지	부 괜히
백떡, 백시리떡	명 백설기
백새	명 뺨새
백새	명 하얗게 센 머리,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

백파중으로 논다	(구) 전연 일하지 않고 논다.
뱃구녕	명 뱃구멍
뱅애	명 뱅어
버간다	동 겨룬다
버겁다. 버그럽다	형 벽차다
버꺼지	명 대머리
버구:다	동 겨루다
버꿈	명 거품
버금, 버겨이	명 오줌통이나 요강 단지 안에 끼는 찌꺼기.
버들강세이	명 버들개지
버들나무	명 버드나무
버르장머리	명 버릇
버릇따구, 버릇떼이	명 버릇
버부리	명 방어리
버선, 보선	명 버선
버지기, 버지이	명 자배기
벅수, 벅시	명 바보, 멍청이, 장승
벅수넘다	동 머리를 바닥에 대고 뒤로 넘어지다.
벌거지, 벌겨이, 벌계이	명 벌레
벌눈, 개씹	명 개씨바리. 눈병의 일종.
벌로	부 아무렇게나
벌로 본다	(구) 별 관심없이 본다
베개호칭	명 베갯잇
베늘	명 벧가리
베루:다, 베라:다	동 버르다
베라:다, 치우다	동 버리다
베락	명 벼락
베럭박, 벨빡, 벅	명 벅, 바람벅
베룩, 벼룩	명 벼룩
베리, 베루	명 버루
베리다	동 버리다
베실, 베슬	명 벧(雞冠)
베실	명 벼슬
베이	명 병(瓶)
벤수, 벤소	명 빈소
벨	명 별(星)
벨로	부 그다지
벨시럽다	형 별나다, 별스럽다
벨쭉시럽다	형 유별나다, 별스럽다
벨쭉시리	부 유별나게
벧기다	동 벧기다
벧따까리	명 벧뚜껑
벨	명 벨
보고집다	형 보고싶다
보골, 부애	명 부아, 화
보골깜	명 화나게 하는 감.
보골 채애다	(구) 화나게 하다.
보도시, 뽀도시	부 겨우
보듬는다	동 안는다
보따리	명 보자기
보디	명 바디
보리다	동 바르다[塗]

보릿딩기	명 보릿겨
보릿대모자	명 맥고(麥藁) 모자
보선	명 버선
보시	명 종지보다 약간 큰 그릇. 보시기
보시:다	동 부시다
보십	명 쟁기의 보습
보오쌀	명 보리쌀
보이, 보니	명 보늬
보재기, 보제이	명 해너
보제이	명 보자기
보죽	명 췌기. 물건과 물건 틈에 끼워 사개가 물러나지 않게 하는 V형의 물건.
보탄	명 장작을 팔 때 밑에 받치는 통나무.
보튼지침	명 마른 기침
복성	명 복숭아
복성씨	명 ①복사빠 ②복숭아씨
복장	명 가슴, 마음
복치이	명 복어
본대읏다	형 버릇없다
본디	명 동부
볼, 볼테이, 볼티이	명 볼
볼강거리다	동 까불다
볼:새	부 벌써, 이미. P.볼:새 갖다.(=벌써 갖다.)
볼시로	부 벌써 P.볼시로 가끗가.
볼치기, 뽕치	명 볼거리
볶다	형 밝다
볶다	동 밝다
봉가, 봉개	명 잔칫집에서 싸 주는 음식.
봉사	명 장님, 소경
봉숭아	명 봉선화
봉알, 봉알	명 불알, 고환
볼다	동 밝히다.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좋아하다.
볶아지다	동 까지다, 알맹이가 튀어나오다.
볶아지다	형 건방지다. 언행이 유달리 뻔지르르하다.
볶아티리다	동 까지게 하다
부꼬웃	명 남자 생식기 주위에 나는 털.
부대끼이다	동 힘이 달리다.
부든다	동 더 달라고 떼를 쓴다.
부뜨막	명 부뚜막
부란다	동 불린다
부로	부 일부러
부루:다, 부라:다	동 진 짐을 내려놓다.
부리내키, 해:내키	부 빨리, 얼른, 부리나케
부리씨다	동 부릅뜨다
부살개	명 불을 지피는 땀감.
부섯	명 아궁이
부시럼	명 부스럼(腫氣)
부애	명 부아. P. 부애를 채애다(=화나게 하다.)
부애이, 부에이	명 부영이
부우바, 어부바	갑 아기를 업을 때 하는 소리.
부세	명 부시
부작대기, 부작데이	명 부지깽이
부재	명 부자

부치
부치
부침이, 부침
부티리다
복살, 복새
분탕지이다
불
불각시리
불개이
불기
불가래
불꼭새, 풀꼭새
불매
불버서
불상하다
불우:다
불젓가락
붓돌
붓다
비다
비내
비럭
비리
비리개이
비이이, 비민
비시기
비시놓다
비우
비짜리
빈대 꼬끼다
빈
삐구리
삐꼬미
삐끼미
삐무데이, 삐마데이
삐안하다
삐드럽다
빨
빨번리
빤
빙구녕
빼꿈이
빼끌다, 빼뜯다
빼다지, 빼다지
빼딱하다, 빼딱하다
빼딱하이, 빼딱하이
빼때기, 빼때이
빼들다
빼빼재이, 빼빼재이
밴드럽다
빨강다
빨개이

명 부채
명 부처
명 부꾸미
동 지고 있던 짐을 사납게 내려놓다.
명 노을
동 난장판으로 만들다.
[의명] 벌 P.옷 한 벌
부 갑자기, 불현듯
명 새끼를 못낳는 가축의 암컷.
명 새끼를 못낳는 가축의 암컷.
명 불가래, 부삼의 일종.
명 빠꾸기
명 ① 풀무 ② 어린 아이를 세워 두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드는 것.
형 부러워서
형 가엽다
동 불리다
명 부젓가락
명 부싯돌
형 부럽다
동 베다
명 비녀
명 ① 벼랑. ② 땅 위나 속의 돌 층.
명 진딧물
명 아주 가난해서 보잘 것 없는 사람.
부 범연히, 어련히, 예사로
부 비스듬히
동 조금 벌려 놓다.
명 비위
명 빗자루
[구] '제사 지내다'의 은어.
명 빚(債務)
명 ① 남자와 남자간의 성교 ② 성교
명 어떤 일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
부 뻥히
명 따귀
형 뻥하다
형 약다
명 빨
명 파이프, 물뿌리
명 뻥
명 뻥 뚫린 구멍
부 빠꿈히
동 빼앗다
명 서랍
형 비스듬하다
부 비스듬하게, 비뚜러지게
명 절간 고구마
동 빼앗다
명 질경이
형 세속에 물들어 약삭바르다.
형 빨강다
명 공산당

번개	명 번개(電)
번덕	명 버덕. 산기슭이나 묘소의 넓은 잔디 밭.
뽕따이	명 뽕대추니
뽕뽕두름하다	형 뽕뽕하다
뽕가지	명 뽕
뽕다구	명 뽕
뽕때기, 뽕때이	명 질간 고구마, 고구마를 썰어서 말린 것.
뽕무린다	동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양값음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뽕다구	명 뽕
뽕도시	부 뽕뽕하게
뽕독하다	형 뽕뽕하다. 겨우 맞게 들어가는 모양.
뽕드라치	명 뽕루지
뽕수:다, 뽕사:다	동 ① 뽕다 ② 부수다, 파괴하다
뽕뽕하다	형 야위다. 마른 체격으로 되어 있는 모양.
뽕	명 본(本), 모양
뽕디기, 뽕디이	명 번데기
뽕래기, 뽕레이	명 볼락어
뽕리다	동 빨리다, 세련되다
뽕리:다	동 (노름판에서 돈을) 잃다
뽕찌	명 박쥐
뽕쪽시리	부 유별나게
뽕치	명 볼거리
뽕	명 뽕
뽕리이	명 뿌리
뽕석하다	형 약간 부은 듯하다.
뽕시레이	명 부스리기
뽕지리다	동 꺾다
뽕국새	명 뽕꾸기
뽕뚝성	명 화를 벌컥내는 성질.
뽕라:다	동 부러뜨리다
뽕라지다	동 부러지다
뽕가리, 뽕제이	명 병아리
뽕꿈탄다	동 토라지다
뽕끼다	동 토라지다
뽕대다	동 거처하다
뽕드리하다	형 생선 따위가 약간 마른 상태로 되어 있다.
뽕들깨	명 비둘기
뽕딱하다	형 비스듬하다
뽕뚜름하다	동 바르지 않다
뽕알	명 비탈
뽕짜다	동 비꼬다

[ㅅ]

사구	명 자배기보다 작은 옹기.
사그룩	명 사기 그릇
사니기, 사니이	명 노래기
사래	명 사래
사리	명 주름살
사마구	명 ① 사마귀 ② 버마재비

사 미인다	동 개미 먹인다. 사깃 가루를 풀에 섞어 실에 먹인다.
사분	명 비누
사:살	부 살살
사심	명 사슴
사안치, 새앵키	명 송아지
사알	명 사흘
사아간	명 사돈간
사우, 사오	명 사위
사랍문	명 사립문
사아납다	형 사납다
사장마느래	명 사돈 마님
사죽	명 네 다리, 온 몸
사타리	명 살, 사타구니
사파리	명 사팔뜨기
삭은다리	명 삭정이
삭후:다	동 삭이다
산때애지	명 멧돼지
산면당, 산꼭대기, 산꼭데이	명 산마루
산뻬알	명 산비탈
산제	명 강정
산중 [〰] 〰	명 산등성이의 중간쯤 되는 곳.
산지슬	명 산 기슭
산태	명 사태(沙汰)
살라:다, 살라:다	동 ① 살리다 ② 불을 지피다
살 불그로 한다	[구] 우에 있게 한다
살뻬	명 사립문 밖
살성	명 살결
삼거람질	명 세 갈래 길
삼동	명 겨울
삼배	명 마포(麻布)
삼오	명 삼우(三虞)
상	[접미] 어떤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말을 강조하는 접미사. P. 임석사야 불다.(=음식을 염체없이 좋아한다는 뜻)
상	명 교미
상각	명 상객(上客)
상각	명 상극(相尅)
상구	부 활썬, 계속
상그럽다	형 위험하다
상내다	동 교미하다
상애	명 상어
상추	명 상치
살	명 암컷의 음부
새	명 새암, 샘
새각시	명 새색시
새경	명 일년간 머슴살이하야 받는 곡식.
새끼미, 사곰, 소곰	명 소꿌질
새끼롬하다	형 날씨가 쌀쌀하고 눈이나 비가 올 듯하다.
새꾸	명 새끼
새낸다	동 새우다, 샘을 하다.
새드래, 새들	명 사닥다리
새디기, 새디이, 새각시	명 새색시
새ړ, 새ړ문	명 사립문

새미	명 우물
새복	명 새벽
새비	명 새우
새빛대	명 억새
새실	명 재잘거리는 말, 이야기
새애	명 사이
새알	명 생일(生日)
새앵지	명 새양쥐
새이	명 상어
새침다, 새춌다	형 예쁘다, 귀엽다
새피하다	형 얽잡아 볼 만하다.
색골	명 색광(色狂)
샌날	명 셋바람이 불면서 비가 올 듯한 날씨.
썰인	명 살인
생키다	동 삼키다
생판	부 전혀. P.생판 모리는 사람이다.
생피	명 상피(相避). 가까운 친척 남녀간의 성적 교섭.
서거푸다	형 마음에 차지 않다. 하찮고 흠족하지 못하다.
서답	명 빨래. '개집'의 방언.
서리	부 서로[相]
서방	명 남편
서숙	명 조
선반	명 살강, 선반을 통틀어 일컬음.
설버서	형 서리워서
설치다	동 날뒀다. 전황을 하다.
섭다, 섭다	형 섭다
성가시다	동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성냥간	명 대장간
성냥알, 성냥알테이	명 성냥개비
성냥제이	명 대장장이
성냥하다	동 버리다
성노	명 석류
성님	명 형님
세	명 소[牛]
세거름	명 두엄
세계기, 세계이	명 쇠고기
세구시, 세죽통	명 구유
세근, 세근머리	명 소견(所見)
세:기	부 세계, 강하게
세다	동 보내다, 지내다. P.설 쉰다
세다	동 헤아리다
세똥벌거이	명 반딧불
세마구	명 외양간
세버질	명 기계총
세사아	명[문] 세상에
세숫대, 세숫대애	명 세수 대야
세이	명 형, 언니
세죽	명 쇠죽
세죽바아치	명 쇠죽바가지
세핀	명 질편
석우	명 석유(石油)
석히	부 속히

생기다	동 섬기다
소곰	명 소곰
소구리	명 소구리
소꼬빠이, 세꼬빠이	명 소 꼬빠
소내기, 소내이, 소네이	명 소나기
소드방, 소도방	명 솔뚜껑, 소댕
소래	명 소라(螺)
소로시	부 고스란히, 몽땅
소릿질	명 셋길, 오솔길
소매	명 소변, 오줌
소수:다	동 솟게 하다
소시랑	명 쇠스랑
소시리바람, 소스래바람, 도래바람	명 회오리바람
소암, 소음	명 효험
소양 음따	형 소용 없다
소자	명 효자
소풀	명 부추
손 거치다	형 도벽이 있다
손까시레이	명 손거스러미
손끝, 손끈티이	명 손가락 끝
손님	명 천연두
손지	명 손자
손톱	명 손톱
솔개	명 소리개[鷓鴣]
솔나무	명 솔나무
솔다	형 좁다
솔빠알	명 솔방울
솔뻑, 솔뺑	부 몽땅, 송두리째, 고스란히
솔케이	명 솔가지
솟짱	명 고기가 몹시 먹고 싶은 증세.
송구	명 솔나무 가지의 바깥 껍질을 벗긴 속의 흰 껍질.
송곳	명 송곳
송치이	명 송충이
수기죽다, 수죽다	동 기가 죽다
수곡	명 수곡(收穀)
수굽포	명 샓
수늘:대	명 화살이나 담뱃대를 만드는 대나무.
수리	명 독수리, 솔개
수물, 시물	명 스물
수발	명 돌보는 일, 시중
수실	명 꽃술
수안	부 아주
수울하다, 수울ㅎ 다	형 수월하다
수제비, 밀제비	명 수제비
수태기, 수테이	부 솔하게, 많이
수틀	명 수틀
숙지근하다	동 조용해지다
솔고래	명 대주가
솔찌끼이	명 지게미
숨구녕, 심구녕	명 숨구멍
숨짚이 차다	(구) 숨길이 가쁘다.
습다	형 습다

송	명 흉
송구다	동 심다
송군다	동 심는다
송내	명 흉내
송년	명 흉년
송님, 송념, 송녕	명 송녕
송약하다	명 송어
송애	명 송어
송축시리	문 흉칙스럽게
송축하다	명 흉칙하다
송카:다	동 숨기다
송터	명 흉터
술	명 솟
시	명 쉬(파리의 알)
시개	명 시계
시그럽다, 새그럽다	명 몹시 시다
시그리	명 ①야광충의 불빛 ②생선의 뼈속에 있는 인(隣)성분의 파란 빛.
시기다, 시이다	동 시키다
시다	동 쉬다
시리	명 시루
시리벤	명 시루번
시리떡	명 시루떡
시방	문 지금, 이제
시부지기	문 슬며시
시썰른다	동 쉬 슬다
시이실	문 슬슬
시지부지	문 호지부지
시포리, 똥포리	명 쉬파리
시푸다	명 대수롭지 않다
시푸다	[보형] 싶다
시피 보다, 시푸보다	동 대수롭지않게 보다, 업신여기다
식겁하다	동 혼나다, 곤욕을 치르다
식기지름	명 수수께끼
식후:다, 식하:다	동 ①식하다 ②죽이다
신	문 쉼, 오십
신간이 좋다	(구) 건강이 좋다 <敬語>
신발이	명 그리마
실경	명 시렁, 마루나 방에 긴 나무 두개를 걸쳐 그릇이나 물건을 얹어 놓는 곳.
실따	동 신다
실래이	명 실랑이
실른다	동 심는다
실무시	문 슬며시
실뺨	명 실로 시친 뒤 남은 조그마한 실의 토막.
실찌기	문 슬며시
실컨	문 실컷
심	명 힘
심	명 숨
심대로	문 힘껏
심바람	명 심부름
심심하문	문 종종
심쪼	명 힘줄
심통	명 숨통

싱간시럽다	형 승강이를 하여 귀찮다.
싱간하다	동 승강이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싱개이	명 실랑이
싱키다	동 흠치다, 숨기다, 감추다
싸다	동 썩다
싸다	동 쏘다[射]
싸래기, 싸레이	명 싸라기
싸얌	명 싸움
싸이캐라이	갑 자기의 생각과 너무 거리가 멀 때 쓰는 감탄어.
싸군	명 샅군
싸싸하다	형 상냥하다
싸다가지	명 '얼굴'의 비어(卑語).
쌀무리	명 쌀을 물에 담가 갈아서 뿌영게 만든 물.
쌀벌거이	명 쌀벌레
쌌다	동 삶다
쌌씨리하다	형 약간 쓰다, 씹쓰레하다
쌌, 쌌통	명 '얼굴'의 비어(卑語)
쌌디이	명 쌍둥이
쌌바리	명 불가사리
쌌비다	동 흠치다
쌌애기	명 썰기
쌌애비다, 쌌애비릿다	형 아주 많다. 많고 껍 흔하다.
쌌엣다	형 아주 많다. 많고 껍 흔하다.
쌌기:다	명 삶기다
쌌기:다	[구] 날 것이다
쌌손가락	명 생인손
써리	명 써레
써리다	동 썰다
써언ㅎ다	형 시원하다
써둥구리, 깨똥구리	명 썩은 나무의 그루터기.
써은다리	명 삭정이
써후:다, 썩하:다	동 썩히다
쌌	명 화
쌌칼	명 성칼
쌌	명 ①쇠 ②서캐(이의 알) ③혀
쌌까구리	명 쇠갈퀴
쌌까래, 썩까래	명 서까래
쌌끈티이	명 혀끝
쌌글	명 처마, 기스락
쌌글물	명 낙숫물
쌌뜨가리, 썩뜨가리	명 혀<卑語>
쌌리다	동 때리다
쌌우다	동 우기다
쌌이	문 속히
쌌통	명 자물쇠
쌌짜네이	명 혀가 짧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
쌌이다	동 속이다
쌌대	명 열쇠
쌌바닥	명 헛바닥
쌌바알, 썩바늘	명 헛바늘
쌌	명 소(沼)
쌌가지	명 속. 성질

쏘무다	〔형〕 배다, 촌충하다
쏘삭거리다	〔동〕 속삭거리다
쏘옴	〔명〕 숨
쏘캐	〔명〕 숨
쏭:	〔명〕 속
쏭다	〔동〕 속다
쏭아지	〔명〕 ① ‘속’의 俚語 ② 성질
쏭후:다	〔동〕 속이다
쑤시	〔명〕 수세미
쑤시	〔명〕 수수
쑤개	〔명〕 수캐
쑤구리 ^ㄹ	〔명〕 수쿠렁이. 느릿느릿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쑤눔	〔명〕 수컷
씨갓	〔명〕 씨앗
씨꼬옷	〔명〕 씨겨옷
씨나라, 씨나라	〔명〕 볍씨
씨노, 씨누	〔명〕 시누이
씨다	〔동〕 ① 쓰다 ② (불을) 켜다 ③ (나무를) 켜다
씨동상	〔명〕 남편의 남동생
씨락국	〔명〕 시래기 국
씨:력	〔부〕 두루. 모두
씨레이	〔명〕 시래기
씨루:다	〔동〕 다루다, 겨루다, 대결하다, 맞서다
씨리씨리하다	〔형〕 아리아리하다
씨부린다	〔동〕 종알거린다. 지껄인다
씨사 ^ㄹ	〔명〕 소견 머리 없고 주책 없는 사람. 신견이.
씨쓱바리	〔명〕 시시덕이, 떠버리
씨아시	〔명〕 씨아
씨애기	〔명〕 씨아
씨애비	〔명〕 시아버지
씨이리, 씨이력	〔부〕 모두
씨이미, 씨어매	〔명〕 시어머니
씨인밭	〔명〕 식은 밥
씨임지, 씨염	〔명〕 수염
쑤는다	〔동〕 씻는다
쑤내 ^ㄹ	〔명〕 쑤바귀
쑤중	〔명〕 비구니, 여승(女僧)
쑤개	〔명〕 쓸개
쑤다	〔동〕 쓸다
쑤미	〔명〕 싫증
쑤지뻘다	〔동〕 제비뻘다
쑤다	〔형〕 쓰다
쑤야 ^ㄹ , 쑤야 ^ㄹ	〔명〕 승냥이(豺)
쑤	〔명〕 샅쟁이

[ㅇ]

아:	〔명〕 아이, 아기
아가리, 아구지	〔명〕 ㉠ 물고기나 짐승의 입 ② 입<俚語>
아구	〔명〕 짝, 아귀

아금	㉔ 꼭 쥐는 힘
아금니	㉔ 어금니
아랫두리	㉔ 아랫도리
아매	㉔ 아마
아무따나	㉔ 아무렇게나
아부시다	㉔ 앞세우다
아부지	㉔ 아버지
아습다	㉔ 아쉽다
아시본다	㉔ 아우를 보다
아시탄다	㉔ 아우탄다
아시 썩는다	㉔ 빨래를 애벌 씻는다
아시탄다	㉔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젖을 먹던 아이가 여위는 것.
아심찮다	㉔ 안심찮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아래	㉔ 아흐레
아옴	㉔ 아홉
아이다, 아이다	㉔ 아니다
아재	㉔ 아저씨. 결혼 전의 삼촌. 속항렬(叔行列)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아재얌	㉔ 속항렬(叔行列)되는 사람을 짐작해 부르는 말.
아적	㉔ ① 아침 ② 아침 밥
아제	㉔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
아주까리	㉔ 피마자
아지럽다	㉔ 어지러워서 위태롭다.
아지매	㉔ 아주머니
아지뺨	㉔ 남편의 형. 제수가 시숙(媿叔)을 부를 때 쓰는 말. 시숙에 대한 호칭.
아프다	㉔ 아프다
안날	㉔ 다음날
안다이	㉔ 무엇이나 아는 체하는 사람.
안들	㉔ 부인들
안사돈	㉔ 암사돈
안진배이	㉔ 앓은뱅이
안할란다, 아알란다	㉔ 아니 하려다
앗추:다	㉔ 앓히다
알개미, 알감지, 아감지	㉔ 아가미
알기다, 알기다	㉔ 꾸중하다
알:땀	㉔ 아랫담. 아랫 마을
알라주다	㉔ 알려주다, 일러주다
알뺨	㉔ 알뺨
암깨	㉔ 암캐
암공	㉔ 까투리
암죽	㉔ 아기에게 먹이기 위해 만든 묽은 죽.
앗아주다	㉔ 옆에 있는 것을 집어주다. 취하여 주다.
양구:다, 양가:다	㉔ 교미시키다
양물한다	㉔ 양값음한다
양살시럽다	㉔ 양탈스럽다
양살지이다	㉔ 양탈부리다, 악을 쓰다
양조가린다, 앵조가린다	㉔ 대적하여 종알거린다. 양양거린다
양칼시럽다. 사이납다	㉔ 사납다
앞치매	㉔ 앞치마
애가리	㉔ 왜가리
애까시	㉔ 아카시아
애끼다	㉔ 아끼다
애눔	㉔ 왜눔

애땡기이다	동 만나다, 붙들리다
애띠다	형 옛되다
애리다	동 아리다
애민소리	평 억울한 말
애비	평 아비
애씨이	평 애송이
애앤ㅎ다	형 애치럽다, 가련하다, 안스럽다.
애앵꼐다	형 ①아니꼐다 ②메스꼐다
애지름	평 석유
애콩	평 완두콩
앵경	평 안경
앵고다리	평 굽은 다리. 양쪽발꿈을 안쪽으로 오무려 걷는 모양을 한 사람.
앵금	평 해금(奚琴)
앵기들다	동 덩벼들다
앵기손가락	평 새끼손가락
앵기발가락	평 새끼발가락
앵통하다	형 원통하다
아마리	평 체면, 엄치 P. 아마리 빠졌다.(=엄치 없다)
아무치다	형 아무지다
아물딱지다	형 '아무지다'의 힘준 말.
아바구	평 아바위. 속임수, 속임질
아수:다	동 겨누다
아숫다	동 겨누다
아시	평 여우
아시벨	평 소나기가 온 뒤 곧 활짝 개면서 나는 햇볕.
아시새끼	평 ① 여우 새끼 ② 간교한 사람.
아아야	감 애야!
아푸다	형 얄다
암새이, 암세이	평 염소
압딱	평 산(높지 아니한 산을 가리킴.)
양기, 양지	평 양치질
양님	평 양념
양대애	평 쇠(알미늄)로 만든 대야.
양도호	평 양동이
양밥	평 액운을 면하게 하거나 남을 저주할 때 무속적으로 취하는 간단한 조치.
양선	평 양식
양해이	평 군것질
양지	평 양치질
양지친다	동 양치질 한다
양푼이	평 양푼
애리다, 아리다	형 어리다
애비다, 아비다	형 어위다
어구	평 어귀
어구	평 아귀(餓鬼). P.어구같이 목는다.
어긋지다	동 어긋나다
어깨쭈지	평 죽지. 팔과 어깨가 잇닿는 관절의 부분.
어덕	평 언덕, 벼랑
어독살	평 땅거미
어띠기, 어띠이	부 얼마나, 어떻게
어린냥	평 어리광
어북	부 제법, 꽤
어시다	형 ①강하다 ②부리기가 힘들다 ③고집이 세다. 어겨지가 세다.

어주리, 어주바리	ㅁ 바보, 어준 사람
어줍잖다	ㅎ 별것 아니다
어중개비	ㅁ 어중간한 사람
어중잡고	ㅁ 어렵하여
어집잡다	ㅎ 별일 아니다
억	ㅁ 억지
억수로	ㅁ 매우, 많이
억시기	ㅁ 매우, 몹시
억장	ㅁ 심한 낙심. P.억장이 무너진다.(= 몹시 낙심한다.)
언총	ㅁ 훗씬, 워낙
언치:다	ㄷ 체하다
얼가이	ㅁ 바보
얼기미	ㅁ 어레미
얼기빋	ㅁ 얼레빋
얼매, 올매	ㅁ 얼마
얼요구	ㅁ 얼요기
얼쭈	ㅁ 거의
얼척	ㅁ 어치구니
엄니	ㅁ 덧니
엄두운	ㅎ 엉뚱한
엄수	ㅁ 조그마한 이익 되는 일.
엄첩다	ㅎ 대견하다
엄청시리	ㅁ 굉장히
엇발	ㅁ 비뚤러진 행동
엇발지이다	(구) 비뚤러진 행동을 하다.
엉, 엉장	ㅁ 벼랑
엥가이	ㅁ 어지간히
엥간하다	ㅎ 어지간하다
엥구렁	ㅁ 함정
엥그러지다	ㄷ 이지러지다
엥더꾸	ㅁ 엉경귀
엥캉	ㅁ 워낙
엥키:다	ㄷ 얽히다
에나	ㅁ 참말로
에렵다	ㅎ 어렵다
에미	ㅁ 어미
에북	ㅁ 패
에석, 에식	ㅁ 여자 아이, ‘女息’에서 온 말
에석아	ㅁ 여자 아이
에엘	ㅁ 어혈
에우다, 에아다	ㄷ ① 지우다. P.장부에 있는 거 에아라. ② 치우다, 시집보내다. P. 느으 큰 딸 에았나. (=너의 큰 딸 결혼시켰나?)
에포리, 워포리	ㄷ 이파시
엔가이	ㅁ 너무 심하지 않게. 어자간히. P. 엔가이 해라.(너무 심하게 하지말고, 이제 그만 하라의 뜻.)
엔간하다	ㅎ 어지간하다
엥기다	ㄷ 읊기다
엥히:다	ㄷ 얽히다
여나암시	ㅁ 심여명이
여따야	ㅁ 여기에
여럭씨	ㅁ 삼씨
여럭조시	ㅁ 늦게 간 병아리

여렵다	〔형〕 상겁게 굴다
여물	〔명〕 짚이나 풀을 썬 소나 말의 먹이.
여시	〔명〕 여우
여어	〔부〕 여기
여얼	〔명〕 열흘
여꾸리	〔명〕 옆구리
역부리	〔부〕 일부러
연까지	〔명〕 눈병의 일종, 백내장을 이룸.
연방	〔부〕 지금 계속해서
연자새	〔명〕 열레
연치	〔명〕 여치[螞蚱]
열	〔명〕 ① 코에서 나는 피 ① 눈에 핏발이 선 것.
이영	〔명〕 이영
영검	〔명〕 영험
영장	〔명〕 송장
영판	〔부〕 꼭, 흡사
열다	〔동〕 넣다
오감 ^ㅎ 다	〔형〕 분에 넘치다. 복에 과하다.
오금, 오금재이	〔명〕 오금
오나라	〔명〕 올벼, 무릎
오두:다, 오다:다	〔동〕 둘레를 빙 둘러 싸다. 한꺼번에 거두다.
오대, 오데	〔부〕 어디
오들께	〔명〕 오디. 뽕나무 열매.
오래비	〔명〕 오빠
오래이	〔명〕 올. 오라기
오만다이	〔명〕 돌미더덕
오무:다, 오물티리다	〔동〕 오무리다
오빠미	〔명〕 올빼미
오수리	〔명〕 오소리
오울	〔명〕 오늘
오좁	〔명〕 오좁
오지다	〔형〕 올지다. 오달지다
오지랴	〔명〕 옷자락
오징애	〔명〕 오징어
오콤	〔명〕 움큼
올개미	〔명〕 올가미
올밤	〔명〕 올 익은 밤
올치	〔명〕 올캐
올골지다	〔형〕 마디다
올구	〔명〕 올기
올그리다	〔동〕 올크리다
와	〔부〕 왜
왈기다	〔동〕 심하게 질책하다
왕기, 왕지	〔명〕 왕겨
왕토채이	〔명〕 미장이
요꾸린다	〔동〕 겨냥한다
요독을 썬다	〔구〕 온 힘을 다 쓴다
요량	〔명〕 요량(料量), 생각
요롱	〔명〕 요령(搖鈴)
욕	〔명〕 수고
욕 보이소, 욱 보이이소	〔구〕 수고 하십시오.
욕 보요	〔구〕 수고 하십니다.

용개
 용개친다
 용고름, 용구름

 용심
 우
 우거리, 우그리
 우넝, 우대
 우두:다, 우다:다
 우때서
 우루:다, 우라:다
 우롱시^이
 우봉, 우봉
 우사
 우서내
 우시개
 우애꺼
 우짜다
 우짜든지
 우짜몬
 우짤
 우째서
 우찌
 우캐
 우터럽다, 우트롭다
 우통, 옷통
 우티하다
 운재
 울매
 옷담
 옷머, 옷목
 웅디^이
 원대가리
 원시^이, 언시^이
 육모초
 윤
 윤디
 웅구리, 웅그락
 울
 으내
 으드름, 어드름
 으망
 은애
 은자
 음마, 음마
 앳다
 앳애다
 앳애빠다
 앳이 산다
 응때다, 문때다
 이개다
 이깁

명 용두질, 수음(手淫)
 동 용두질한다
 명 용마름, 초가의 용마루나 토담을 덮는, 짚으로 가운데가 등성이지게 길
 게 엮은 이엉.
 명 남을 못되게 훼방 놓는 일 또는 그런 마음.
 명 위
 명 고지
 명 북쪽 지방, 전라도 지방도 가리킴.
 동 지나치게 보호하다, 과잉보호하다.
 문 어떠한
 동 우리다
 명 우렁챙이
 명 우렁
 명 창피
 문 우선
 명 우스개
 (구) 이외의 것
 문 어찌다가
 문 어쨌든
 문 어찌면, 아마
 관 웬
 문 어째서
 문 어찌
 명 우캐
 형 위태롭다. 위험하다
 명 윗도리
 형 위태하다
 문 언제
 문 얼마
 명 윗마을
 명 옷목
 명 웅덩이
 명 우두머리
 명 원숭이
 명 익모초(益母草)
 명 눈(雪)
 명 인두
 명 장작이 타고 난 뒤 숯이 되기 전, 불이 이글이글 붙어있는 덩어리.
 명 옷
 명 는개. 아지랑이
 명 여드름
 명 여자의 음기. P.저 여자 으망이 참 세단다.
 명 은어
 문 이제
 명 엄마
 형 앳다
 동 앳애다
 동 앳애 버리다
 (구) 가난하게 산다.
 동 문지르다
 동 가루 따위를 물에 버무르다.
 명 미끼

이녁, 이녁	ㅁ 당신,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는 말.
이리	ㅁ 이레(七日)
이리다	동 읽다
이망	ㅁ 이마
이비야	ㄱ 아기에게 무서운 느낌을 줄 때 쓰는 말.
이뿌다	형 예쁘다
이시미	ㅁ 이무기
이실	ㅁ 이슬
이약, 이박	ㅁ 이야기
이우지	ㅁ 이웃
이지끼	(구) 이제까지
이지다	동 얼굴이 피다
이짐	ㅁ 건망증
이짐이 혈타	(구) 건망증이 심하다
이터하다	형 위태하다, 우협하다
이쪽	ㅁ 이쪽
인척기	ㅁ 인기척
일러 조오라	동 잃어 주어라
일마	ㅁ ㄱ 이놈, 이놈아!
일바시다	동 일으키다
일부리, 일부로, 역부로	ㅁ 일부러, 고의로
임벙	ㅁ 장티브스
임석	ㅁ 음식
임재	ㅁ 임자
입사구	ㅁ 앞사귀
입소리, 입수리, 입수부리, 입수구리	ㅁ 입술
잇긴다	동 웃긴다
잇는다	동 웃는다
잇우:다, 잇아:다	동 잇다(續)
잉애	ㅁ 잉아[綜]
잇이빠리다	동 ① 잇어 버리다 ② 잃어 버리다

[즈]

자겁하다	동 질겁하다. 뜻밖의 일을 당하여 몹시 놀란다.
자래	ㅁ 자라
자리	ㅁ 자루. P.이 쌀 자리에 담아라.
자리	[의병] 자루. P.연필 한 자리
자리 오(이)소	(구) 어서 오십시오(인사말)
자매다	동 잡아 매다, 묶다, 매다
자물시다	동 까무러치다
자반 게이	ㅁ 자반고기. 찌거나 구운 생선
자부름	ㅁ 졸음
자부름다	동 졸리다
자부림이 온다	동 졸리다
자불다	동 졸다
자새	ㅁ 얼레
자석	ㅁ 자식
자아	ㅁ 저 아이
자아묵다 ~~~	동 잡아 먹다

자안집	명 작은집
자아찌	명 장아찌
자양구, 재양구	명 자전거
자영	명 자형
자오, 장오	명 자웅
자치	명 자치기
작데이	명 ① 작대기, 막대기 ② 지팡이
작수발	명 ① 매어 놓은 줄(빨랫줄 등)이 늘어져 처지지 않게 줄의 가운데 부분에 받쳐 놓은 막대. ② 사람의 키 높이만한 세 개의 작대기로 윗부분을 묶어 세워 간짓대를 걸치는 받침. 작사리.
작은각시, 자안각시	명 칩(妾)
작은설	명 까치설
잔돈	명 ① 낮은 단위의 화폐 ② 거스름돈
잔수	명 조
잔아버지	명 작은 아버지
잔어매	명 작은 어머니
잔테이	명 조그마한 잡어
잘래비	명 잠자리
잠티이, 잠치이	명 잠보
장, 자양	부 늘
장개	명 장가
장개이	명 정강이
장구다	동 잠그다
장기	명 장리(長利). 봄에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받을 때에 본디 꾸어준 곡식의 절반을 더 늘려 받는 것.
장깍치이, 장깍채이, 장종지	명 간장 종지
장꼬방	명 장독대
장공	명 장끼
장도리	명 망치
장딱, 장딱	명 수탉
장딴지	명 종아리
장뚝뜨개	명 장독 뚜껑
장뚝간, 자안간	명 장독대, 장독간
장반	명 쟁반
장사	명 장수, 상인
장차젓	명 대구 아가미 젓
장쭈기, 장쭈지	명 간장 종지
재	명 고개
재갈, 자갈	명 자갈
재그럽다, 간지럽다	형 간지럽다
재깨미	명 기왓장을 부순 가루.(눗그릇을 닦는 데 씀)
재끼다	동 짓히다
재다	동 쌓다
재매다	동 잡아매다
재새	명 벽이나 바닥에 흙이나 시멘트로 마감질하는 것.
재애, 지애	명 기와(瓦)
재애다	동 쌓다
재애다	동 깨우다
재애집, 지애집	명 기와집
재앤	명 장인
재양구	명 자전거
재이다	동 쌓이다
재작지이다	동 해작질하다.

재치기	명 재채기
재침	명 재치기
잡히:다	동 잡히다<被動>
잡히다	동 잡히다<使動>
저구리	명 저고리
저따아	대 저기에
저라다, 저라다가	(구) 저렇게 하다가
저승끝	명 김버섯
저실	명 거울
저어	대 저기
저쪽	대 저쪽
저트랑	명 거드랑
적군	명 어장에 필요한 샷군.
꺾다	동 꺾다
전디다	동 건디다
전반	명 인두판
전북	명 전복
전봇대	명 전봇대
전애	명 전어
전장	명 전쟁
전주:다	동 겨누다
절	명 젓
절꼭대이, 절꼭데이	명 젓꼭지
절미기, 절미이	명 젓먹이
절리:다	동 걸리다
점두룩	부 온 종일
절마아	명 저놈
점빵	명 가게, 상점
접	명 겹
접끝	명 겹꽃
접방살이	명 곁방살이
접웃	명 곁웃
정강 ^ㅎ 다	형 깨끗하다, 정갈하다
정개이	명 정갱이
정기, 정지	명 부엌
정기 가수나	명 식모(食母). 남의 부엌 일을 하는 처녀.
정끼	명 정기(驚氣)
정기나무	명 정자나무
정내미	명 정(情). 정나미
정때	명 오후
정물	명 여자가 집안 살림살이에 인색함. P.정물이 데다.
정심, 정섬	명 점심
절	명 곁
절방살이	명 곁방살이, 셋방살이
제까락	명 짓가락
제구로	부 겨우
제금, 저금	명 분가(分家)
제금나다, 저금나다	동 분가하여 살림을 차리다
제름, 제름대, 제름대이	명 겨름대
제리다	동 저리다. P.풀이 제리다.(=팔이 저리다)
제리다	동 질다. 소금을 뿌려서 질게 하다. P.소곰에 제리라.
제리다	동 엮다. P.대밭을 제리다.

제매	명 매제
제복	부 제법, 패
제:구, 제구로	문 겨우
제엘	문 가장, 제일
제:우, 제우시	문 겨우
제피	명 잘피
젠장	갑 제기랄
젠장 마질꺼	갑 제기랄 것
젯기다, 젯히다	동 젯히다
조구	명 조기
조레이, 조래	명 조리
조매	문 줌처럼
쫓오, 쫓우	명 종이
조지다	동 망치다
조청	명 물엿
조캐, 조카	명 조카
조캐딸	명 조카딸
조푸	명 두부
족부	명 족보(族譜)
좀 좀	갑 죄암죄암
종기	명 종지
종내기, 종낙	명 짐승의 품종
종그로	부 종계
종기	문 종계
주개	명 밥주걱
주디이	명 주둥아리, 주둥이
주루:다, 주라:다	동 줄이다
주무리다	동 주무르다
주목	명 주먹
주운자, 주전자	명 주전자
주지넘따	형 주제넘다
주책	형 주착(主着)
주치, 주치돌	명 주춧돌
죽두룩	문 죽도룩, 실컷
죽신	명 죽순
줍치, 주미이	명 주머니
줍다	동 줍다
줍밥	형 인주(印朱)
중신	명 중매(中媒)
중신애비	명 중매장이
증참	명 곁두리
즈으집	명 자기집
지	명 쥐
지겁, 지기미	명 비듬
지게이	명 쥐치
지기미	명 비듬
지기미, 지이미	명 제 어머니
지끼미	부 제 각기
지내	명 지네(蜈蚣)
지다리다	동 기다리다
지댄다	동 기댄다
지덕	명 진흙(泥土)

지동	명 기동
지래	명 지라[脾臟]
지루:다, 지라:다	동 기르다
지리기, 지리이	명 길이[長]
지만하다	동 그만하다, 그치다
지미	명 기미
지불땡 먼데이	명 지붕 위 꼭대기
지뽕	명 집뽕
지숙	명 기숙
지심	명 김(밭의 잡풀)
지엽다	형 지루하다
지어나다	동 지어나다
지어묵다	동 집어먹다
지어박다	동 쥐어박다
지인	명 주인(主人)
지자	명 치자(櫃子)
지정	명 기장
지지기, 지지이	명 기지개
지질로	부 저절로
지집	명 계집, 아내
지차	명 ① 버금 ② 둘째 아들
지침	명 기침[咳嗽]
지탐	명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혼자서 양탈을 부리는 것.
지포	명 취치포
지푸다	형 값다
지푸레이	명 지푸라기
직끼미	명 어느 곳을 항상 지켜주는 동물 또는 사람.
직이다	동 죽이다
진역	명 징역(懲役)
진저리	명 진절머리
진 진	갑 끈지끈지
진차이	부 ① 긴(緊)꺾이, 괜히 ② 기다리도 아니한 쓸데없이 태어난 아이
진다	동 ① 자라다 ② 이자(利子)가 분다.
질	명 길(道路)
질	[의병] 길. 사람 키의 한 길이.
질겁다	형 즐겁다
질거리	명 길 거리, 거리
질금	명 ① 숙주나물, 녹두를 콩나물처럼 키워 놓은 것. ② 엇기름
질금나물	명 숙주나물
질다	형 길다
질디린다	동 길들인다
질리:다	동 싫증이 나다
질매	명 길마[鞍裝]
질삼	명 김쌈
질수	명 방법
짐장	명 김장
짐치	명 김치
집	명 즈(汁)
집다	동 값다
집지다	형 재미있다, 풍성하다. P. 그 사람 이야기 참 집지다.
집지숙	명 기스락
짓	명 옷깃

짓
 짓고때이
 징글발다
 징기다
 징어리
 징키다
 짐소구리
 짜구
 짜구 나다
 짜다리, 짜드라
 짜리다
 짜리다
 짜아, 짱애
 짜잘다
 짜짱구
 째기다
 째다
 째
 째다리
 째보
 째이다
 째입다
 째끼
 째가리
 째글시다, 째글시리다
 째깁, 째맨
 째깁는다
 째달리이다
 째루:다, 째라:다
 째우다
 째뻗하다
 째가내다
 째두리
 째발
 째발이
 째씩개
 째다
 째그래이, 째고래이
 째루:다, 째라:다
 째치이
 째꺼레이
 째끼이
 째다
 째린내, 째내
 째불어지다
 째불동하다
 째붓하다
 째슬거지
 째아주다
 째우다
 째이다
 째지다

ㅁ 부싯깃. 부싯돌로 불을 켤 때 쓰는 재료. 주로 약쑥을 부벼서 쑤.
 ㅁ 지어뻐이. 노름의 일종.
 ㅁ 징그럽다
 ㅁ 지니다
 ㅁ 정어리
 ㅁ 지키다
 ㅁ 짚으로 만든 삼태기.
 ㅁ 자귀.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
 ㅁ 너무 많이 먹어서 키가 커지지 않다.
 ㅁ 그렇게나, 그다지
 ㅁ 짧다
 ㅁ 자르다. 어떤 물체를 동강나게 가로 베다.
 ㅁ 장어
 ㅁ 신분보다 저속한 행동을 하다.
 ㅁ 짹짹
 ㅁ 지리다
 ㅁ 짜다[鹹]
 ㅁ 여가, (시간의)틈
 ㅁ 장다리 무우
 ㅁ 언청이
 ㅁ 쪼들리다
 ㅁ 껴입다
 ㅁ 조끼
 ㅁ 조각, 쪽
 ㅁ 쪼그리다
 ㅁ 조금
 ㅁ 작다, 적다, 자그마하다
 ㅁ 쪼들리다
 ㅁ ① 조리다. ② 줄이다
 ㅁ 죄다
 ㅁ 뽀족하다
 ㅁ 쫓아내다
 ㅁ 족두리
 ㅁ 돼지고기의 발목 부위.
 ㅁ 왜놈
 ㅁ 족집게
 ㅁ 쫓다
 ㅁ 조롱박
 ㅁ 줄이다
 ㅁ 죽정이
 ㅁ 찌꺼기
 ㅁ 찌꺼기
 ㅁ 끼다
 ㅁ 지린내
 ㅁ 기울어지다, 이지러지다
 ㅁ 기웃둥하다
 ㅁ 몸과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ㅁ 남은 찌꺼기
 ㅁ 끼워주다
 ㅁ ① 찌다 ② 끼우다
 ㅁ 끼이다
 ㅁ 지지다

찌트리다, 찌티리다	동 끼뜨리다, 끼었다
찍개	명 집계
찍다	동 ① 찍다 ② 찡다[搗]
찍지부리하다	형 몸과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찡기다	형 질기다
찡	명 배경(背景). 뒤 보아 주는 사람 또는 세력.
찡구:다, 찡가:다	동 끼우다
찡찡하다	형 잘 들지 않거나 잘 통하지 않다.

[ㄷ]

차나라	명 차벼
차리받다	형 장난끼가 많다.
차물미	명 차멸미
차악차악	문 차곡차곡
차침	문 차차
차포	명 차표(車票)
찰떡같이	[구] 아주 단단히
찰조	명 차조, 찰진 조
찰지다	형 차지다
참꽃, 창꽃	명 진달래꽃
참나무	명 상수리나무
참에	명 참외
참다	형 차다
창깨구리	명 창개구리
창수	명 창자
창창감다	[구] 찬찬 감다
채	[의병] ① 척(隻). P.배 한 채 ② 채. 집을 헤아리는 단위.
채리다	동 차리다
채비	명 차비(車費)
채소쿠리	명 가느다란 싸리나무를 엮어서 삼태기처럼 만들어 자갈등을 담아 옮길 때 쓰는 도구.
채시리다	동 어린 아이가 많이 울고난 뒤, 생리적으로 몸을 가볍게 떨며 한숨 비슷한 소리를 내다.
채애다	동 꾸다
채애주다	동 꾸어주다
채앨	명 차일(遮日)
책껍디이, 책꺼풀	명 책 표지
참빛	명 참빛
챙기보다	동 살펴보다
처무우라	동 처먹어라 <卑語>
처수	명 처남(妻男)의 태. 처수(妻嫂)
처이, 처니	명 처녀
처지	명 처제(妻弟)
천대꾸리이	명 천덕꾸리기
천상	부 할 수 없이
천장	명 천정(天井)
천지다	형 아주 많다
첩사이	형 첩(妾)
청	명 마루
청애	명 청어(靑魚)
체라본다	동 쳐다본다

체부, 체보
 체이
 초다들, 초다디미
 초라이
 초불
 초상나다
 초차아
 축
 축
 축새
 축구
 추달받다
 추리:하다
 추우, 치부
 추자
 추주:다, 추자:다
 축
 축구
 축나다, 축이 나다
 축담
 축사:다
 춘세
 춤
 춤치다
 치
 치다
 치대다

 치매
 치송하다
 치시리다
 치우다, 치아다
 치우다
 치중 잘한다
 치키다
 치키보다
 칩, 칩
 칩냉쿨
 칩뿌리
 칩갑
 칩다
 칩기이다, 치이다

명 우체부
 명 키(箕)
 명 처음
 명 초라니. 몹시 출랑거리는 사람.
 명 애벌
 동 사람이 죽다
 명 처음에
 명 싹
 명 말의 약점. P.축 접힐 말 하지마라.
 명 입이 가볍고 까불대는 사람.
 명 충기, 기억력
 동 심문을 받다.
 형 추레하다
 명 추위
 명 호두
 동 적시다, 축이다. 물을 뿌리거나 뿜어서 축축하게 하다.
 명 마른 오징어 등을 10마리 묶은 단위.
 명 바보
 동 줄어들다
 명 집 앞쪽의 주춧돌이 있는, 마당보다 높게 쌓아 놓은 곳. 뜰.
 동 적시다, 축이다
 명 추녀
 명 침(唾液)
 동 춤추다
 명 키(舵)
 동 추다. P.춤을 치다.
 동 ① 빨래감에 비누나 기타 세제가 듬뿍 젖어 들도록 뒤척이다.
 ② 함께 어울려서 지내다.
 명 치마
 동 돌보다
 동 추키다, 움짚하다
 동 ① 치우다 ② 시집 보내다.
 동 버리다. P.낫을 치우다.
 [구] 가축이 새끼를 잘 낳아 키운다.
 동 추키다
 동 한 단계 높여서 보다. ↔ 낮차보다
 명 칩
 명 칩덩굴
 명 칩뿌리
 명 투성이
 형 춤다
 동 치이다

[ㅋ]

카지
 칼뻐
 칼클ㅎ다
 캐비
 커리
 코꼬웃

명 가지(枝)
 명 정강이 뼈
 형 깨끗하다
 형 나뭇가지
 [의명] 켄레
 명 코속의 털

코끈^ㄷ이
코띠^이
코드래
콩까리
콩까리 집안
콩깍데이
콩밥
콩지름
콩지름
큰아버지
큰어매
큰집
키보
키우다, 키아다

명 코끝
명 콧등
명 코뚜레
명 콩가루
명 ① 파산지경의 가세 ② 의논이 맞지 않고 제 멋대로인 집안.
명 콩 껍질
명 ① 콩을 넣어서 지은 밥 ②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먹는 밥.
명 콩나물
명 콩기름
명 백부(伯父)
명 백모(伯母)
명 종가집, 백부댁(伯父宅)
명 키가 유달리 큰 사람에게 붙이는 별명.
동 기르다, 기꾸다, 양육하다

[ㅌ]

타개다
타리박
탁베이
탕수국

태가리

택
택조가리
택구
택도 아이다
택도 ^ㄹ다
탕구:다, 텅구:다
탱주
터리기,터리이
털미이,메터리
털치입다
털^이이
털^다
톈^이
톈개비, 톈짜비
툇나물
통
통대구
통시
통수
통태
투구, 투우
툇바리,툇사리, 톈사발
툇하다
트러지다
트리미
틀, 자봉틀

형 닳다
명 두레박
명 탁주, 막걸리. ←탁배기
명 제사 상에 차리는 탕. P.탕수국 내애미가 난다.(=탕수국 냄새가 난다)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어간다.)

명 ①턱(顎)의 비어(卑語) ② 항아리나 옹기 등의 주둥이(윗부분)
③ 물건의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
명 턱
명 턱 <卑語>
명 택호(宅號)
(구) 얼토당토않다. 많이 모자라다.
(구) 어렵도 없다
동 통기다
명 탕자
명 털(毛)
명 미투리
동 덧 입다
명 일을 아무지게 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
형 뽏다
명 토끼
명 도깨비
명 툇 (海草의 일종)
부 진혀
명 통째로 말린 대구
명 화장실, 변소
명 통소
명 ① 바퀴 ② 굴렁쇠
명 토우(土雨), 는개
명 툇배기
형 굶다
명 토라지다
명 트림
명 재봉틀

틀리다	〔동〕 다르다(異)
티우다, 티아다	〔동〕 튀기다
티이다	〔동〕 트이다
티전	〔명〕 투전
팅구:다, Ting가:다	〔동〕 통기다

[ㅍ]

파이다	〔동〕 틀렀다, 좋지 않다
판때기	〔명〕 판자(板子)
팔ᄇᆞᆫ이	〔명〕 바보, 팔푼이(八分)
패	〔명〕 파(蔥)
패:내끼, 해:내끼	〔부〕 빨리, 곧장
패ᄇᆞᆫ	〔명〕 팽이
팩팍스럽다	〔형〕 성질이 급해서 화를 잘 내다.
퍼다	〔동〕 푸다
퍼뜩	〔부〕 얼른, 빨리
퍼지었다, 퍼지리었다	〔동〕 주저앉다
페기, 페이	〔명〕 포기(배추)
폭지	〔명〕 포기(벼)
페다	〔동〕 퍼다
펜 ≙ 다	〔형〕 편하다, 편안하다
펜 ≙ 더나	〔형〕 편안하디나
펑풍	〔명〕 병풍
포	〔명〕 표(票)
포래	〔명〕 ① 이끼 ② 바다 파래
포리, 포레ᄇᆞᆫ	〔명〕 파리
포리수름하다, 포루수름하다	〔형〕 파르스름하다
폴	〔명〕 팔
폴꼬마리	〔명〕 팔꿈치
폴목	〔명〕 손목
폴심	〔명〕 팔힘
폴짚	〔명〕 팔짱
폴	〔명〕 팔
폴죽	〔명〕 팔죽
푸른동지	〔명〕 명
푼나물	〔명〕 푸성귀
푼이파리	〔명〕 푸성귀
폴멘다	〔동〕 김 맨다
폴비	〔명〕 귀알
폴쌌애기	〔명〕 폴쌌기
폴씨	〔명〕 자운영
폼다	〔동〕 ① 폼다 ② 뽑다
푼고치	〔명〕 푼고추
푼심	〔명〕 학질
푼개	〔명〕 차두
푼지박산	〔명〕 사방으로 조각조각 흩어짐.
푼채	〔명〕 차양(遮陽). 초가나 기와집의 추녀 끝에서 달아내어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만든 것.
푼다	〔동〕 피우다(吸煙)

피끼, 피기	명 빨기
피리	명 피라미
피문애	명 작은 문어의 다리 흠반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말린 것.
피보리, 꺾덕보리	명 겉보리
핏덩거리	명 핏덩어리
핑기다	동 풍기다
핑비이	명 풍뎡이

[ㅎ]

하간	명 하관(下棺)
하근내	명 불에 타서 놓는 냄새
하내이, 하네이	명 한 사람
하님, 한님	명 여자 하인. 시집갈 때 신부를 따라가서 시중드는 여자 하인.
하닥, 하리	명 화로
하리	명 하루
하모	갑 그림
하아	갑 그림
하안자, 하안자	명 어느 해, 어느 때
하아장사	명 비단장수
하알	명 하늘
하알수박, 하늘수박	명 하늘타리
하잡다	형 좋지 않다
한그속	문 가득, 많이, 담뱃
한질	명 한길
한대	명 밖
한목애	문 한꺼번에
한하이	문 환하게
할딱벗다	동 발가벗다
할망구	명 할머니 <卑語>
할매	명 할머니
할배	명 할아버지
함부두룩	문 함부로
함부래	문 아예
함부리	문 함부로
함티이	명 함지, 고기나 채소를 팔기 위해, 이고 다니는 그릇.
합자	명 홍합(조개류의 일종)
항깨	문 함께
항칠	명 낙서
해꾸지	명 사람이나 짐승을 괴롭히는 것.
해깁다, 해꿍다	형 가볍다
해애내키	문 곧장, 곧바로, 똑바로, 빨리
해드나, 하드나	문 더구나, 게다가
해문	명 해무리
해복	명 해산(解産)
해복간	명 해산의 뒷바라지
해애기	명 새폐기, 벽 이삭이 달린 부분의 가는 짚.
해애나	문 흑시, 행여나
해치구디이, 빨구디이, 빨구덕	명 수령
해포리	명 해파리

해필
 핵고
 햇딱, 히떡
 햇대
 행고
 행사
 행오리
 행자
 행우지
 행토
 허덕거리다
 허들
 허루:다
 허리끈, 혈끈
 허벅다리
 허불
 허새비
 허우대
 허패
 허풍시^이
 현단
 현데, 현디
 혈래
 혈우다
 혈^ㅎ다
 헛간
 헛거무
 형겁데^이
 헤가리
 헤능
 헤디기, 헤디이
 헤시다
 헤작질
 헤차리
 헛거리
 호^이
 호로자식
 호메^이
 호부
 호부래비
 호부래미, 호부리미
 호박
 호박우거리
 호시
 호우다
 호청
 혼자
 훌깨
 훌끼:다
 훌치매다
 훌는다

부 하필
 명 학교
 부 재빨리 뒤로 넘어지거나 반대 방향의 행동을 하는 모양.
 명 헛대
 명 향교(鄕校)
 명 나쁜 버릇
 명 해오라기
 명 행주
 명 행위, 버릇
 명 나쁜 행실
 동 배가 고과 허덕허덕한다. 마뻐 날뵈다.
 명 엄살
 동 교미 시키다
 명 허리띠
 명 허벅지, 허벅다리
 명 허물, 꺾질
 명 허수아비
 명 허위대
 명 허파
 명 허풍선이
 명 남을 헐뜯는 말
 명 부스럼
 명 짐승의 교미
 동 헐게 하다, 굵게 하다.
 형 ① 싸다(값이) ② 끼우는 두 물건 사이의 틈이 있어 헐렁헐렁하다.
 P. 나사가 헐타.
 명 두염이나 농구 등을 넣어두는 문 없는 방.
 명 원기가 없어 눈 앞에 무엇이 아른거리는 것.
 명 형겅
 명 해결.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하여 서로 상쇄하는 것.
 명 시늉
 명 호드기
 동 뒤지다
 명 장난질
 명 회초리
 명 걸신(乞神). 먹어도 차지 아니하고 자꾸 먹고 싶어하는 것.
 명 호랑이
 명 후레아들
 명 호미
 부 단지, 홀으로
 명 훌아비
 명 훌어미
 명 확(臼)
 명 호박고지
 명 기분 좋고 재미 보는 일.
 동 휘게하다
 명 요나 이불의 안쪽을 덧씩워 시치는 넓은 천.
 부 혼자
 명 버를 훌는 기구.
 동 훌리다
 동 훌치어 매다
 동 훌는다

흥	명 소의 입막이.
흥말	명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흥재	명 횡재(橫財)
흥진	명 흥역
후뚱다	동 쫓다
후우재	명 먼 훗날
훈	명 말의 분절
훗모래	명 그글피
훗빈하다	동 거의 비었다.
훗치이	명 극쟁이
훗다	동 쫓다
훗, 훗	명 훗
훗구디이	명 훗구덩이
훗디이, 훗덩거리	명 훗덩이
훗칼, 훗손	명 훗손
히끼	명 휘파람
히빈하다	명 희분하다
히비다, 히지다	동 후비다
히안하다	명 신기하다
힌조시	명 달걀의 흰 자위
힌창	명 눈의 흰 자위

참고 문헌

- 김영진(1982), '가야어에 대하여' . 「가라문화」(경남대) 1.
- 도수희(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 「방언」 5.
- 박창원(1983), '고성지역어의 음운사에 대하여' . 「국어연구」 54.
- 백두현(1982), '금릉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 「문학과 언어연구」(경북대) 11.
- 이기문(1972a), 「국어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서울대).
- (1972b), 「개정 국어사 개설」. 서울, 민중서관.
- (1976b),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 「국어국문학」 72.73.
- 이병근(1970a),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 「동아문화」 9.
- (1970b), '19세기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 「학술원논문집」 9.
- (1971), '운봉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 (1976b),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 「국어국문학」 72.73.
- 이병선(1967), '鼻母音化現象考 -경상도방언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37.38.
- (1971), '경남방언에서의 모음조화현상' . 「국어국문학」 54.
-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 「국어연구」 45.
- 정연찬(1968), '경남방언의 모음체계' . 「국문학론집」(단국대) 2.
- (1974), 「경상도 방언 성조연구」. 국어학회.
- (1980b), '경남방언 음운의 몇가지 문제 -특히, 고성, 통영지방을 중심으로-' . 「방언」 4.
-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 「국어연구」 32.
- (1977),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 -서남 경남방언을 중심으로-' . 「학술원논문집」 5.
- (1976), '서남 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 의 음운현상' . 「국어학」 4.
-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중호(1983), '고성지역어의 모음변화 -//음 의 변화를 중심으로-' . 「통영수대 논문집」 18.
- (1984a), '고성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모음을 중심으로-' . 「경남어문」(경남대) 13.
- (1998), '고성(固城)지역어의 음운 연구' . 박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1998), '고성 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동화 현상' . 「석당논총」(동아대) 27.